

우리는
대한민국

2011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 김형기

우리는
대한민국

2011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 김형기

2011년 통일예측시계

인 쇄 2011년 12월
발 행 2011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예원기획 (T. 02-745-8090)
인 쇄 처 (주)예원기획
ISBN 978-89-8479-627-0 93340
가 격 8,000원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매장: 734-6818·사무실: 394-0337

2011년 통일예측시계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약	ix
I. 서 론	1
II. 통일예측시계 구축: 전문가 델파이(Delphi) 조사	7
1. 방법론: 미래예측방법으로서의 델파이 기법	9
2. 2010년 통일예측시계 사후분석	14
3. 2011년 통일예측시계 조사 개요	27
III. 2011년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	33
1. 통일예측시계	35
2. 통일요인 설문조사: 델파이 패널	58
3. 2011년 델파이 패널 조사 요약	94
IV. 2011년 국민여론조사	101
1. 통일예측시계: 국민여론조사	104

2. 통일요인 설문조사: 국민여론조사	108
V. 결론	123
참고문헌	130
부록	131
1. 2011년 전문가 통일예측시계 텔파이 조사 요약	133
2. 2011년 텔파이조사 설문지	136
3. 2011년 전문가 패널 텔파이조사 개방형 설문 요약	148
최근 발간자료 안내	155

표 목 차

[표 II-1] 2010년 통일예측시계 조사 개요	20
[표 II-2] 통일예측시계에 대한 판단 근거	28
[표 II-3] 2011년 델파이 패널 조사 개요	30
[표 III-1] 2009년~2011년 통일예측시계 시간변화 요약 ...	36

그림 목 차

[그림 II-1] 미래예측모형 계통도	10
[그림 II-2] 델파이 기법 절차	12
[그림 II-3] 2010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패널	19
[그림 II-4] 합의형 통일시계 집단 간 평균오차도표	23
[그림 II-5] 흡수형 통일시계 집단 간 평균오차도표	26
[그림 III-1] 합의형 통일시계 하위분야의 3년간 변화	40
[그림 III-2] 흡수형 통일시계 하위분야의 3년간 변화	49
[그림 III-3] 통일시계와 정치분야 통일요인	60
[그림 III-4] 통일시계와 경제분야 통일요인	66
[그림 III-5] 통일시계와 사회분야 통일요인	70
[그림 III-6] 통일시계와 군사분야 통일요인	76
[그림 III-7] 통일시계와 남한의 역량 분야 통일요인	81
[그림 III-8] 통일시계와 국제관계분야 통일요인	88
[그림 III-9] 북한 체제유지 요인과 통일시계	98
[그림 V-1] 2011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패널	125
[그림 V-2] 통일예측시계의 변화: 2009~2011	126

본 연구는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그에 기반을 둔 우리의 국가목표인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일예측 모형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통일예측시계를 구축·측정하여 왔다. 3년간의 조사과정에서 통일예측시계는 더욱 정밀하고 세련된 방법론적 기반 위에 이 분야에서 매우 희소한 통일분야 정량지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통일예측시계는 크게 합의형 통일시계와 흡수형 통일시계 2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가 상기 두 가지 통일유형으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또한 두 개의 통일시계 하위에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의 5가지 분야별 통일시계를 두었다. 이에 따라 총 12개의 통일예측시계가 설계되었다.

통일예측모형의 구축을 위한 시도도 계속되었다. 본 연구는 제1차년도부터 3년간 전문가 패널에 대한 조사과정을 통해 수백 개의 통일예측시계 결정요인, 즉 통일요인을 추적한 뒤 이를 최종적으로 36개 통일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상당수의 통일요인이 아직은 통일이라는 변화를 초래하기에는 그 영향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요인의 경우 매우 분명하게 변화를 촉발하거나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1년 제3차년도 연구는 통일예측시계의 지수적 안정화와 미래예측모형으로서의 정합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델파이 패널을 구성하는 전문가의 숫자를 기존의 50명 수준에서 8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례수 부족을 보강하였다. 또한 3년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 유형에 따른 유발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1년에도 델파이 패널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하여 일반 국민과 패널의 시각차를 비교하였다.

델파이 패널에 대한 2011년 조사결과 합의형과 흡수형 통일시계는 각각 4시 19분과 5시 56분으로 나타났다.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48분 늦어진 것이며, 2010년에 비해 14분 후진한 것이다. 즉, 3년 연속 합의형 통일가능성이 후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흡수형 통일시계의 변화는 다소 독특하다. 2009년 5시 44분이었던 흡수형 통일시계는 2010년 4시 25분으로 36분 후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에는 다시 10분이 빨라졌다. 각 하위분야의 경우 대체로 2010년과 비교할 때 거의 변화가 없었다. 흡수형 하위 5개 통일시계가 합의형 하위 5개 통일시계보다 통일에 더 가까웠으며, 경제·사회분야 통일시계가 정치·군사분야 통일시계보다 더 통일에 가깝게 나타났다.

통일요인은 2010년에 비해 현저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통일요인이 현재는 큰 변화의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하는 가운데, 북한 경제위기만이 가장 강력한 체제변화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과도기적 요인으로 평가되는 김정일체제의 안정성, 북한 내부 권력 갈등, 시장경제와 사유화 확산, 북한 주민의 자유화와 개방화에 대한 의식수준, 북한 주민의 체제지지도, 외부정보 유입 수준 등이 주목된다. 이들 과도기적 요인이 점차 강화될수록 통일시계의 변화는 더욱 커질 것이다.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통일시계도 취합되었다. 2011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4시 42분, 흡수

형 통일시계는 4시 57분으로 평가하였다. 국민의 두 가지 통일시계에 대한 상대적 시간차는 델파이 패널과 마찬가지로 흡수형 통일시계가 더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두 통일시계는 2010년에 비해 각각 흡수형은 -5분, 합의형은 -39분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델파이 패널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델파이 패널에 비해 일반국민은 1시간 11분 통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흡수형 통일의 경우 반대로 33분이 더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가 패널의 평가가 일반인보다 합의형 통일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흡수형 통일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I. 서론

통일문제는 남북관계, 북한내부, 국제환경 등 다양한 차원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다. 그러나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일 상황을 과학적으로 점검·예측하는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그에 기반을 둔 우리의 국가목표인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일예측 모형(통일예측 시계)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통상 정량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구축된 지수는 지속성과 축적성이 담보되어야 본연의 정량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3년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통일예측모형 연구: 지표 개발과 북한 체제 변화 추세 분석』에서 개발된 지식축적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3년간 조사된 『통일예측시계 구축』의 결과물이다. 3년간의 조사과정을 통해 통일예측시계는 더욱 정밀하고 세련된 방법론적 기반 위에 이 분야에서 매우 희소한 통일분야 정량지표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제1차년도인 2009년 통일예측시계 과정에서는 1차례의 파일럿 연구와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에 따라 12개 분야의 통일시계를 구축하였다. 통일시계는 크게 흡수형과 합의형 통일유형으로 대별되며 각각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부문으로 세분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성된 통일안보 분야의 델파이 패널은 1,500여 문항의 통일요인을 제안하였다. 이는 다시 33개의 요인으로 작성되어 3차 델파이 조사에 적용되기도 하였다.

제2차년도인 2010년 통일예측시계는 2009년의 연장선상에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후분석결과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특히 50여명으로 구성된 델파이 패널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사렛수 증대와 비교집단 구성을 위하여 조사대상을 대폭 확장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패널에 포함되지 않은 외교·안보·통일분야 학자군과

상당기간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관련 정보에 민감한 대북사업가 집단이다. 또한 비교적 최근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100명에 대해 동일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끝으로 일반 국민들의 통일관련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축약된 문항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2011년의 제3차년도 연구는 3년간 수립된 통일에측시계의 지수적 안정화와 미래예측모형으로서의 정합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델파이 패널을 구성하는 전문가의 숫자를 기존의 51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렛수 부족을 보강하였다. 또한 3년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 유형에 따른 유발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1년에도 델파이 패널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하여 일반 국민과 패널의 시각차를 비교하였다.

델파이 패널에 대한 2011년 델파이 조사결과 합의형과 흡수형 통일시계는 각각 3시 31분과 5시 30분으로 나타났다.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2009년에 비해 48분 늦어진 것이며, 2010년에 비해 14분 후진한 것이다. 흡수형 통일시계의 변화는 다소 독특하다. 2009년 5시 56분이었던 흡수형 통일은 2010년 5시 20분으로 36분 후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에는 다시 10분이 빨라졌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5개 하위분야의 통일시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군사부문을 제외한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의 흡수형 통일시계는 모두 9분에서 24분가량 통일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의미 있는 시간의 변동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또한 여전히 5시 56분이라는 통일시계 그 자체는 6시 이전의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델파이 패널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다소나마 2011년의 남북 상황을 흡수형 통일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국민에 대한 통일시계도 취합하였다. 2011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4시 42분, 흡수형 통일시계는 4시 57분으로 평가하였다. 국민의 두 가지 통일시계에 대한 상대적 시간차는 텔파이 패널과 마찬가지로 흡수형 통일시계가 더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두 통일시계는 2010년에 비해 각각 흡수형은 -5분, 합의형은 -39분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텔파이 패널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텔파이 패널에 비해 국민은 1시간 16분 통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흡수형 통일의 경우 반대로 33분이 더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가 패널은 일반인보다 합의형 통일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흡수형 통일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2010년과 마찬가지로 2011년 조사에서도 통일시계의 결정요인으로서 통일요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텔파이 패널의 경우 36개 문항이며, 여론조사에서는 이를 축약한 17개 문항(하위 문항 2개 포함)이다. 특히 텔파이 패널의 경우 2009년 이래로 통일요인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는 문항이 다수 나타났으며, 2011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문항에 대한 답변 범위 역시 매우 넓은 편이다. 텔파이 패널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장기적으로 종사해온 관심집단으로서 비교적 균질적인 정보를 입수해온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3년간 매우 넓은 답변범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 분야 전문가 사이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선명하게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통일예측의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정확한 통일예측시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조사를 통한 안정된 지수의 생산기반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I
II
III
IV
V

Ⅱ. 통일예측시계 구축: 전문가 델파이(Delphi) 조사

1. 방법론: 미래예측방법으로서의 델파이 기법

불확실성, 복잡성, 복잡성을 내포한 미래예측은 한반도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더욱이 분단의 장기화와 탈냉전기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긴장과 유동성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미래예측 기법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보다 적절한 전략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우선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미래예측은 매우 다양한 기법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기법을 체계적으로 구분한 굽타(Dipak Gupta)¹는 기존의 접근을 크게 정성적 접근과 정량적 접근으로 구별하고 있다. 정량모형은 자료기반 모형(data-based model)이라고 할 수 있으며, 패턴인식과 계량경제모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계량경제모형은 전통적 계량기법으로 시계열 분석과 인과모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자동회귀와 이동평균의 결합에 의한 ARMA 또는 MARMA가 대표적 시계열 기법이다. 인과모형은 기본적으로 최소자승법(CLS)에 의존하는 기법이다. 패턴인식은 기상학, 유전자학에서 도입된 비교적 최신의 기법이다. 계량경제모형이 기본적으로 인과변인(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반해, 패턴인식은 특정 이벤트가 벌어지기 이전에 전개되는 선행이벤트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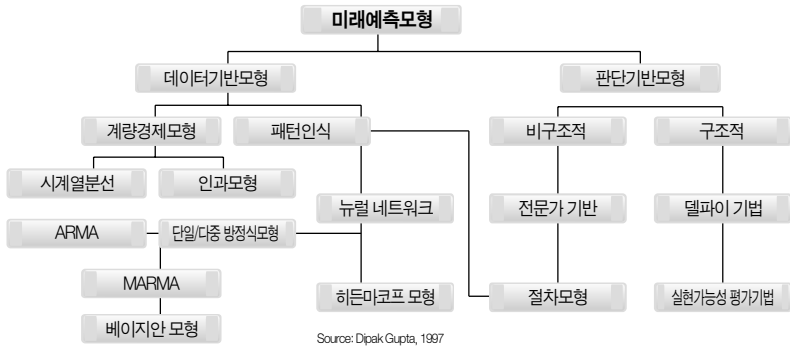
정량모형은 상당한 자료축적을 기초로 미래예측을 구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연구에 적용하기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적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겠다. 즉,

¹ Dipak Gupta, "An Early Warning About Forecasts: Oracle to Academics," S. Schmeidl & H. Adelman (eds.) *Synergy in Early Warning Conference Proceedings* (Toronto, 1997), pp. 375-396.

복한 연구가 통상적으로 겪게 되는 정보부족으로 연구수행에 제한이 있지만, 특히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량연구는 그 시도조차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복한에 대한 예측은 가용한 정량연구를 축적하려는 시도와 함께, 판단에 기반을 둔(judgement-based) 정성적 접근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정성적 접근에는 델파이 기법과 같이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일련의 규격화된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와, 그러한 절차 없이 비체계적으로 미래예측을 시도하는 기법으로 분류된다. 또한 미래예측과정에 있어서 정량적 접근과 정성적 접근 중 어떤 한 가지 접근이 배타적으로 미래예측에 적용될 수는 없으며,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통한 장기적인 계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미래예측 기법의 계열은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미래예측모형 계통도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미래예측기법을 검토하고, 복한에 대한 데이터 접근성을 고려한 뒤,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고 요구되는 방법으로 델파이(Delphi) 기법을 선정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미국의 RAND연구소가 최초로 개발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델파이 기법은 물리적 회의 장소에서 대면하는 과정을 없애고, 진정한 전문적 의견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그룹의 견해를 최적화하고자 하는 델파이 기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다.²

- (1)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지속적으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자(moderator)들이 델파이 전 과정을 파악하여 탄탄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한다.
- (2) 반복(Iteration): 수회에 걸친 라운드를 통해 참가자들이 그들의 답변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3) 통제된 피드백(Controlled feedback): 모든 참가자의 의견을 고려한다.
- (4) 익명성(Anonymity): 참가자들에게 그룹의견에 영향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게 한다.

델파이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진다.

- 1단계: 먼저 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를 찾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 2단계: - 브레인스토밍의 성격, 델파이 주제 정의를 하고,
- 관리팀은 결과 종합 분석, 델파이 주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 3단계: - 전문가들은 설문에 주어진 주제에 대한 실현시기를 예측하며,

² 박영호·김지희, 『통일예측시계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7-8.

- 관리팀은 예측된 결과 집계, 통계적 분포를 나타내는 결과를 제시한다.
- 4단계:
- 전문가들은 예측 시기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응답할 수 있다.
 - 관리팀은 의견을 종합하고, 통계적으로 응답을 분석한다. 합의되지 못한 의견도 정리한다.
 - 적절한 수준으로 응답결과가 수렴되지 않을 경우 질문을 반복한다.
- 5단계:
- 전문가들은 수정된 의견이 포함된 설문을 받아 응답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관리팀은 제4라운드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주제에 대한 예측시기를 발표한다.

<그림 II-2> 델파이 기법 절차



본 연구는 제1차년도(2009년)부터 전형적인 델파이 조사로 수행되었다. 조사는 크게 유형별 통일의 시기와 통일 영향요인 두 가지에 집중되었다. 통일유형은 크게 합의형 통일과 흡수형 통일로 구별하였다. 다양한 통일유형이 제시되었으나, 포괄적으로 합의형-흡수형의 유형으로 수렴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1차년도의 델파이 조사는 파일럿 연구(pilot study)와 3차례의 델파이 조사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 6월부터 11월 13일까지 수행되었다. 조사는 통일시계에 대한 문항과 제1, 2차 조사에서 제시된 통일 영

항요인을 반복적으로 회람한 후 재설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제2차년도 델파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행되었다. 제1차년도의 조사결과와 사후분석 내용이 델파이 패널에게 제시되었으며, 동일한 구조적 설문을 제시하였다. 제1차년도의 경우 통일시계 문항의 구성과 통일 영향요인의 분류로 인해 설문구조 자체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된 경향이 있어, 제2차년도의 설문은 직관적이고 간결한 답변을 유도하도록 조정되었다. 특히, 제2차년도는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집단에 대한 통일예측시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각 집단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집단 간 결과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3차년도는 2년간의 지수화 작업이 완성되는 단계이다. 2년간의 조사를 통해 통일시계 및 통일요인에 대한 검토는 일정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후 반복적인 조사를 통한 지수화가 관건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문항에 대한 미세한 조정 이외에는 별도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 다만, 개방형 질문을 새로 변경함으로써, 앞으로 1년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통일요인에 대한 대비를 하였다.

I

II

III

IV

V

2. 2010년 통일예측시계 사후분석

가. 설문 문항 조정

2년간 지속된 델파이 조사의 과정에서 델파이 패널에 대한 설문문항은 더욱 간명하고 정교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010년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설문 문항의 변화이다.

첫째, 통일예측시계에 대한 응답의 이산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점 척도를 4분하여 각 구간에 대한 판단준거를 부여하였다. 즉,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의 구간을 제시함으로써 피설문자가 되도록 명료하게 통일시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문의 구조도 각 통일유형에 따라 합의형 및 흡수형 통일시계를 별도의 페이지에 각각 구분하여 배치하였다. 이러한 개선의 효과는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2009년 통일시계의 경우 12개 분야에 대한 결측치는 45개의 사례 중 5개에서 9개까지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2010년의 경우 총 51개의 사례 중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계’에 단 한 개의 결측치만 발생하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결측치의 감소는 패널이 2년간 델파이 조사를 통해 얻게 된 응답경험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지만, 설문 문항의 조정에 따른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는 통일요인 설문조사에서 답변방향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형태를 띠도록 방향을 조정하고, 10점에서 9점 척도로 변형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응답의 일관성을 증가시키고 해석을 용이하도록 한다. 즉, 2009년의 경우 10점 척도의 응답 중심은 5.5점이지만 2010년에는 9점 척도의 중간점인 5점이 된다. 점수가 답변의 중심이 됨으로써 보다 간명하게 응답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응답 이산성 문제

2009년 조사에서 나타났던 매우 넓은 응답범위의 분포와 쌍봉형 분포의 영향력은 2010년에도 나타났다. 즉, 분야별 통일시간은 물론이고 36개 통일요인에 대한 빈도분석 역시 전 문항에 걸쳐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결과로서,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통일시계에 대한 평가와 각 통일요인에 대한 평가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이다. 즉, 패널 구성원이 북한·통일·안보 분야에 장기적으로 종사하면서 비교적 균등한 정보를 공유해온 학자군 입에도 통일 환경에 대한 평가는 사안별로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패널 내 개별 학자들의 통일과 통일 환경에 대한 시각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제반 요인들이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통일시계의 경우 6개 합의형 통일시계보다 흡수형 통일시계가 응답 이산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패널이 합의형보다 흡수형 통일에 대한 평가가 더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010년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의 표준편차는 11.929인데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계’는 16.128로 나타났다.

통일요인에 대한 36개 설문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나타났다. 통일요인 설문의 경우는 응답의 범위보다는 해당 설문에 대한 뚜렷한 긍정·부정의 평가차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물론 패널의 숫자가 51명에 불과하므로 9점 척도에서 정규분포와 유사한 중심집중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설문에서는 매우 분명한 쌍봉형 분포(bimodal distribution) 또는 다봉형 분포를 보이고 있어 해당 문항에 대한 패널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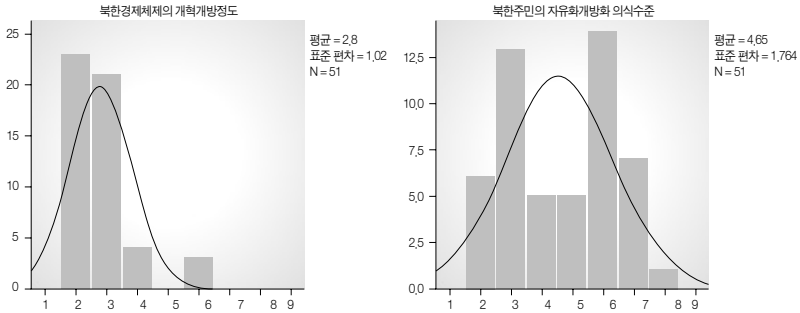
II

III

IV

V

의 이견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된다. 2010년 조사에서 나타난 분포는 크게 뚜렷하게 패널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문항과 쌍봉 또는 다봉형 분포를 보이는 문항으로 구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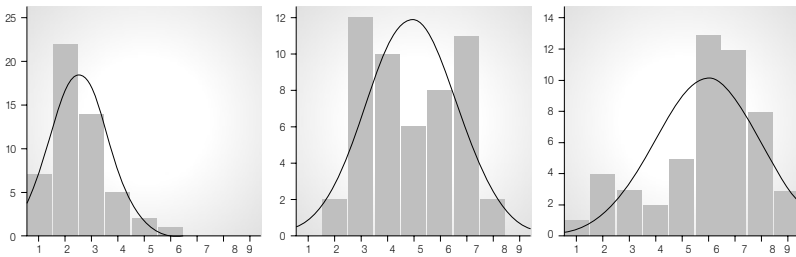


위 그림은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사례이다. 패널은 북한의 체제특성, 독재성, 개혁개방 등 비교적 뚜렷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응답은 대단히 높은 중심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자유화·개방화 수준, 북한 내부 권력갈등, 남한의 경제적 통일역량, 남한의 통일에 대한 합의 수준, 북한의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 확산, 북한 주민의 체제지지도 등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쌍봉형 분포와 유사한 응답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쌍봉형 분포가 나타날 경우 평균과 같은 중심집중치를 해석할 때 주의를 요한다.

2년간의 델파이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쌍봉형 분포는 예측값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2년간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첫째, 북한관련 일부 분야에 대한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이 국내 외교·안보·통일분야 전문가의 특징이며, 이는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즉, 이들의 특정 분야에 대한 평가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쌍봉형

분포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며, 이는 변화의 과정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예측기법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통상 과소사례를 통한 설문은 중심집중치를 중심으로 한 종모양의 분포가 나타나기 어렵고 극단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본 델파이 조사에서의 쌍봉형 분포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쌍봉형 분포가 나타나는 통일요인의 경우 변화의 가능성이 극단적 단봉형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즉, 통일요인은 북한의 체제특성과 같은 극단적인 집중도를 가진 분포로부터 쌍봉형 분포로 변화되었다가 다시 단봉형 분포로 정착하는 경향성을 가질 수 있다.



즉, 위 그림처럼 쌍봉형 분포는 5점 이하의 답변 중심에서 서서히 5점 이상의 답변이 많아지고 결국 5점 이상의 답변이 과반이 넘게 되는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포로 평가할 수 있다. 통일과 관련된 요인에 이러한 쌍봉형 분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해당 요인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쌍봉형 분포에 대한 해석이 유효한가는 본 통일이측시계 프로젝트가 다년간 반복 수행될 경우 더욱 분명하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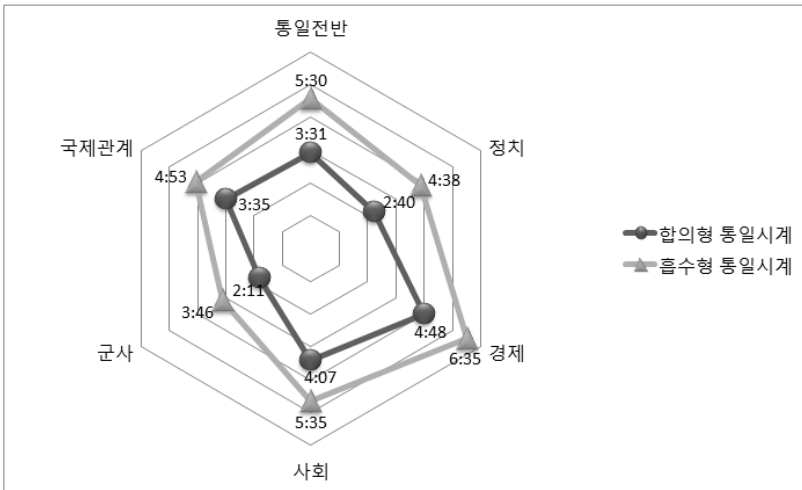
다. 2010년 통일시계 분포의 특징

2010년 통일예측시계는 2009년에 비해 작게는 4분에서 많게는 1시간 19분 후퇴하였다. 가장 현저하게 변화된 분야는 흡수형 정치분야(1시간 19분), 흡수형 국제관계분야(1시간 11분), 합의형 국제관계분야(1시간 11분), 합의형 정치분야(1시간 8분), 흡수형 군사분야(52분) 등이다. 반면에 흡수형 경제분야(4분)와 합의형 경제분야(15분)는 다른 분야에 비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형보다 흡수형이 통일에 더 가깝다는 2009년 패널의 의견은 2010년에도 변하지 않았다. 흡수형 통일은 전 분야에서 합의형보다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으며, 그 중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이 가장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은 다른 분야와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통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패널의 응답범위는 2009년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2009년 패널은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에 대해 65점 범위(5~70점), 전반적인 흡수형의 경우 65점 범위(15~80점)에서 응답하였다. 2010년의 범위는 각각 58점(5~63점), 60점(10~70점)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특히 2010년 델파이 조사는 2009년의 응답이산을 축소시키기 위해 보다 명료하고 직관적인 설문문항으로 변형하고 기준점을 제시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델파이 패널이 장기간 북한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북한정보 접근이 용이한 집단임에도 통일관련 사안에 대한 견해차가 상당히 존재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림 II-3> 2010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패널



2010년 통일시계의 또 다른 특징은 패널이 합의형에 대해서는 2009년에 비해 다소간 의견수렴이 있었으나, 흡수형 통일의 경우 오히려 더 큰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합의형 통일의 경우 6개 전 분야의 표준편차는 11.93에서 14.13의 범위에 있으며 범위는 55에서 64점 사이에 있다. 반면 흡수형 통일의 경우 16.13에서 18.66에 달하며, 범위는 60에서 80점 사이에 있다. 100점 척도에서 흡수형 통일과 같은 의견이산은 패널 간 견해가 극심하게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비교집단의 통일시계

2010년의 경우 델파이 패널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비패널 전문가, 대북사업자, 국민여론, 탈북주민에 대한 비교집단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들 비교집단에 대한 조사는 조사 그 자체가 희소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고, 동시에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우선 비패

널 전문가의 조사는 델파이 패널의 사렛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었으며, 일반국민과 기타 관심집단에 대한 조사는 이들의 통일시각을 검토함으로써 유용한 정책발굴을 가능케 한다.

<표 II-1> 2010년 통일예측시계 조사 개요

집단	대상	기간	방법	구조
델파이 패널	북한 통일 안보 분야 전문가 51명	2010. 8.20-9.9	전자우편 설문조사	2009 사후분석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개방형문항
비패널 전문가	북한 통일 안보 분야 전문가 30명	2010. 9.3-9.15	전자우편 설문조사	2009 사후분석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개방형문항
대북사업자	개성공단 남측 임직원 20명	2010. 9.1-15	개성공단기업 협회 위임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개방형문항
대국민 여론조사	층화표집된 1,000명	2010. 8.21-22	리서치앤리서 치 위임	14개 통일시계 관련 설문
탈북주민	탈북주민 99명	2010. 8.31-9.20	NK지식인연대 위임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2010년 5개 집단에 대한 조사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델파이 패널과 비교집단 간에 통일시계에 대한 커다란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합의형 통일에 대해 대북사업자, 국민여론, 탈북주민은 상대적으로 크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흡수형 통일에 대해서는 다른 4개의 집단이 유사한 시간대인 것과는 달리 탈북주민의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 합의형 통일시계



델파이 패널	비패널 전문가	대북사업자	국민여론	탈북주민
3시 45분	4시 7분	5시 16분	4시 47분	5시 11분
0분	+22분	+1시간 31분	+1시간 2분	+1시간 26분

합의형 통일에 대해 델파이 패널은 2009년 조사보다 34분 늦춰진 3시 45분으로 평가하였다. 즉, 2009년 10월 시점보다 2010년 8월 시점이 합의형 통일에 대해 더 멀어진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시계의 설계상 3시 45분은 합의형 통일가능성에 상당히 멀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일 명부에서 선정된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4시 7분으로 합의형 통일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 시간 역시 델파이 패널보다는 덜하지만 상당히 합의통일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간이다. 델파이 패널과 비패널 전문가 간의 시간차는 22분으로, t-검정 결과 두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사업자의 경우 대단히 예외적인 시간이 나타났다. 합의형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의 집단이 시간의 빠르고 늦음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대체로 흡수형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북사업자의 경우 합의형 통일시간이 흡수형 통일시간보다 빠르다고 답변하였다. 즉 합의형 통일시계는 5시 16분, 흡수형 통일시계는 5시 5분으로 흡수형 통일의 가능성보다 합의형 통일 가능성이 11분만큼 빠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시간은 대북사업자의 환경이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대단히 민감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시간평가가 아닌 기뻐함을 평가한 피설문자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대북사업자가 이례적인 시간분포를 가진 또 다른 이유는 사렛수가 20개에 불과해 극단치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여론조사의 경우 통일시간은 4시 47분으로 텔파이 패널보다 1시간 빠른 편이다. 국민여론조사는 다른 비교집단과 달리 100점 척도가 아닌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는 전화여론조사 방식으로 측정했기 때문이었다. 개략적인 추세비교를 위해 간단히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100점 척도로 변환한 뒤, 평균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텔파이 패널과 국민여론은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국민여론과 대북사업자 간의 평균비교 결과 두 집단의 동질성이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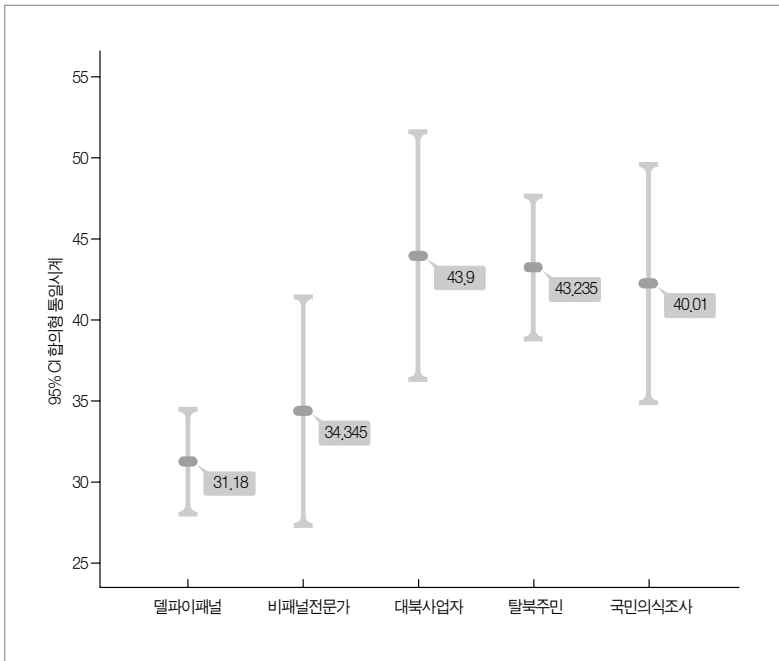
탈북주민의 경우 대북사업자와 거의 유사한 시간인 5시 11분으로 정리되었다. 텔파이 패널보다 1시간 26분이나 통일에 가깝다는 평가이다. 탈북주민의 합의형 통일시계가 빠르게 나타난 원인도 이들의 경험적 배경과 결합하여 현재 상황보다는 기뻐함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탈북주민의 흡수형 통일시계 역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어,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점수가 모두 높은 편이다.

5개 집단의 시각적 비교를 위하여 평균-오차 도표를 작성하였다.³ 아래 도표에서 가운데 사각형은 평균지점을 가리키며, 위와 아래로 뻗은 선은 오차의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국민여론의 경우 편의상 10배수를 적용한 수치이므로 개략적인 비교만을 할 수 있다.

³ 여기에서 국민 여론은 편의상 10배로 전환한 상태이므로 정확한 평균값은 아니다. 각 집단 간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표준화작업을 거쳐야 하나 통일시계를 위한 환산 값으로서의 평균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로 인해 현 도표의 형태를 선택하였다.

도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비패널 전문가는 델파이 패널의 오차범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명부에서 표집된 집단임이 재확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북사업자와 탈북주민에 대한 오차표 역시 유사하다. 두 집단이 상호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요컨대,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델파이 패널의 합의형 통일시계는 조사대상 집단 중 가장 낮은 3시 45분으로 계산되었으며, 오차 범위내의 동일집단으로 분류된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이보다 22분 빠른 4시 7분으로 평가하였다. 대북사업자는 합의형 통일에 가장 긍정적인 5시 16분으로 평가하였으며, 5시 11분으로 평가한 탈북주민과 유사한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림 II-4> 합의형 통일시계 집단 간 평균오차도표



○ 흡수형 통일시계



델파이 패널	비패널 전문가	대북사업자	국민여론	탈북주민
5시 20분	5시 36분	5시 5분	5시 36분	6시 40분
0분	+16분	-15분	+16분	+1시간 20분

델파이 패널은 합의형 통일과 마찬가지로 흡수형 통일시계도 늦어졌다고 판단하였다. 흡수형 통일시계는 2009년 5시 56분보다 36분 후퇴한 5시 20분으로 나타났다. 통상 합의형 통일시계와 흡수형 통일시계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동시에 후퇴했다는 점은 두 가지 유형의 후진요인이 함께 작동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패널 전문가의 경우 델파이 패널보다 17분 빠른 5시 37분으로 평가하였다. 이 시간은 흡수형보다 1시간 30분이 빠른 것이며, 그만큼 흡수형 통일의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델파이 패널과 매우 유사하며, 양자를 비교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두 집단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북사업자의 흡수형 통일시계는 예외적으로 합의형 통일시계보다 11분 늦은 5시 5분으로 나타났다. 통상 2010년 시점에서 동일한 집단이 합의형보다 흡수형의 가능성을 더 낮게 평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역시 델파이 패널과의 평균비교를 하였으며,

그 결과 유사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흡수형 통일 단일 시계만 보았을 경우 델파이 패널과의 차이가 없다.

국민여론의 경우 합의형 통일보다 49분이 빠른 5시 36분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델파이 패널보다 16분 빠른 시간이다. 합의형 통일에서 델파이 패널과 큰 차이가 났던 것에 비하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민여론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의 인구비로 조사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실제 당시부터 델파이 패널보다 통일에 더 가깝게 평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번 조사에 의해 국민여론은 델파이 패널에 비해 합의형은 1시간 26분, 흡수형은 16분가량의 시간차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탈북주민은 흡수형 통일에 대해 델파이 패널보다 1시간 20분 빠른 6시 40분으로 평가하였다. 합의형 통일의 시간차가 1시간 26분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일관된 시간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델파이 패널과의 t-검정 결과 두 집단은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집단차는 평균-오차 도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흡수형 통일의 경우 델파이 패널, 비패널 전문가, 대북사업자, 국민여론이 큰 시간차 없이 유사한 평균에 있으며, 신뢰구간이 서로 겹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탈북주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가지고 있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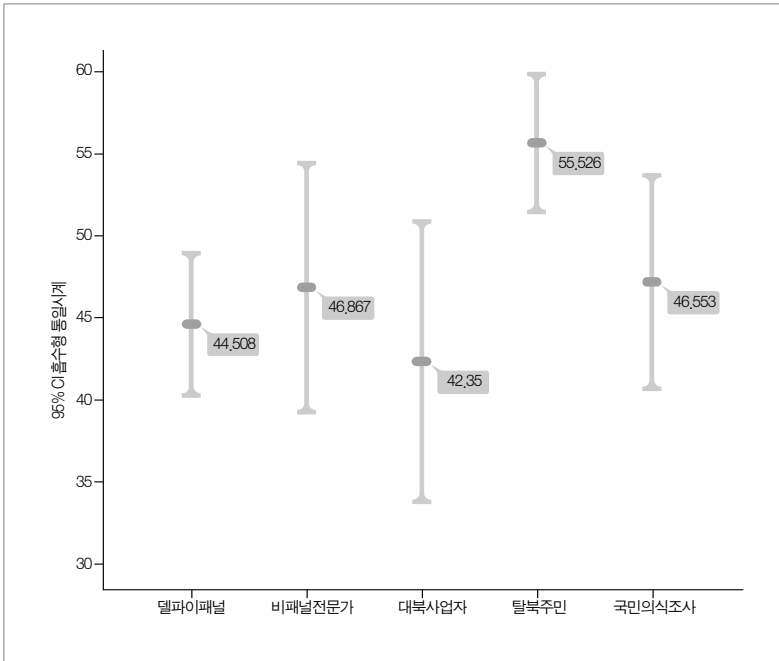
II

III

IV

V

<그림 II-5> 흡수형 통일시계 집단 간 평균오차도표



3. 2011년 통일예측시계 조사 개요

가. 설문 작성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2011년 통일예측시계 구축 연구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워크숍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1~2차년도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된 통일시계와 통일요인을 재검토하였다. 또한 전문가패널 수가 유효한 통계적 추론을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렛수를 증대시키기로 하였다.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예측시계에 대한 12개 문항은 2010년에 충분히 숙려와 논의를 거쳐 왔으므로 동일하게 조사하였다. 1차년도의 경우 통일예측시계는 통일시점을 묻는 문항에서 합의형과 흡수형을 병렬⁴하였으며, 통일시간에 대한 척도(100점 척도)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은 채 1점에서 100점까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설문은 응답의 이산성을 더욱 증대시킨다는 판단을 하였다. 또한 “현재 통일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은 다른 설명이 없을 경우 ‘긍정-부정’, ‘가능-불가능’, ‘단기-장기’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 복합적 문항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문항에 대한 응답시간이 길어지고 집중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⁴ 즉,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 “통일이 이뤄지는 시점을 100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는 통일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의형: ()점, 흡수형: ()점”

<표 II-2> 통일예측시계에 대한 판단 준거

1~25	26~50	51~75	76~100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절대 불가능	다소 불가능	다소 가능	매우 가능
매우 장기간	다소 장기간	다소 단기간	통일 임박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2차년도인 2010년 델파이 조사에서는 통일예측시계를 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순서와 형태를 다소 수정하였다. 우선, 유형별 통일시계의 종합점수와 각 분야별 점수에 대한 설문을 합의형과 흡수형으로 구별하였다. 또한 피설문자가 최소한의 준거를 가질 수 있도록 100점을 4분하여 1-25점: 매우 부정적, 26-50점: 다소 부정적, 51-75점: 다소 긍정적, 76-100점: 매우 긍정적으로 세분한 뒤 보다 상세하게 설문의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2차년도에 변화된 설문기법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되지 않았다. 즉, 2010년 조사에서도 12개 통일시계에 대한 답변범위는 여전히 80~90점(최솟값과 최댓값의 차) 정도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답변 차는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축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일요인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응답자의 답변이 완고한 경향이 있으며, 설문의 회수기간이 타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에 속해 현저한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투입자원의 확충을 통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본 연구는 2010년 50명 수준의 델파이 패널을 크게 확장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제1~2차년도에 50명 수준이었던 델파이 패널은 2011년 80명의 전문가로 확대되었다. 새로 투입된 전문가는 2010년 “비패널 전문가집단”으로 조사에 참여한 대상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렛수 확대를 통해 응답의 범위는 2010년에 비해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응답의 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답변의 극단치가 상쇄됨으로써 보다 정밀한 통일시계 계측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2차년도의 통일요인 설문은 1차년도의 설문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3차년도는 미세한 수정을 제외하고 2차년도와 동일한 내용과 문항으로 진행하였다. 총 36개의 통일요인에 대한 설문은 매우 심층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단순성과 직관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설문자의 피로도가 증대되어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문문항은 한 두 줄의 설문으로 단순화하였으며, 9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방향성을 부여하였다.

나. 조사개요

델파이 패널에 대한 설문은 2011년 5월 하순 확정하였다. 문항은 통일예측시계 12문항, 통일요인 설문 36문항, 개방형 질문 3문항이다. 통일시계 문항과 통일요인 설문의 각 문항은 2010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항이다. 개방형 질문의 경우 총 3문항으로 각각 북한 내부의 정세 변화 요인, 국제정세 요인, 남북관계 변화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패널의 구성은 크게 확대되었다. 우선 제1~2차년도 전문가 패널에 포함된 51명의 기존 패널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여기에 추가로 29명의 전문가가 새로 패널에 포함되었다. 추가로 포함된 패널은 2010년 비패널 전문가 집단으로 이미 한 차례 조사경험을 가진 통일·외교·안보 전문가이다. 새로 추가된 패널은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목록에서 임의 표집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델파이 패널은 총 80명으로 구성되었다.

I
II
III
IV
V

조사는 2011년 6월 7일에서 6월 27일까지 20일간 전자우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패널의 경우 대부분이 2010년 설문조사를 경험하였다. 조사결과 80부 전량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표 II-3> 2011년 텔파이 패널 조사 개요

연도	대상	기간	방법	구조
2009	북한 통일 안보 분야 전문가 51명	2009. 10.19~11.13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개방형문항	총 3차 조사 3차 응답 45명
2010	북한 통일 안보 분야 전문가 51명	2010. 9.3~9.15	2009 사후분석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개방형문항	2009년 패널 일부 교체
2011	북한 통일 안보 분야 전문가 80명	2011. 6.7~6.27	2010 사후분석 통일예측시계 통일요인설문 개방형문항	2010년 패널 51명, 2011년 추가 29명

국민여론조사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의 통일시각을 살펴보고 텔파이 패널과의 집단비교를 위해 시행되었다. 설문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 쉬운 용어와 어투로 재조정되었다. 또한 문항도 비용과 효율성 측면으로 인해 2010년 문항⁵⁾을 대부분 그대로 이용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2개 의미를 가진 문항 1개를 분리하였으며, 새로 1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새로 추가된 문항은 최근 제기된 통일

5- 2010년 여론조사 문항은 2009년 통일예측시계 사업에서 주요 통일요인으로 선정된 14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전화여론조사의 특성상 최소문항으로 응답피로를 축소하여야 했으며, 척도 역시 9점에서 5점으로 축소되었다.

세 관련 문항이다.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Research & Research)에서 대행하였으며, 2011년 10월 13~17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에 따라 비례 할당표집 하였다. 그 인원에 한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조사(CATI)를 하였다. 특히 2011년 여론조사의 표집은 RDD방식⁶이 이용되었다.

⁶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은 지역번호와 국번을 제외한 마지막 4자리를 컴퓨터로 생성해 전화를 거는 여론조사 방식이다. 임의로 전화번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KT에 등재되지 않은 번호까지 조사가 가능해 표집오차를 크게 개선한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Ⅲ. 2011년 전문가 패널 델파이 조사

1. 통일예측시계

2010년의 통일시계는 2009년에 비해 현저하게 뒤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 들어서면서 12개 통일시계는 전년에 비해 큰 변화 없이 미세한 차이만 나타났다. 델파이 패널의 2011년 합의형 통일시계는 3시 31분, 흡수형 통일은 5시 30분이다. 합의형의 경우 전년보다 14분 뒤로 늦춰졌으며, 반면에 흡수형은 전년보다 10분 전진하였다. 합의형과 흡수형의 5개 하위분야 시계는 전반적으로 10분 내외의 증감이 있으며, 이 또한 현저한 통일시계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제관계분야 흡수형 통일시계의 경우 2010년 4시 29분에서 2011년 4시 53분으로 변동되어 12개 시계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전히 국제관계 분야의 흡수형 통일이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1년간 흡수형 통일의 가능성이 다소 증가했다는 패널의 평가를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통일예측시계	
합의형 통일예측시계	흡수형 통일예측시계
	
3:31	5:30
-0:14	+0:10

I
II
III
IV
V

<표 III-1> 2009년~2011년 통일예측시계 시간변화 요약

		통일전반		정치		경제	
		합의형	흡수형	합의형	흡수형	합의형	흡수형
2009	시계 환산	4:19	5:56	3:53	5:44	4:57	6:26
2010	시계 환산	3:45	5:20	2:45	4:25	4:42	6:22
2011	평균	29.263	45.783	22.238	38.675	39.938	54.875
	표준편차	14.459	17.642	14.124	19.424	16.940	20.313
	시계 환산	3:31	5:30	2:40	4:38	4:48	6:35
	시간 변화	-0:14	+0:10	-0:05	+0:13	+0:06	+0:13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형	흡수형	합의형	흡수형	합의형	흡수형
2009	시계 환산	4:26	5:38	2:51	4:53	4:27	5:40
2010	시계 환산	4:01	5:26	2:14	4:01	3:44	4:29
2011	평균	34.300	46.500	18.150	31.438	29.900	40.650
	표준편차	17.264	20.499	14.340	19.345	16.470	20.652
	시계 환산	4:07	5:35	2:11	3:46	3:35	4:53
	시간 변화	+0:06	+0:09	-0:03	-0:15	-0:09	+0:24

12개 각 통일시계의 상대적 크기는 2011년에도 변화하지 않았다. 즉, 전반적으로 합의형 통일시계보다 흡수형 통일시계가 통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분야별로는 경제, 사회분야보다 정치, 군사분야가 통일에 더 먼 것으로 예측되었다. 가장 통일에 먼 것으로 평가된 시계는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로 2시 11분이며, 가장 통일에 가까운 시계는 경제분야 흡수형으로 6시 35분이다. 2011년에도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시계가 유일하게 중간점인 6시를 넘기고 있다.

가. 합의형 통일시계

2011년 델파이 조사의 설문은 2009년 이후 2년간 축적된 기법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였다. 통일의 유형별로 각각의 6개 통일시계를 100점 척도로 설문하였으며, 구간별로 ‘매우 부정적’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4개의 판단준거 구간을 주었다. 100점 척도는 시간환산을 위한 충분한 등간구간으로 판단되며, 추후 계량분석과 시계환산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합의형과 흡수형의 통일을 유형별로 묶어 각 하위분야에 대한 판단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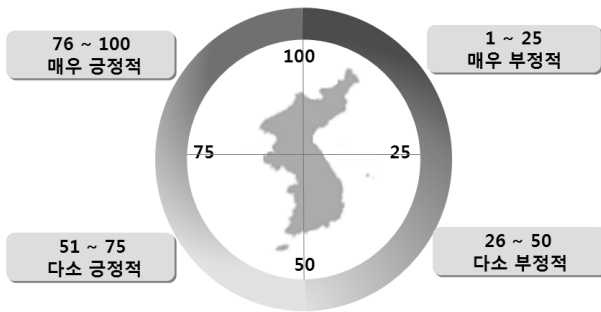
IV

V

통일시계의 설계 통일시계는 100점 척도를 가진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합의형 통일은 평화적 남북관계 개선과 점진적 통일이 이뤄지는 시기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와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군사적 측면, 국제관계 측면의 5개 하위 분야 시계로 구성된다. 흡수형 통일은 북한이 남한 체제에 흡수되면서 통일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계와 5개 하위 분야의 시계로 구성된다.

합의형 통일에 대한 설문지는 아래와 같으며, 흡수형도 동일한 형태의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통일이 이뤄지는 시점을 100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즉, 몇 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1점에서 100점(통일)까지의 범위에서 선생님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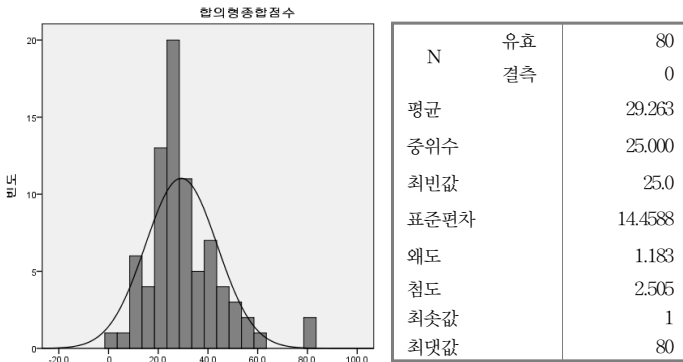
(1) 합의형 통일점수: () 점

그렇다면, 각 분야의 합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 (2) 정치적 측면 (합의형): () 점
- (3) 경제적 측면 (합의형): () 점
- (4) 사회적 측면 (합의형): () 점
- (5) 군사적 측면 (합의형): () 점
- (6) 국제관계 측면 (합의형): () 점

○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4:19	3:45	3:31
	-0:34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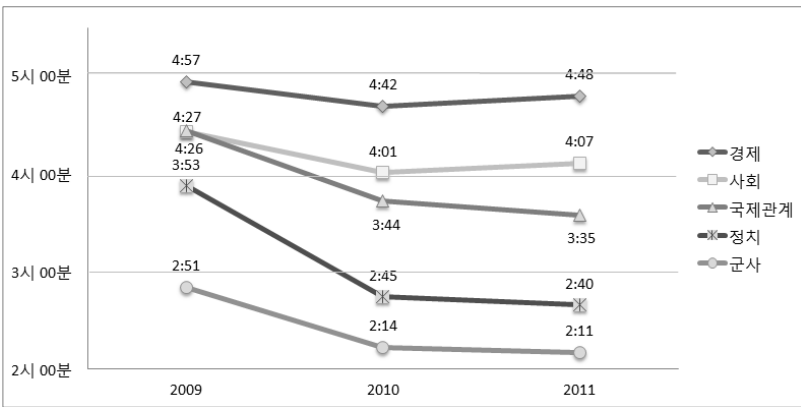


2011년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간은 2010년에 비해 14분 늦추어졌다. 시간환산은 100점 척도의 평균 29.26(표준편차 14.458)을 12시 기준 시간으로 환산한 것이다.⁷⁾ 통일시점을 12시로 할 때 3시 31분은 델파이 패널이 합의형 통일의 가능성과 시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패널의 답변범위는 최솟값 1점에서

⁷⁾ 시간환산은 분 환산(평균*720/100)한 후 이를 시간으로 재환산한 값이다.

최댓값 80점으로 매우 큰 편이지만 2개의 극단치(80점)를 제외하면 답변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답변은 25점(3시)이었으며, 18명이 응답하였다. 50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이 93.8%로 압도적이다. 응답집중도의 높음은 첨도 2.51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극단치를 제거할 경우 그 집중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림 Ⅲ-1> 합의형 통일시계 하위분야의 3년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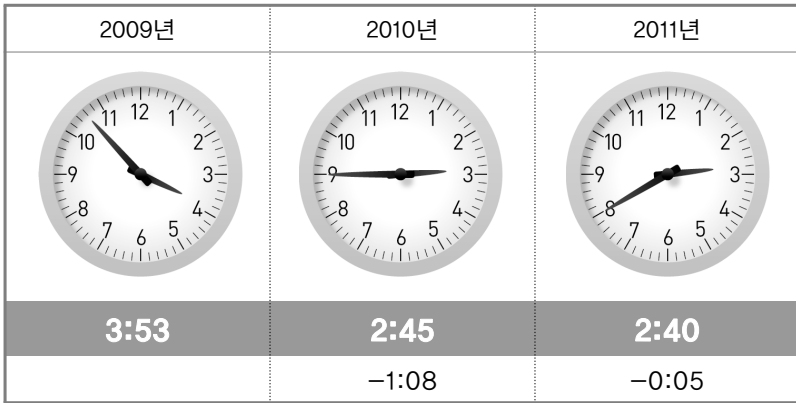


3년간 합의형 통일시계의 각 하위분야의 시간변화는 위 표로 요약될 수 있다. 표에 따르면, 각 하위분야의 합의형 통일시계는 2010년 급격하게 하락추세로 전환되었으나 2011년에는 전년에 비해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분명히 나타난다. 5개 하위분야는 흡수형 통일시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시간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통일에 가깝게 평가된 경제분야도 4시 48분이라는 낮은 시간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경제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3년간 변화 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정치분야와 국제관계 분야는 각각 1시간 13분, 52분 하락하여 이 분야에 대한 합의형 통일환경이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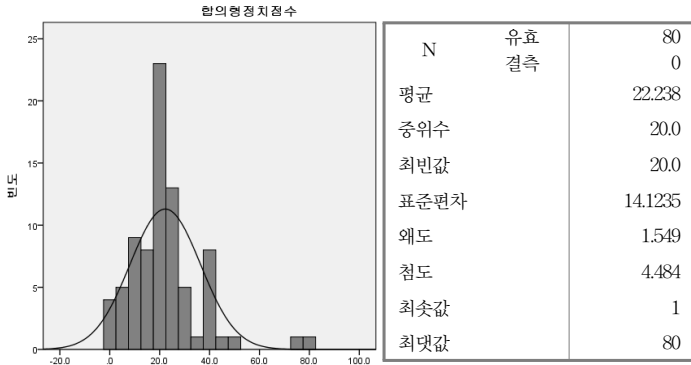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개 하위분야의 3년간 추이는 전반적으로 모든 시계가 합의형 통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0년에서 2011년간 하락안정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합의형 통일시계의 5개 하위분야에 대한 응답분포는 정규분포에 가까운 집중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첫째, 각 분야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가 다른 조사년도에 비해 비교적 일치되고 있으며, 둘째, 사렛수 증가에 따른 중심집중도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쌍봉형(bimodal) 분포가 빈번하게 나타났던 2009년과 2010년의 조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측면이다.

○ 정치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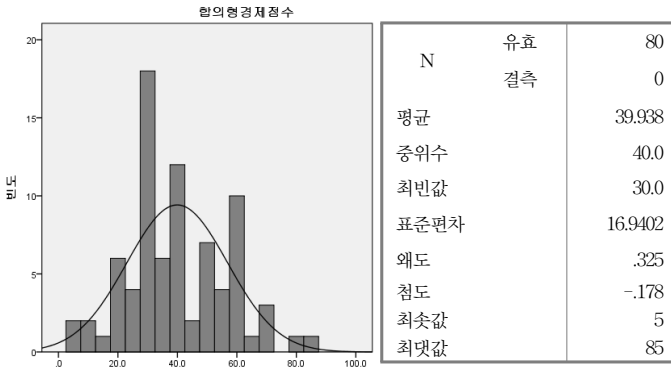


2010년 1시간 8분이라는 매우 급격한 시간후퇴를 보였던 정치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2011년에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2010년 2시 45분에서 2011년 2시 40분으로 5분 후퇴하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의미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⁸ 2시 40분은 군사분야와 함께 통일시계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시간대이다. 즉, 델파이 패널은 정치분야 합의형 통일이 매우 부정적이며 요원한 미래로 평가하고 있다. 응답범위는 1점에서 80점으로 매우 넓은 편이지만, 극단치 75점과 80점의 각 1개 사례를 제외한 97.5%의 답변이 50점 이하에 몰려 있다. 특히 최빈값인 20점과 25점에 각각 22개와 12개의 응답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전체 응답 중 42.5%에 해당한다. 이러한 집중도는 예외적으로 높은 첨도(4.484)에도 확인된다. 즉, 이 분야 통일시계에 대한 델파이 패널의 응답집중도는 후술할 군사분야와 함께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두 분야 통일시계에 대한 델파이 패널의 합의수준 역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치분야 합의형 통일시계의 평균은 22.24(표준편차 14.124)이다.

⁸ 두 집단 간 t-검정에서 2010년과 2011년의 정치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t값 .274, 유의수준 .785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판별되었다.

○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4:57	4:42	4:48
	-0:15	+0:06



2011년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4시 48분이다.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합의형 통일시계 6개 분야 중 가장 통일에 가까운 시간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간이 표시하고 있는 4시 48분은 이 분야의 통일이 여전히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15분 후퇴하였으나 2011년에는 반대로 6분 전진하였다. 3년간의 변화진폭이 거의 없었다고 판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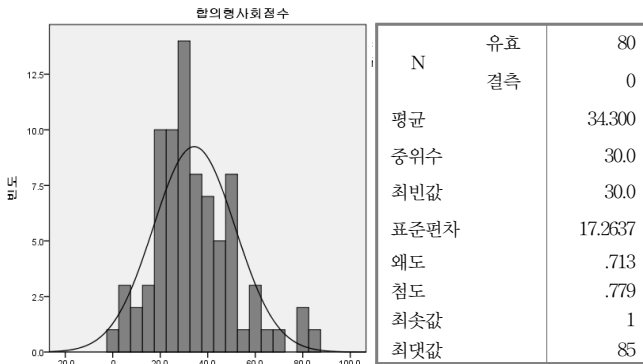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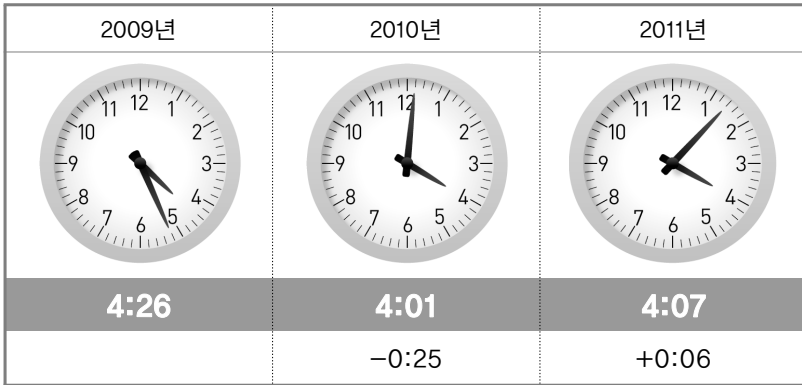
III

IV

V




단해도 무방할 정도로 근소한 시간변화이다.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답변은 5점에서 85점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답변의 집중도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정치분야와 달리 텔파이 패널의 전문가들이 상당한 이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많은 답변은 30점(21.3%)이며, 다음은 40점(15%)과 60점(12.5%)이다. 50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은 75%이며, 평균은 39.9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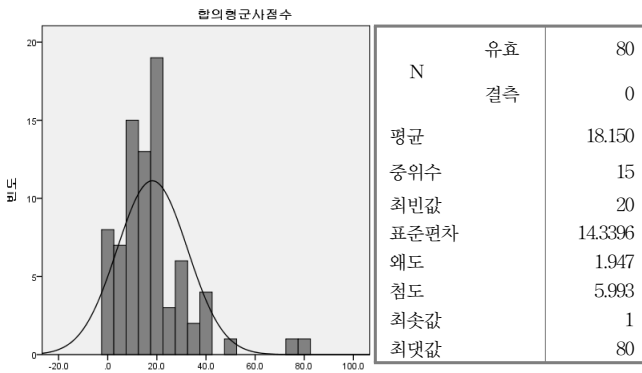
○ 사회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2011년 사회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4시 7분으로 평가되었다. 2010년에 비해 6분 빨라졌으나 이는 매우 미미한 변화로 사실상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패널의 크기가 증가했음에도 응답분포는 2010년과 거의 동일하다. 사회분야의 합의형 통일에 대해 패널의 응답범위는 1점에서 85점 사이로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78.8%가 50점 미만이라는 부정적 응답을 하였으며, 평균은 34.3이다.

○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2:51	2:14	2:11
	-0:37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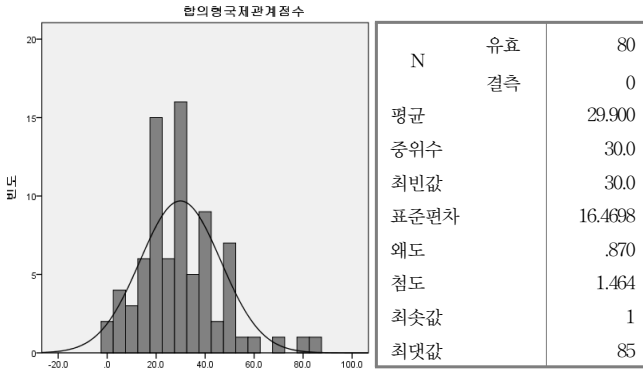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지난 2년간 조사에서 통일시계 12개 분야 중 가장 낮은 시간을 기록하였다. 2011년에도 이 분야 시간은 가장 통일에 먼 것으로 나타났다. 100점 척도에서 평균은 18.15이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2시 11분이다. 2010년보다 3분 더 늦어졌다. 3분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변화 없이 동일한 시간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의 또 다른 특징은 12개 통일시계 중 척도가 5.993으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는 델파이 패널이 최빈값 20점을 중심으로 매우 좁은 범위 내에서 답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50점 미만의 답변이 96.3%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5~20점 사이에 67.5%가 집중되어 있다.

○ 국제관계분야 합의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4:27	3:44	3:35
	-0:43	-0:09






2010년 국제관계분야는 5개 합의형 통일시계 중 전년대비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변화는 9분 감소에 불과해 이 분야에 대한 현저한 시간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011년 평균은 29.9이며 표준편차는 16.470이다. 이에 대한 시계 환산 값은 3시 35분이다. 즉, 이 분야 통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50점 미만의 답변은 85%로 최빈값 30점을 중심으로 좌우로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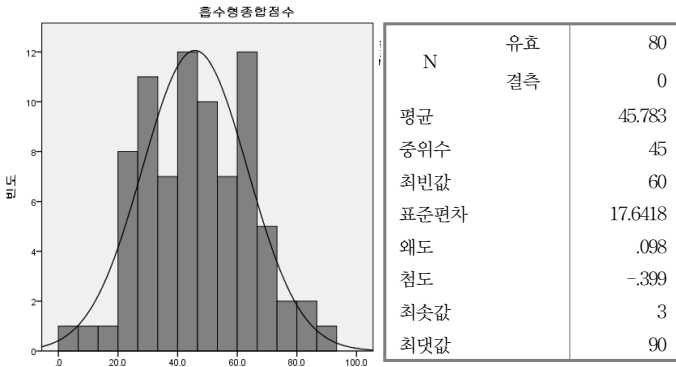
나. 흡수형 통일시계

흡수형 통일은 북한이 남한체제에 흡수되면서 통일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흡수형 통일시계에 대한 조사는 합의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100점 척도를 4분하여 매우 부정적에서 매우 긍정적까지 준거의 기준을 두었으며, 하위 분야를 한꺼번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I
II
III
IV
V

○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간

2009년	2010년	2011년
		
5:56	5:20	5:30
	-0:36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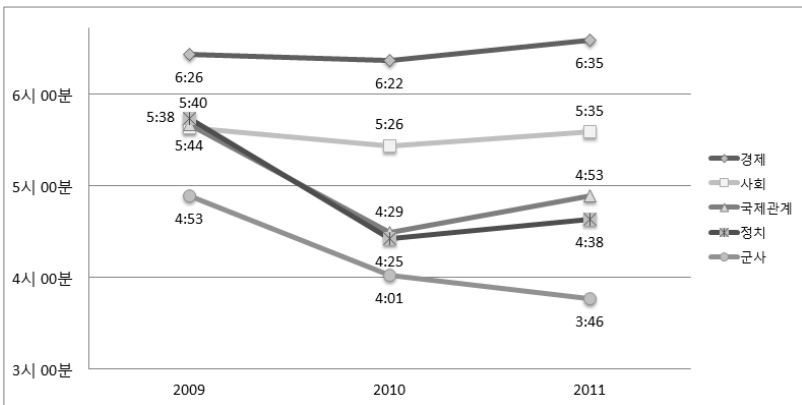


2011년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간은 평균 45.78을 환산하여 5시 30분으로 계산되었다. 이를 단순히 읽자면, 2010년 5시 20분보다 10분 더 통일에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0분의 편차는 실질적으로 거의 시간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통계적인 검증결과도 동일하다. 다만 보다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가 축적될 경우 이 분야에 대한 패널의 평가가 높아지는 징후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에 비해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계의 응답집중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즉, 패널은 3점에서 90점의 응답 범위에서 매우 넓고 고르게 응답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첨도(-.399)에서도 나타난다. 동일 분야의 합의형 시계가 첨도 2.505라는 것과 비교하면, 패널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빈값은 60점으로 8명(10%)이 응답하였으나 25점에서 70점까지 응답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최빈값이 큰 의미가 없다. 50점 미만의 응답은 53.8%이다.

종합적인 흡수형 통일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5시 30분은 중간점인 6시 보다 30분이 모자란다. 이는 이 분야 통일시계가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흡수형 통일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전환점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Ⅲ-2> 흡수형 통일시계 하위분야의 3년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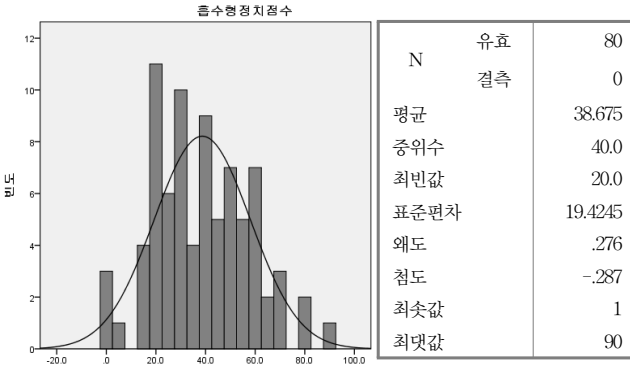


9- t-검증 결과 두 집단 간 평균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수형 통일시계의 5개 하위분야는 3년간 변화의 방향이 분야별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합의형에 비해 델파이 패널의 견해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견해차는 아래에서 살펴볼 각 시계의 답변분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비교적 뚜렷한 단봉형 분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흡수형 통일시계는 양봉형 또는 다봉형 분포가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2010년과 마찬가지로, 흡수형 통일시계 중 가장 높은 점수는 경제분야이며, 가장 낮은 점수는 군사분야이다. 군사분야는 다른 4개의 시계가 전년대비 증가하거나 동일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다.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12개 통일시계 중 유일하게 중간점인 6시를 넘기고 있으며, 3년간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정치분야 흡수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5:44	4:25	4:38
	-1:19	+0:13



2010년의 경우 이 분야 통일시계는 12개 시계 중 가장 하락폭이 컸다. 그러나 2011년 정치분야 흡수형 통일은 지난해 4시 25분에 비해 오히려 13분 빨라진 4시 38분으로 기록되었다. 100점 척도에서 평균은 38.675, 표준편차는 19.425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편차를 가지고 있어 응답이 매우 넓은 범위에서 골고루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응답범위는 1점에서 90점이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빈값은 20점이지만 20점에서 60점까지 고르게 답변이 분산되고 있다. 이는 패널의 이 분야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분야 흡수형 통일에 50점 미만의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한 패널은 66.3%이다.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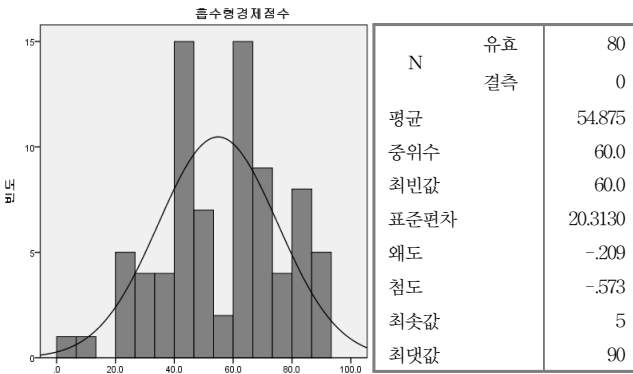
III

IV

V

○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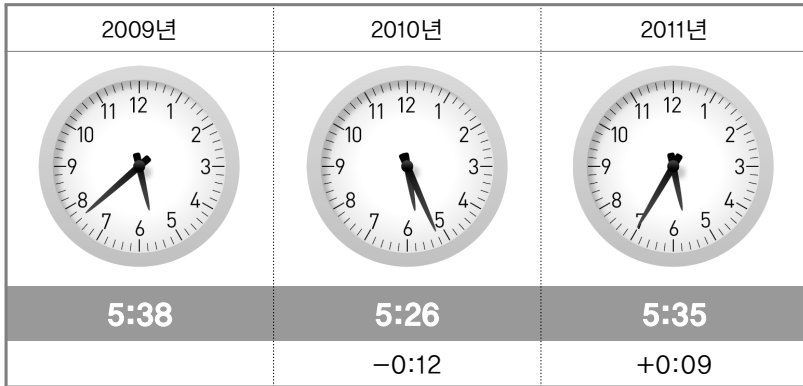
2009년	2010년	2011년
		
6:26	6:22	6:35
	-0:04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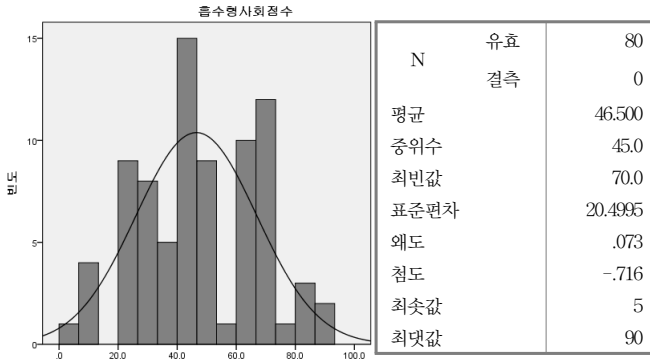
경제분야 흡수형 통일의 평균은 54.875로 시계 환산 값은 6시 35분이다. 12개 통일시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6시 중간점을 넘고 있다. 또한 이 분야 통일시계는 2009년부터 3년간 가장 변화가 적었던 시계이기도 하다. 경제분야 흡수형은 2010년에 비해 13분 빨라졌으나, 이는 매우 근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패널의 답변 평균은 54.875이며, 표준편차는 20.313으로 매우 크다. 최빈값은 60점으로 17.5%가 응답하였

으나 응답의 집중도는 크지 않다. 도표를 보면 중간점 50점을 중심으로 긍정적 응답집단과 부정적 응답집단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정적인 응답은 40점을 중심으로 37.5%가 분포되고 있으며, 긍정적 응답집단은 60점을 중심으로 53.9%가 분포되고 있다. 이러한 분포구조는 2010년의 경우 단봉형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흥미로운 단초를 제공한다. 즉, 쌍봉형 분포는 변화의 과도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009년과 2010년 단봉형 분포가 단봉형이었으나, 2011년 쌍봉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분야의 변화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균을 기준으로 한 시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분포의 변화도 함께 관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 분야의 변화가능성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 사회분야 흡수형 통일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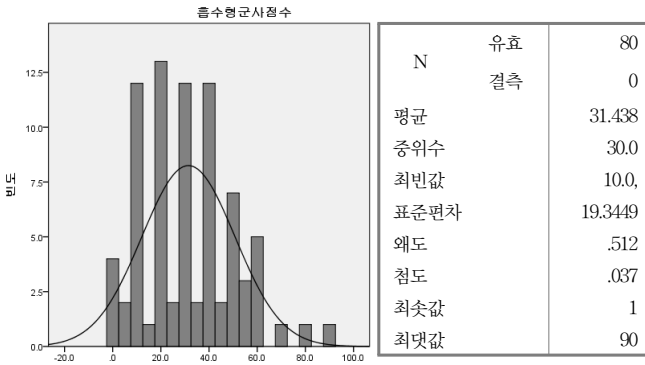
I
II
III
IV
V



사회분야의 흡수형 통일에 대한 응답은 평균 46.5로 시계로 환산하면 5시 35분이다. 2010년에 비해 10분 더 통일에 가까워졌다. 이 부문의 통일시계는 경제분야와 마찬가지로 3년간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분야 흡수형 통일은 지난 3년간 조사에서 패널 간 의견차가 매우 높은 분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패널은 11명이 응답한 40점과 12명이 응답한 70점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부정적 응답이 52.5%로 다소 많다. 응답 범위도 5점에서 90점으로 매우 넓은 편이다.

○ 군사분야 흡수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4:53	4:01	3:46
	-0:52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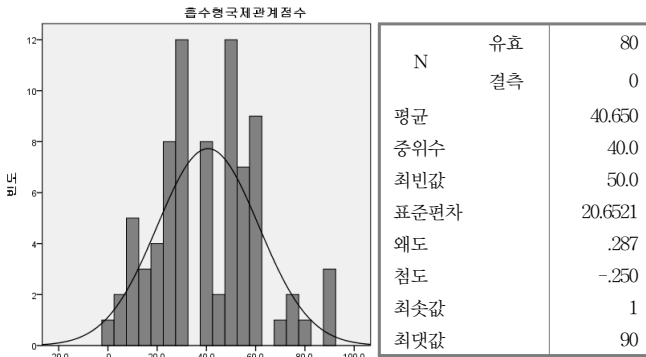


군사분야는 흡수형 통일시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후퇴하고 있다. 2011년 3시 46분은 전년 대비 15분 후퇴한 것이다. 3시 36분은 흡수형 통일시계 중 가장 낮은 시간이다. 군사분야 역시 패널 간 이견이 매우 큰 편이며, 응답범위는 1점에서 90점이다. 평균은 31.44이며, 표준편차는 19.345이다. 빈도가 높은 답변은 40점(11명)과 70점(12명)이며, 50점 미만의 응답이 52.5%에 해당한다.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응답은 뚜렷한 중심집중 없이 다봉형 구조로 분산되어 있어, 이 분야에 대한

패널 내 각 전문가의 견해차가 매우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국제관계 분야 흡수형 통일시계

2009년	2010년	2011년
		
5:40	4:29	4:53
	-1:11	+0:24



2011년 이 분야 통일시계는 4시 53분으로 기록되었다. 동 시계는 2010년 1시간 11분 후퇴라는 급격한 후퇴 이후 2011년 24분 전진함으로써 12개 통일시계 중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동일분야 합의형 통일시계가 3년 연속 하락한 것과 대조된다.

2011년 이 분야 답변의 평균은 40.65이며, 표준편차는 20.652이다. 이 분야는 12개 통일시계 중 가장 큰 표준편차를 기록하였으며, 응답 분포 역시 상당히 뚜렷한 쌍봉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답변은 30점(11명)과 50점(12명)을 기준으로 각각 집중되고 있으며, 50점 미만의 응답이 56.3%에 해당된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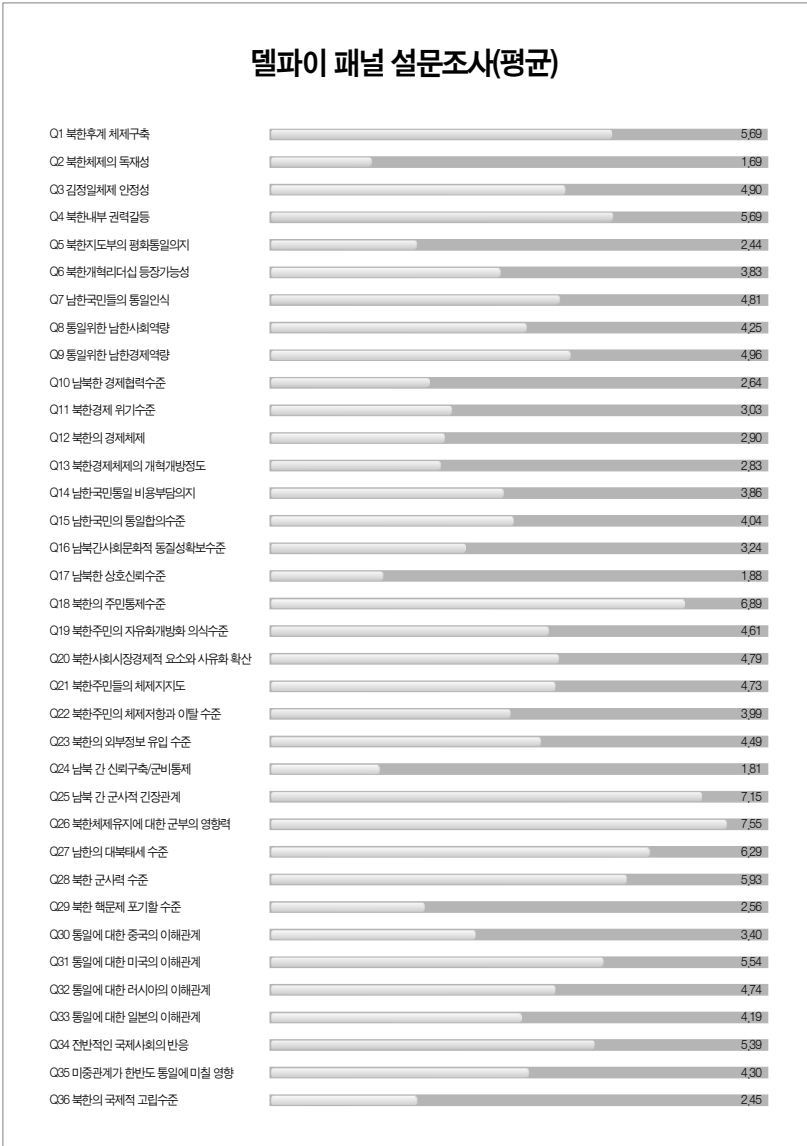
II

III

IV

V

2. 통일요인 설문조사: 델파이 패널



2009년과 2010년 델파이 조사과정에서 통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1,500여개를 재분류하여 36개의 설문문항을 작성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1차년도 33개 문항은 척도와 문항 세련화 과정을 거쳤으며, 9점 리커트 척도¹⁰로 재구성 되었다. 2011년은 2010년 최종 수정된 문항을 연속적인 지수 정착을 위해 그대로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은 델파이 패널과 동일하다.

가. 북한 정치분야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1. 후계체제 구축	5.69	1.703
문2. 북한 체제의 독재성	1.69	0.756
문3. 김정일 체제 안정성	4.90	1.860
문4. 북한 내부 권력갈등	5.69	1.755
문5. 북한 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	2.44	1.395
문6. 개혁리더십의 등장 가능성	3.83	1.565

북한 정치분야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 문항을 요인 분석¹¹한 결과 후계체제구축(문5), 김정일체제 안정성(문3), 내부 권력 갈등(문4)이 요인1로 묶이고, 북한의 독재성(문2), 평화통일의지(문5), 개혁리더십 등장가능성(문6)이 요인2로 묶였다. 두 개의 요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각 요인에 포함된 변수 간 응답분포가 매우 유사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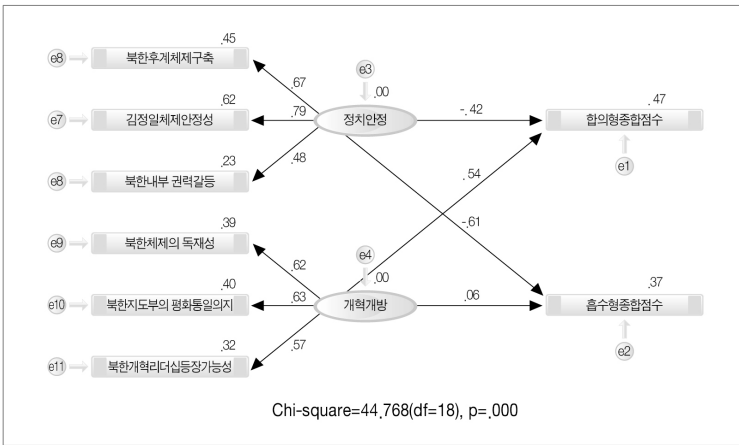
¹⁰- 9점 리커트 척도의 통상적인 해석은 “1=매우 부정적, 2=상당히 부정적, 3=부정적, 4=약간 부정적, 5=보통이다, 6=약간 긍정적, 7=긍정적, 8=상당히 긍정적, 9=매우 긍정적”이다.

¹¹- 요인분석은 요인의 구조파악에 적합한 사각회전을 이용하였다. 사각회전은 요인 간 상관관계가 다소 나타나더라도 최대한 요인 내 변수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요인으로 묶인 변수 간에는 상당히 유사한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요인은 각각 북한 정치안정과 개혁 개방 의지라는 요인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¹² 이에 대한 간략한 경로모형을 아래 그림에 수록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적 안정(요인1)은 합의형 통일시계와 흡수형 통일시계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혁개방(요인2)은 합의형 통일시계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합의형 통일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북한체제의 독재성(문2),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문3), 개혁리더십 등장가능성(문6)이며, 흡수형 통일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김정일체제의 안정성(문3), 지도부의 평화통일의지(문5), 개혁리더십 등장가능성(문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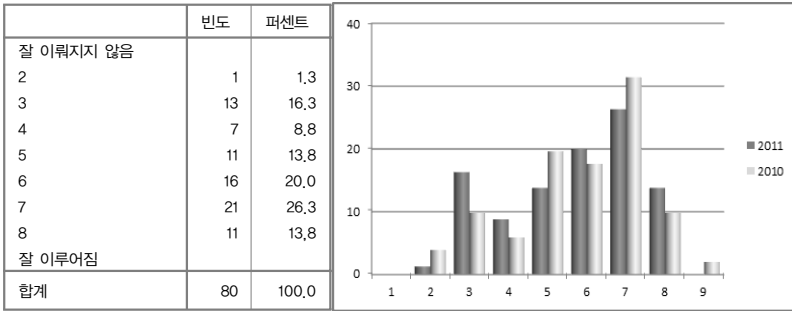
<그림 III-3> 통일시계와 정치분야 통일요인



¹² 본 모형은 구조방정식모형(SEM)이라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모형 내 각 관계상의 CR(critical ration) 값과 오차분석, 모형적합도 검증, 최적모형 검색 등의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특성상 간략한 모형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북한 정치분야 중 북한체제 특성을 묻는 문2와 북한 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문5)의 경우 매우 일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문항의 경우 응답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며, 뚜렷한 두 개의 집단으로 구별되는 경향이 있다.

문1. 북한의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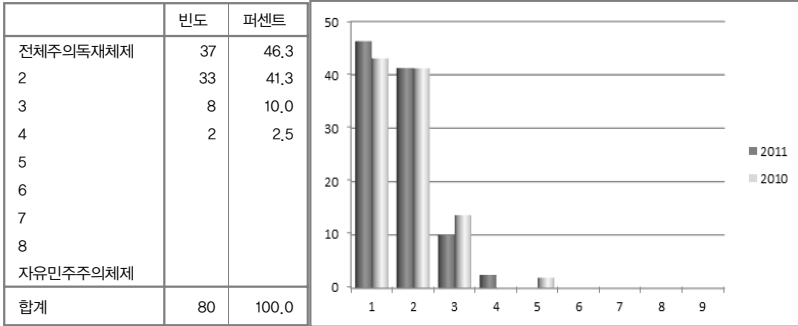


북한 후계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약 70.1%의 패널이 다소 긍정적(6점)에서 매우 긍정적(9점) 사이에 응답하여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7점으로 21명이 답변하였다. 답변 평균은 5.69, 표준편차는 1.703이다.

2010년의 답변 역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미세한 차이가 주목된다. 우선 2010년 평균은 5.8로 2011년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포상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이 2010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10년에 비해 비교적 뚜렷한 쌍봉형 분포가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조사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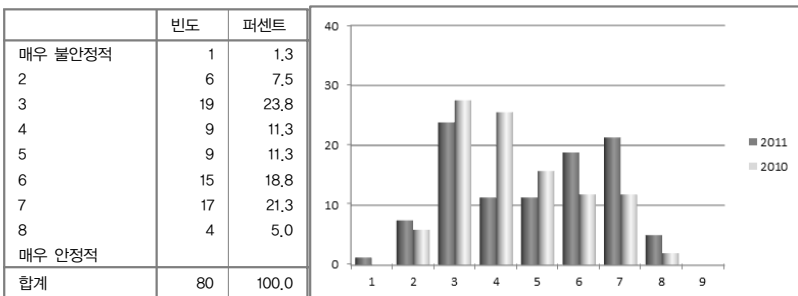
I
II
III
IV
V

문2. 현재의 북한체제를 전체주의독재체제(1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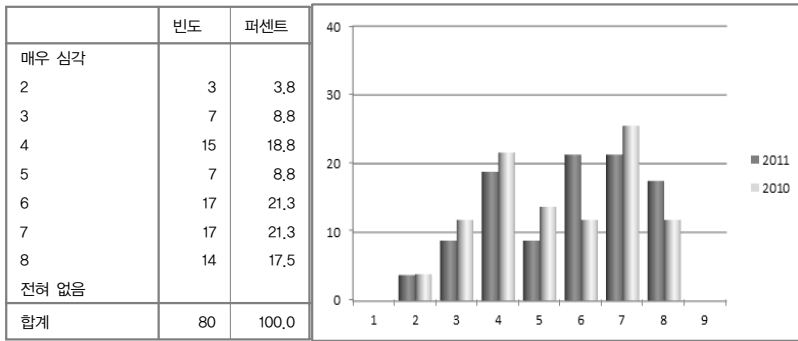
이 문항은 패널의 답변이 충분히 예측되지만, 2009년 델파이 조사에서 통일요인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채택되었다. 3년간 패널의 응답은 1점과 2점의 극단적인 점수에 집중되어 왔으며, 2011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 평균은 1.69, 표준편차는 0.756이다. 본 문항은 남북 간 신뢰수준을 조사한 문17과 군사적 신뢰수준을 물었던 문24와 함께 패널 간 견해차가 가장 적은 문항에 해당한다.

문3. 현재의 김정일 체제가 매우 불안정적이다(1점)에서부터 매우 안정적이다(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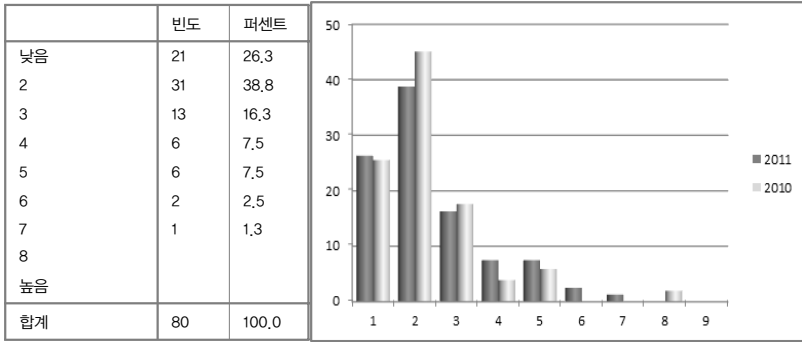
현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은 흡수형 통일과 합의형 통일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2010년 동일 문항의 평균은 4.43으로 다소 불안정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2011년 조사에서는 매우 뚜렷한 쌍봉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패널은 3점(23.8%)과 7점(21.3%)을 중심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은 43.8%, 6점 이상의 긍정적 응답은 45.1%이다. 평균은 4.90, 표준편차는 1.860이다. 즉, 단순히 응답자의 숫자만을 볼 경우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많으나, 평균은 중간점인 5점보다 다소 적은 4.9이다. 즉, 북한체제가 안정적이라는 패널과 그렇지 않다는 패널이 거의 동일한 규모로 양분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한 도표에서도 확인된다.

문4.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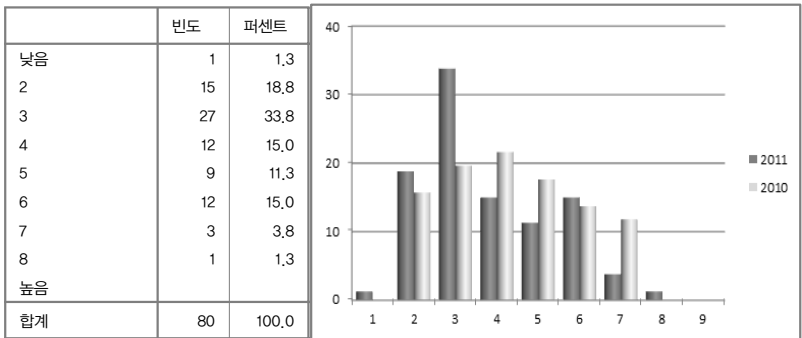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은 2010년 평균 5.41에서 2011년 5.688(표준편차 1.755)로 근소한 변화가 있었으나 거의 동일한 추세라 할 수 있다. 패널은 이 문항에서도 전형적인 쌍봉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31.3%가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을 하였으며, 60.1%가 6점 이상의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즉, 북한의 권력갈등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다수이지만 여전히 무시하지 못할 숫자로 권력갈등의 존재를 지지하고 있다.

문5. 현재 북한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북한 지도부의 평화통일 의지는 합의형 통일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총 80명 중 71명(81.3%)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2011년 평균은 2.44(표준편차 1.395)로 2010년의 2.29에서 근소하게 높아졌다.

문6. 북한에 개혁리더십(실용적 리더)이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개혁리더십의 등장에 대해서는 평균 3.83, 표준편차 1.565로 나타났다. ‘부정적’(3점)이라는 응답이 27명(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4점 이하에 68.8%가 집중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2010년 조사와 다

소 대비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평균 4.29로 여전히 부정적 응답이 많으나 상대적으로 개혁리더십의 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 답변도 많았다. 그러나 2011년의 경우 3점을 중심으로 압도적인 다수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20.1%가 긍정적 답변을 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북한 경제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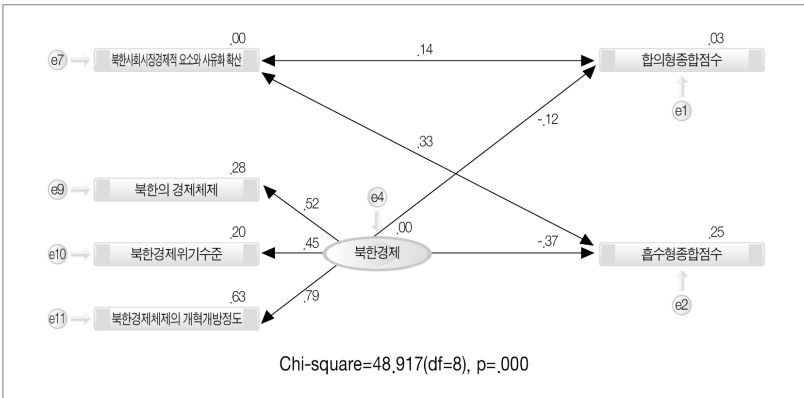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11. 북한 경제위기 수준	3.03	1.387
문12. 북한의 경제체제 특징	2.90	1.239
문13. 북한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	2.83	1.310
문20.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 확산	4.79	1.644

북한 경제분야는 총 4개의 문항으로 이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경제위기 수준(문11), 경제체제(문12), 경제 개혁개방(문13)이 요인1로 묶였으며,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확산(문20)은 요인2로 분류되었다. 요인1은 전반적인 북한경제의 현황을 의미하므로 북한경제라는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경제분야와 두 개의 통일시계와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다. 경로분석에 의하면, 북한경제의 4개 문항은 모두 합의형 통일시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북한경제의 수준이 극단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부 델파이 패널의 합의형 통일시계는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상황보다는 상당히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경제분야 문항과 합의형 통일시계 문항 간 분산이 불일치함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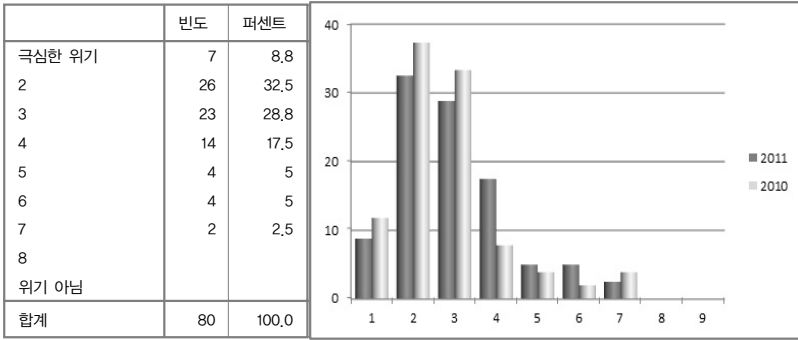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흡수형 통일시계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 확산(요인2)과 북한경제(요인 2)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가 진행될수록 흡수형 통일시계는 통일에 가까워지며, 북한경제는 악화될수록 흡수형에 가까워지고 있음이 각 관계의 부호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그림 III-4> 통일시계와 경제분야 통일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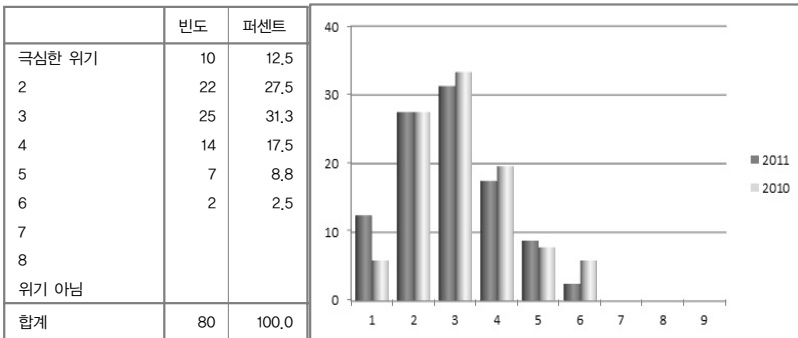
각 문항별로 보면, 경제분야에 대한 4개의 문항 중 문11, 문12, 문13의 경우 각기 구별되는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답변분포를 나타냈다. 그러나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 확산에 대해서는 뚜렷한 쌍봉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문11. 북한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북한 경제위기에 대한 문항은 2009년 델파이조사 사후분석에서 흡수형 통일의 결정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2011년 동 문항에 대한 답변은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이 87.5%로 압도적이다. 이에 따라 평균 역시 3.03으로 낮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작은 표준편차(1.387)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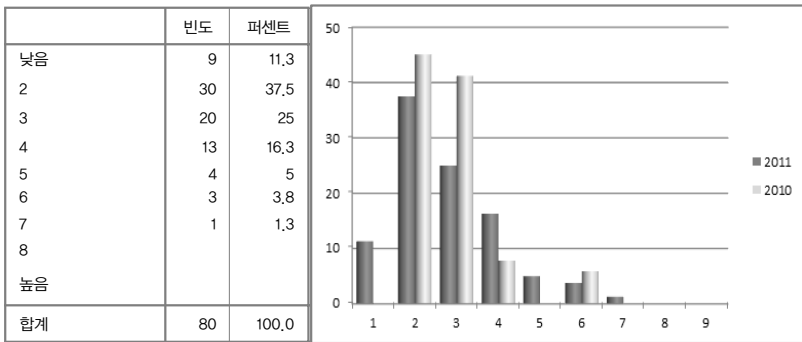
문12. 현재의 북한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패널의 현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은 최빈값 3을 중심으로 1점에서 6점까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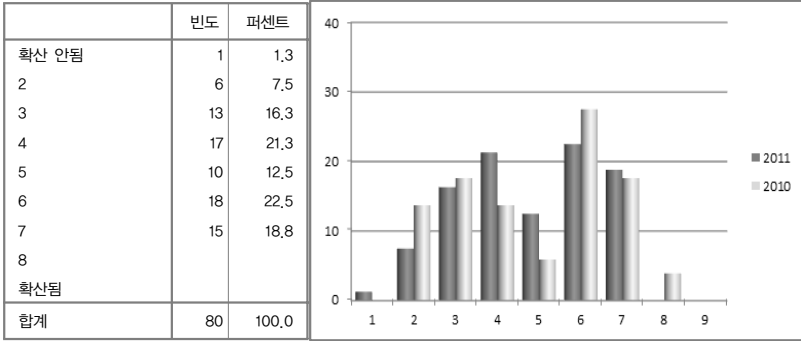
답변을 하고 있으며, 평균은 2.9이다. 표준편차는 1.239로 낮은 편이다. 87.5%의 패널이 4점 이하의 답변을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2010년 평균은 3.14로서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도표에 의하면, 2010년 ‘다소 긍정적’(6점)이라고 응답한 소수 중 일부가 부정적 방향으로 이동하여 평균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문13.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은 합의형 통일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제시되어 문항에 포함되었다. 2011년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에 대한 패널의 견해는 거의 일치되고 있다. 개혁·개방에 대해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이 90%에 달하고 있으며, 평균은 2.83(표준편차 1.310)이다. 2010년 평균은 2.80으로 거의 동일한 평균값을 유지하고 있다.

문20.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가 얼마나 확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에 대한 답변은 경제분야 4개 문항 중 가장 독특한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는 문항이다. 본 문항은 2009년의 경우 부정적인 견해가 조금 많았으나, 2010년부터 뚜렷한 쌍봉형 분포로 변화되는 추세에 있다. 패널 중 46.3%는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을 하고 있으며, 6점 이상의 긍정적 응답은 41.3%에 달한다. 가장 많은 답변은 6점(18명)과 4점(17명)이다. 2011년 평균은 4.79이며, 표준편차는 1.644이다. 2010년의 평균 4.84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거의 동일한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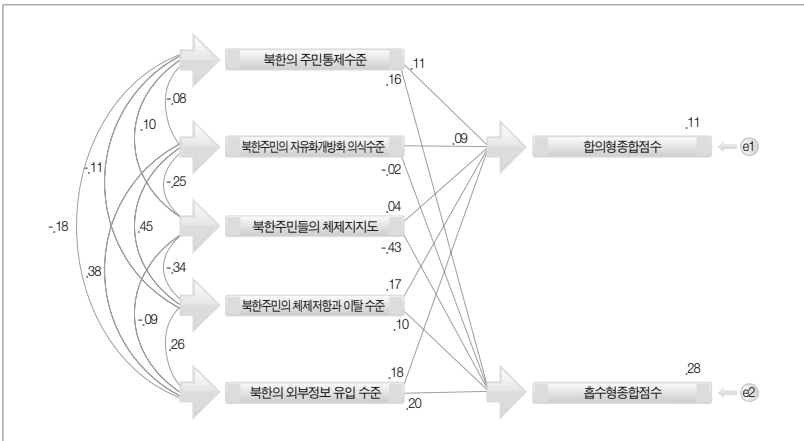
다. 북한 사회분야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18. 북한 주민통제 수준	6.89	1.630
문19. 북한주민의 사유화 개방화에 대한 의식 수준	4.61	1.530
문21. 북한주민의 체제지지도	4.72	1.814
문22. 북한주민의 체제저항과 이탈 수준	3.99	1.505
문23.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 수준	4.49	1.559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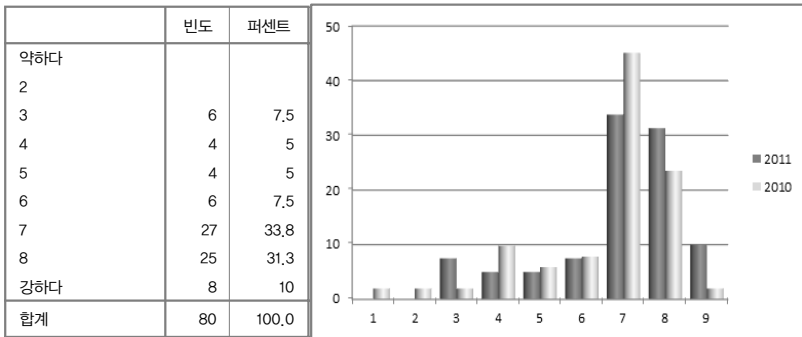
사회분야의 각 항목은 2010년 사후분석 과정에서 문항 간 논리적 인과관계가 상당히 있는 문항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외부정보의 유입→자유화 개방화에 대한 의식 상승→체제지지도 하락→주민통제의 하락→체제저항과 이탈의 경로를 그릴 수 있겠다. 그러나 경로분석 결과 뚜렷한 인과관계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외부정부 유입(문23), 자유화개방화 의식수준(문19), 체제저항과 이탈수준(문22)의 3개 문항 간 상관관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각 5개 문항 간 관계와 사회분야 문항의 통일시계와의 관계는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5개 문항의 통일시계에 대한 영향력은 대체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북한주민의 체제지지도(문22)의 경우 흡수형 통일시계와 음의 관계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텔파이 패널이 주민의 체제지지도가 낮을 경우 흡수형 통일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외부정보의 유입수준(문23)이 높을수록 흡수형 통일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 통일시계와 사회분야 통일요인



문항별로 살펴보면, 사회분야의 북한 주민의 자유화개방화 의식수준(문19), 체제저지도(문21), 외부정보 유입수준(문23)에 대한 문항의 경우 뚜렷한 쌍봉형 분포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세 가지 문항에 대한 패널의 견해차가 두 가지 유형으로 갈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향후 이 분야의 변화가 더 이뤄질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북한 주민의 체제저항과 이탈수준(문22)은 단봉형에서 쌍봉형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일정한 시간이 경과할 경우 이 문항은 쌍봉형 분포로 바뀌게 될 것이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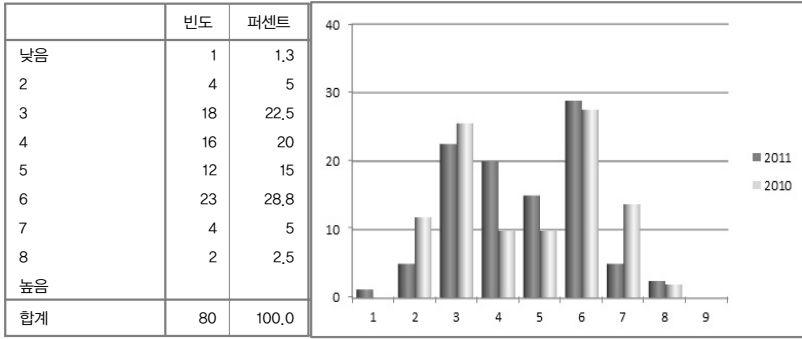
문18. 북한의 주민통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주민통제의 수준에 대해 패널은 3점에서 9점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의 응답을 하였으나 6점 이상의 부정적 응답이 82.5%로 매우 압도적이다. 특히 7점과 8점에 응답이 집중되고 있다. 평균 역시 이를 반영한 6.89이며, 표준편차는 1.630이다. 2010년의 동일 문항 평균은 6.49이며, 전반적인 분포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문19. 북한주민들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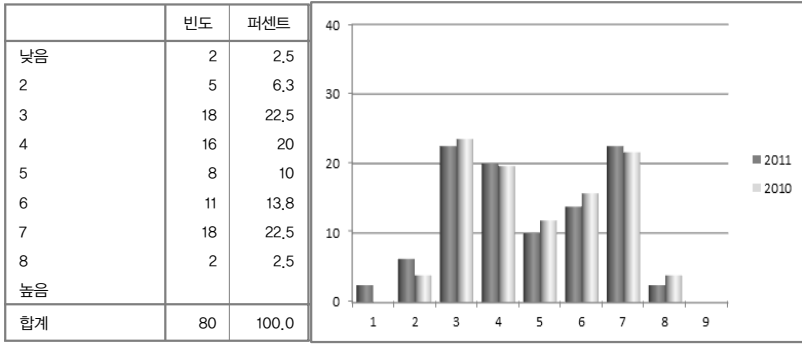


북한주민의 자유화·개방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묻는 질문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뚜렷한 쌍봉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패널은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에 48.8%가 답하였으며, 6점 이상의 긍정적 응답은 36.3%이다. 중립적인 응답(5점)은 12명으로 15%에 해당한다. 평균은 4.613이며, 표준편차는 1.530이다.

동 문항의 2010년 평균은 4.65로 2011년과 거의 동일하다. 특기할 점은 동 문항의 2009년 응답은 평균 3.91¹³로 부정적 응답을 중심으로 한 단봉형 분포였다는 점이다. 즉, 2010년 이후 변화된 동 문항에 대한 평가가 2011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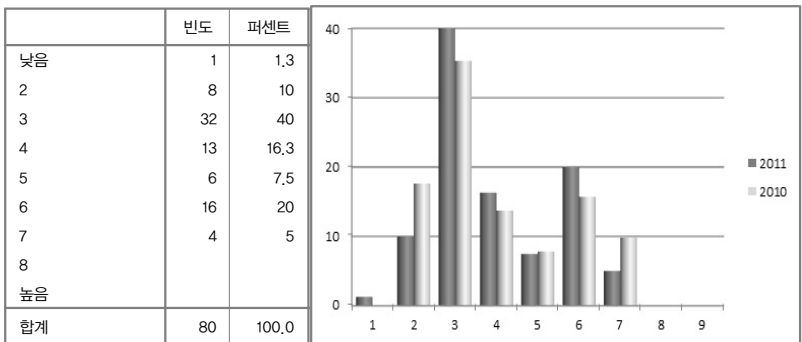
¹³- 2009년의 동일 문항은 10점 척도이며, 단순한 평균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전체 분포를 고려할 경우 2009년과 이후 2개 년도의 평균 차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문21.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주민들의 체제지지도에 대한 문항 역시 뚜렷한 쌍봉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패널은 최빈값 3점(18명)과 7점(18명)을 중심으로 양분된 응답을 하였다.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은 51.3%이며, 6점 이상의 긍정적 응답은 38.8%이다. 이러한 분포는 평균 4.73(표준편차 1.814)에도 반영되어 있다. 응답범위도 1점에서 8점까지 매우 크다. 동 문항의 2010년 평균은 4.92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분포 역시 유사하다.

문22. 북한 주민들의 체제저항과 이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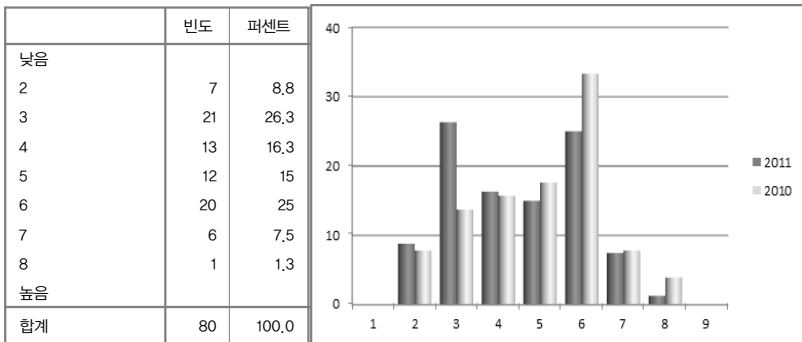


I
II
III
IV
V

이 문항은 문21과 대칭적 관계이다. 즉, 체제지지도가 낮아지면 저항과 이탈이 높아질 것이다. 동일한 2개 문항에 대한 2010년의 비교에서는 두 개의 문항이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 조사에서는 예측한 바와 같이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¹⁴ 이러한 관계의 발생은 향후 이 문항에 대한 지속적인 주목을 요구한다. 즉, 2010년 조사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체제지지도와 체제저항과 이탈의 관계가 2011년에 발생하였으며, 향후 그 관계의 심도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문항은 2010년에 비해 더 구체적인 쌍봉형 분포를 그리고 있다.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은 67.5%, 5점은 7.5%, 6점 이상은 25%가 답변하였다. 다수가 여전히 부정적 응답을 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에도 반영되어 3.99(표준편차 1.505)를 기록하였다. 2010년 평균은 3.98로 평균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문23. 북한에 외부정보가 어느 정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¹⁴ 두 문항에 대한 감마(gamma) 값은 -.391이며, p=.000이다. 피어슨의 r값 역시 -.344(p=.002)이다.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의 유입은 최빈값 3점(21명)과 6점(20명)을 기준으로 쌍봉형 분포를 그리고 있다.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이 51.3%로 과반을 넘으며, 5점 15%, 6점 이상 33.8%이다. 응답 평균은 4.49이며, 표준편차는 1.559이다. 동일 문항의 2010년 평균은 4.94로 거의 5점에 가까우며, 최빈값 6점을 중심으로 분포되었다. 즉, 2011년 조사에서 3점에 대한 응답이 급격히 상승하여 평균값이 낮아짐과 동시에 더 뚜렷한 쌍봉형 분포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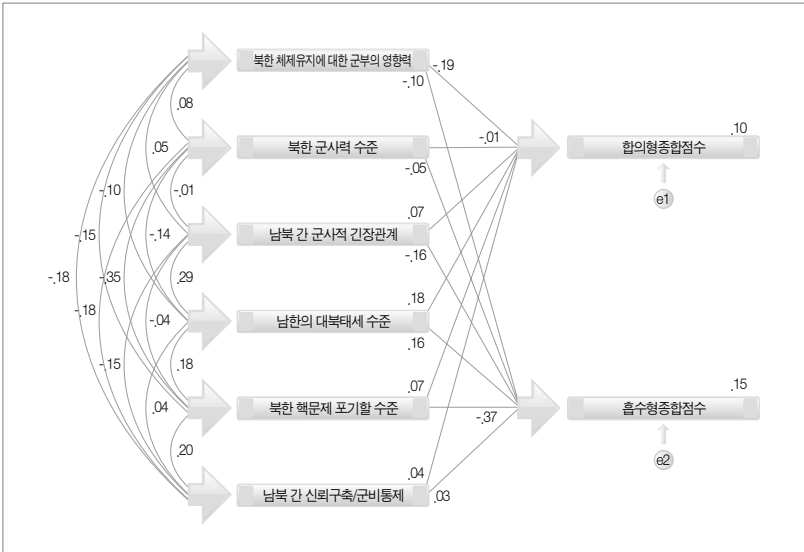
라. 군사분야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24. 남북간 신뢰구축/군비통제	1.81	0.901
문25.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	7.15	1.639
문26. 북한체제 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	7.55	1.168
문27. 남한의 대북태세 수준	6.29	1.425
문28. 북한의 군사력 수준	5.93	1.339
문29. 북한의 핵문제 포기 가능성	2.56	1.813

군사부문은 통일요인 설문조사 중 패널 간 견해차가 매우 집중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6개 문항 중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문25)와 남한의 대북태세(문27)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력 수준(문28)과 북핵포기(문29) 역시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다. 경로 분석 결과, 몇 개의 경로만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이 핵포기(문29)를 할 경우 흡수형 통일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군부의 영향력(문26)이 높을수록 합의형 통일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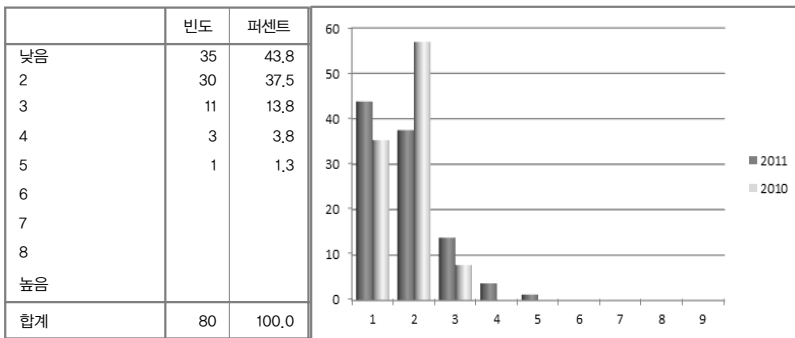
I
II
III
IV
V

<그림 III-6> 통일시계와 군사분야 통일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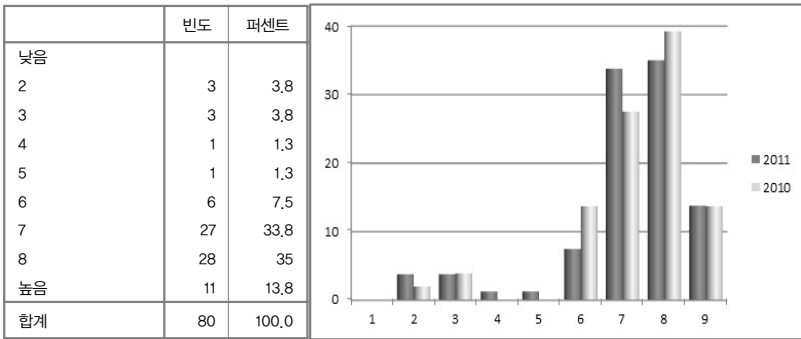
군사부문의 각 문항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응답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모두 단봉형 분포를 이루고 있다.

문24.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패널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1점과 2점에 집중되었다. 4점 이하에 대한 응답 98.8% 중 81.3%가 1점과 2점에 몰려있다. 평균은 매우 낮은 1.81이며, 표준편차 역시 이례적으로 낮은 .901이다. 이러한 응답은 2010년에도 마찬가지이다. 2010년 평균은 1.72, 표준편차는 .60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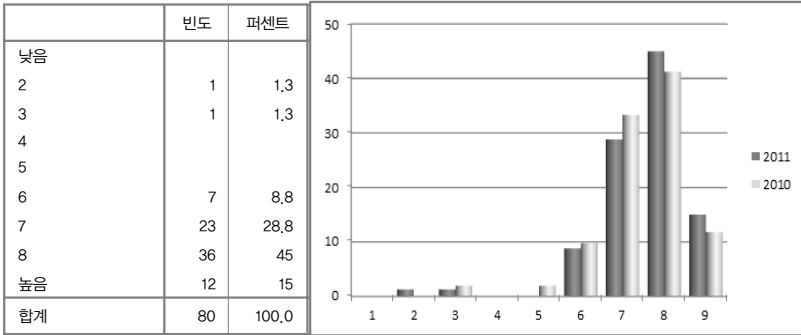
문25. 현재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는 7~9점에 82.6%가 집중되었다. 평균은 7.15, 표준편차는 1.639이다. 답변범위는 2점에서 8점으로 넓은 편이다. 동 문항은 2009년에 군사적 긴장수준이 ‘낮다’와 ‘높다’는 응답이 뚜렷이 구별되는 쌍봉형 분포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압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다’는 답변으로 변화되었다. 2010년의 평균은 7.27로 2011년과 거의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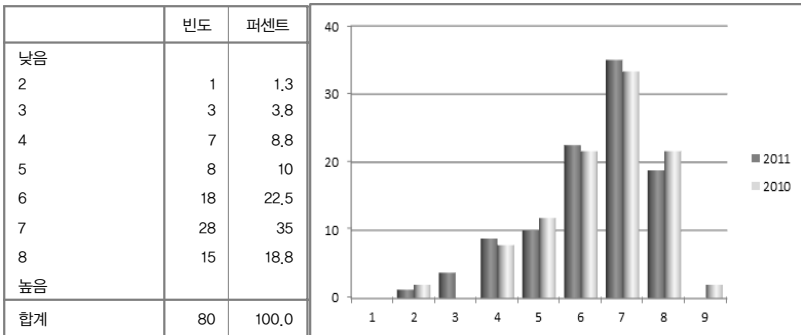
I
II
III
IV
V

문26.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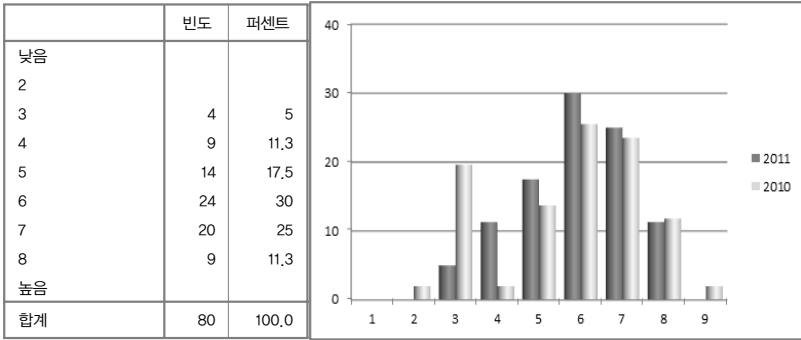
북한의 군부 영향력에 대한 답변 역시 최빈값 8점(36명)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다. 평균은 7.55, 표준편차는 1.168로 나타났다. 6점 이상의 응답은 96.2%이다. 동 문항에 대한 답변은 2009년 및 2010년과 거의 동일한 분포이다. 2010년 평균은 7.43이었다.

문27. 남한의 대북태세(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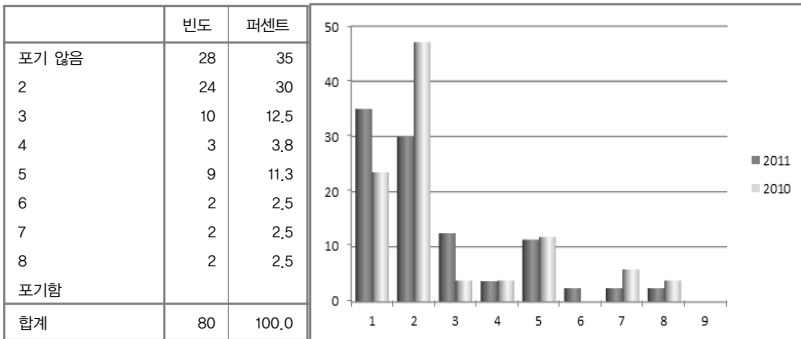
패널은 남한의 대북태세에 대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균은 6.29, 표준편차는 1.425이다. 답변범위는 2점에서 8점으로 넓은 편이지만, 6점 이상의 답변이 76.3%로 압도적이다. 이러한 응답분포는 2010년과 거의 유사하다. 2010년의 평균 역시 6.47로 큰 변화가 없다.

문28. 북한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3점에서 8점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최빈값 6점(24명)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평균은 5.93, 표준편차는 1.339이다. 북한의 군사력을 높게 평가하는 6점 이상의 답변이 66.3%로 압도적이다. 2010년의 경우 4점 이하의 답변이 23.5% 수준으로 무시하지 못할 비중이었다. 즉, 북한 군사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비중이 상당 수준 존재했으나, 2011년에는 급격히 낮아졌다. 2010년의 평균은 5.69이다.

문29. 북한 핵문제와 관련,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1점)에서부터 포기할 것이다(10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
II
III
IV
V

북핵문제에 대한 패널의 답변은 1점에서 8점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지지만, 상당히 집중적인 답변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1~2점의 극단적 응답이 65%이며, 4점 이하의 응답은 81.3%에 달한다. 평균은 2.563, 표준편차는 1.813이다. 패널의 답변은 2010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평균은 2.76이다.

마. 남한의 역량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7. 남한국민의 통일인식	4.81	1.450
문8.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	4.25	1.642
문9. 통일을 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	4.95	1.603
문10. 남북한 경제협력 수준	2.64	0.958
문14. 남한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의지	3.86	1.465
문15. 남한국민의 통일에 대한 합의수준	4.04	1.610
문16. 남북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	3.24	1.380
문17. 남북한 상호신뢰 수준	1.88	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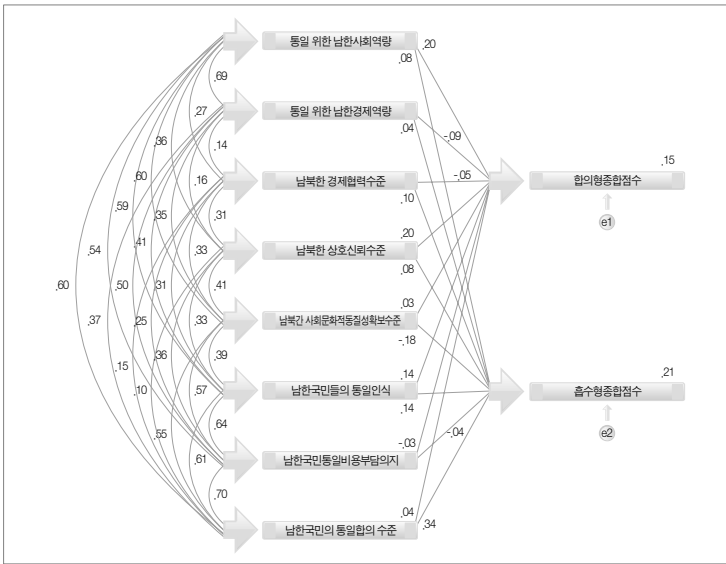
남한의 역량과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자는 남한 국민의 통일 인식(문7),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문8)과 경제적 역량(문9), 통일비용 부담의지(문14), 통일에 대한 남한 국민 간 합의수준(문15)이며, 후자는 남북 경험수준(문10), 남북주민 간 상호 이해수준(문16), 남북 당국 간 상호 신뢰수준(문17)이다.

8개 문항은 타 분야에 비해 이례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요인분석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인1의 경우 문15, 문14, 문7, 문16, 요인2의 경우 문10과 문17, 요인3의 경우 문9와 문8이 결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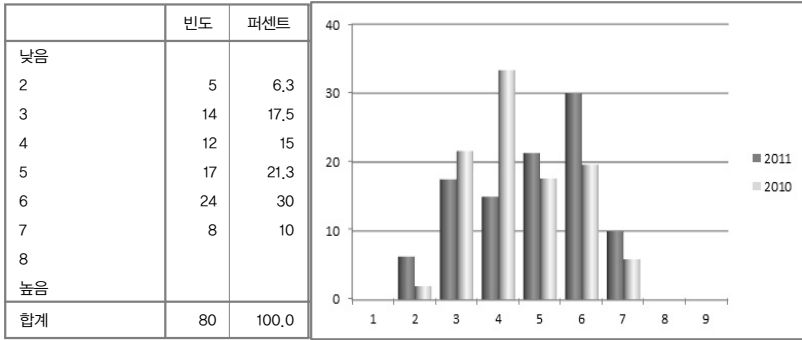
	Q15	Q14	Q7	Q16	Q17	Q10	Q8
Q14	.700**						
Q7	.610**	.643**					
Q17	.548**	.567**	.389**				
Q17	.194	.359**	.329**	.409**			
Q10	.148	.253*	.306**	.334**	.341**		
Q8	.604**	.541**	.594**	.599**	.362**	.268*	
Q9	.368**	.505**	.411**	.347**	.162	.139	.691**

그러나 8개 문항의 각 통일시계에 대한 관계는 그리 높지 않다. 통일을 위한 남한 사회의 역량(문8)과 남북 상호신뢰수준(문17)이 높아질수록 합의형 통일을 앞당기고 있다. 흡수형 통일시계의 경우 남한국민의 통일합의 수준(문15)이 높아질수록 흡수형 통일이 빨라지며,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문16)와는 역관계에 있다.

<그림 III-7> 통일시계와 남한의 역량 분야 통일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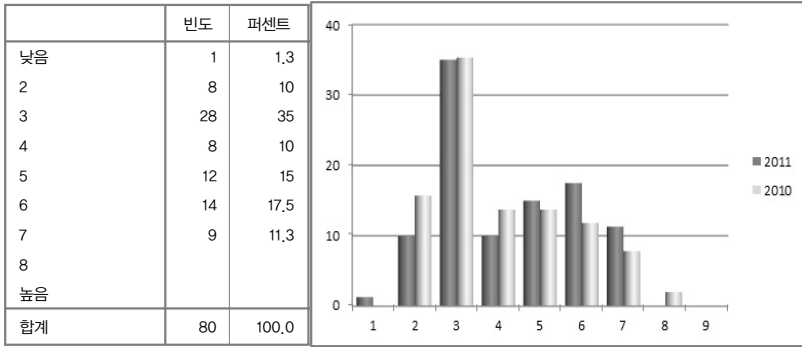
문7.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의형과 흡수형 통일 모두에 있어 남한의 역량은 중요한 통일요인이다. 이에 따라 몇 개의 남한 요인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그 첫 번째 문항으로 남한 국민들의 통일인식에 대한 델파이 패널의 의견을 물었다. 패널은 ‘약간 긍정적’(6점)이라는 응답을 중심으로 2점에서 7점 사이에서 응답하였다.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은 38.8%, 5점 21.3%, 6점 이상은 40%로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이 거의 동수로 양분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평균도 5점에 가까운 4.81(표준편차 1.450)로 계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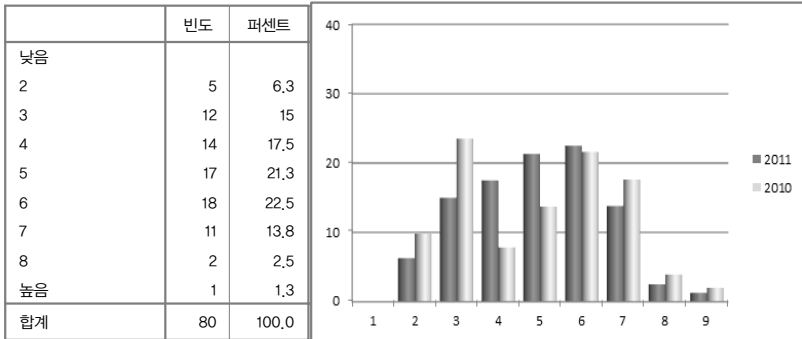
동 문항은 2010년 조사에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2배가량 많았었다. 그러나 2011년 조사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구분되는 쌍봉형 분포로 변화하였다. 2010년 평균은 4.49이다. 즉, 패널은 2011년 들어 남한 국민들의 통일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여전히 그 수준은 크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

문8.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에 대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은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이 56%, 중립(5점)이 15%, 6점 이상이 28.8%이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에 비해 두 배가량 많은 편이다. 평균은 4.25이며, 표준편차는 1.642이다. 동 문항에 대한 2010년 분포는 거의 동일하며, 평균은 4.02였다.

문9. 통일에 대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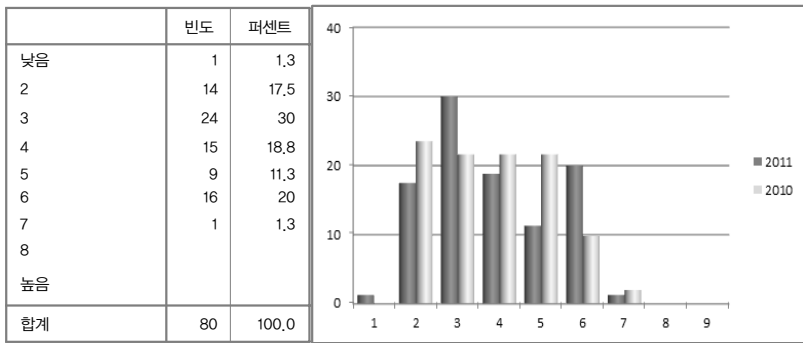


사회적 통일역량에 비해 경제적 통일역량에 대한 답변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의 응답분포는 4점 이하에 38.8%, 5점 21.3%, 6점 이상에 40.1%로 구성되어 있다. 5점을 중심으로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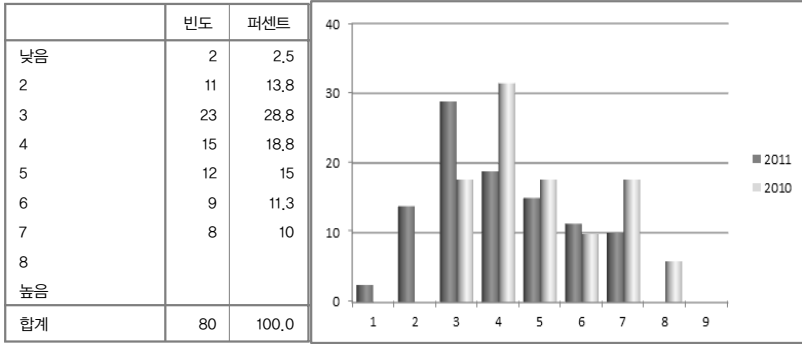
로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다. 평균 역시 중간점 5점에 가까운 4.963이며, 표준편차는 1.603이다. 2010년 조사에서 나타난 뚜렷한 쌍봉형 분포는 2011년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정적 견해에서 중립적 견해로 이동한 응답이 많기 때문이다. 2010년의 평균은 4.92로 거의 동일하다.

문14. 남한국민의 통일비용부담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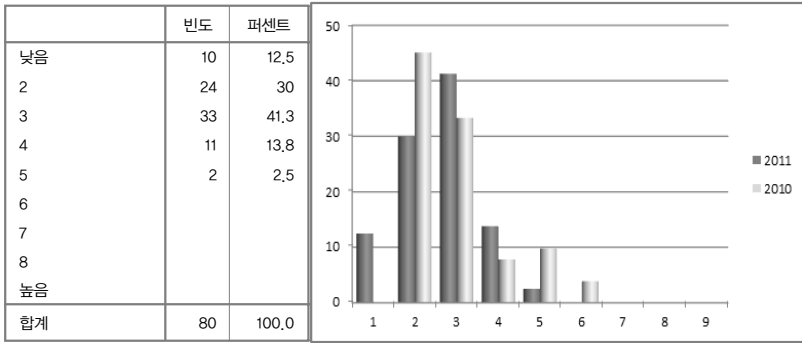
남한국민의 통일비용부담에 대한 의지에 대한 답변은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이 67.5%, 중립 11.3%, 6점 이상이 21.3%로 분포되었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이며, 무시 못 할 수준의 긍정적 응답(21.3%)이 존재한다. 평균은 3.863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465이다. 2010년 평균은 3.72로 큰 변화는 없다.

문15. 통일에 대한 남한국민의 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한 패널의 평가는 4점 이하의 부정적 평가가 63.8%로 압도적이다. 평균은 4.04, 표준편차는 1.610이다. 2010년 평균은 3.96으로 거의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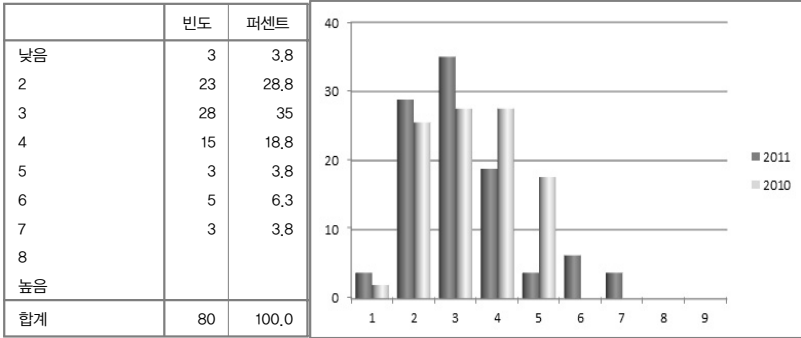
문10. 현재의 남북한 경제협력의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남북경협의 수준에 대해서는 패널의 97.5%가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2011년 평균은 2.64, 표준편차는 .958이다. 이는 2010년 평균 2.94에 비해 다소 낮아진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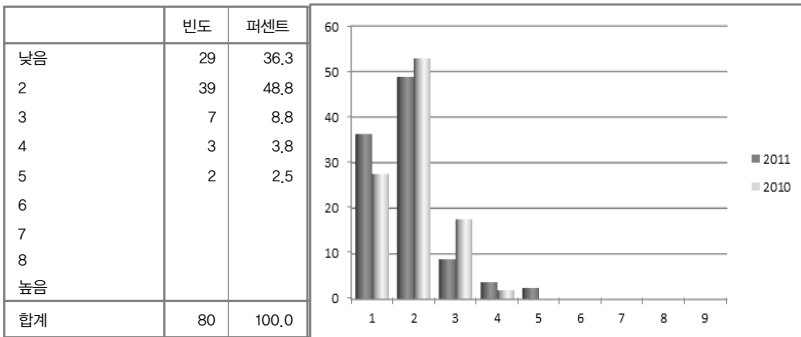
I
II
III
IV
V

문16.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확보(상호이해)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질문은 2010년 평균 3.33에서 2011년 3.24(표준편차 1.380)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점 이하의 부정적 응답은 86.3%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빈값 3점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문17. 현재 남북한 당국 간의 상호신뢰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당국 간 상호신뢰 수준은 극단 값 1점과 2점에 집중되고 있다. 패널 응답 97.5%가 4점 이하에 응답하였으며, 평균 역시 1.88로 매우 낮다.

표준편차는 .905이다. 2010년 조사의 평균은 1.92로 거의 동일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마. 국제관계 분야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31.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	5.54	1.869
문30.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	3.40	1.556
문32.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	4.74	1.636
문33. 통일에 대한 일본의 이해관계	4.19	1.780
문34.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반응	5.39	1.382
문35.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	4.30	1.602
문36. 북한의 국제적 고립 수준	2.45	1.054

국제관계 분야 역시 각 유형의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주변 4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문항과 더불어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문항의 공통된 특징은 상대적으로 타 문항보다 응답의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한편, 미중관계의 경우 2010년 델파이 조사에서 주요 통일요인으로 제시되어 추가된 문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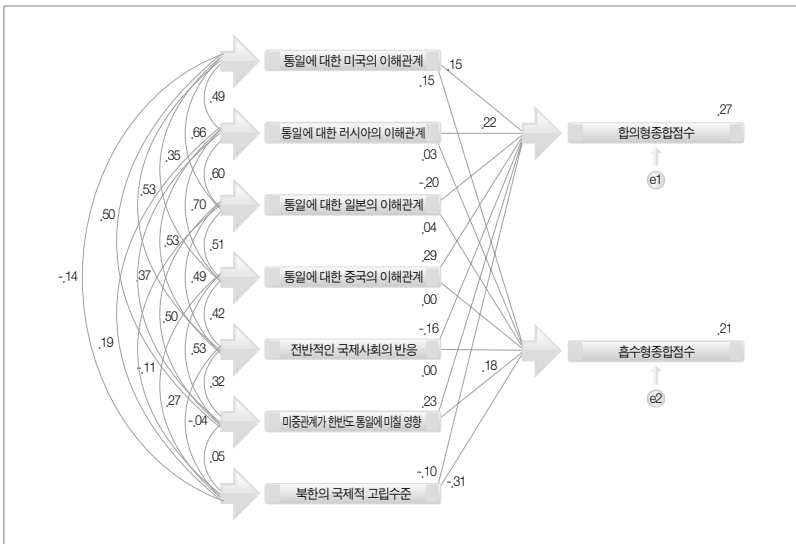
요인분석 결과 7개의 문항은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문36)을 제외한 6개 문항이 모두 하나의 요인에 배당되었다. 이는 6개 문항 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추출된 요인은 무의미하다.

경로분석에 의하면 함의형 통일시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해관계(문31), 러시아의 이해관계(문32), 중국의 이해관계(문30), 미중관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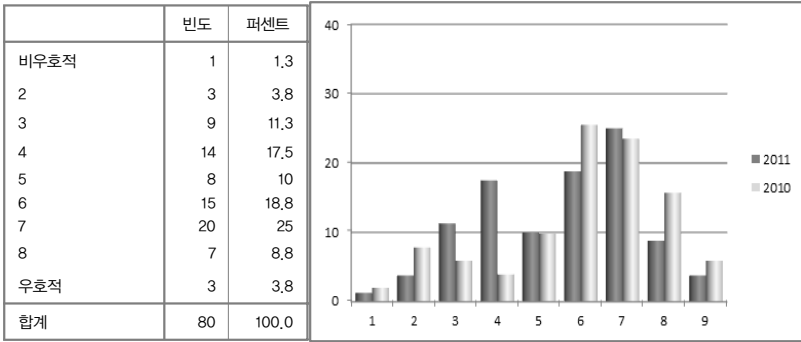


35)가 약한 정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이해관계(문33)는 역관계이다. 흡수형 통일의 경우 미중관계(문35)와 국제적 고립수준(문36)이 관련되고 있으며, 국제적 고립의 경우 미국의 이해관계는 합의형 흡수형 통일시계 모두에 약한 정관계를 갖고 있다.

<그림 III-8> 통일시계와 국제관계분야 통일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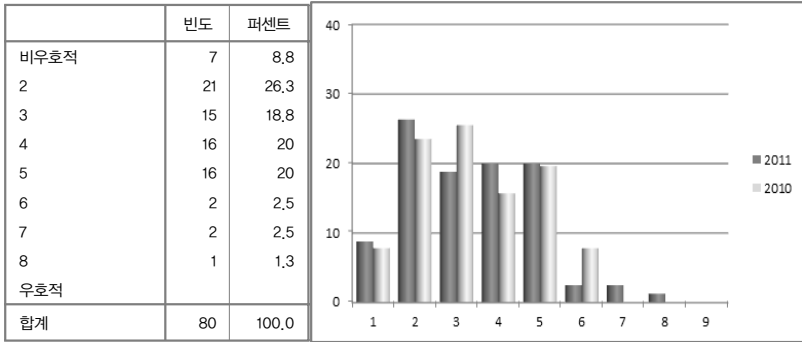
문31.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 사후분석에서 미국은 흡수형 통일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 문항은 2009년 미세한 쌍봉형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2010년과 2011년 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매우 넓은 범위로 이산되어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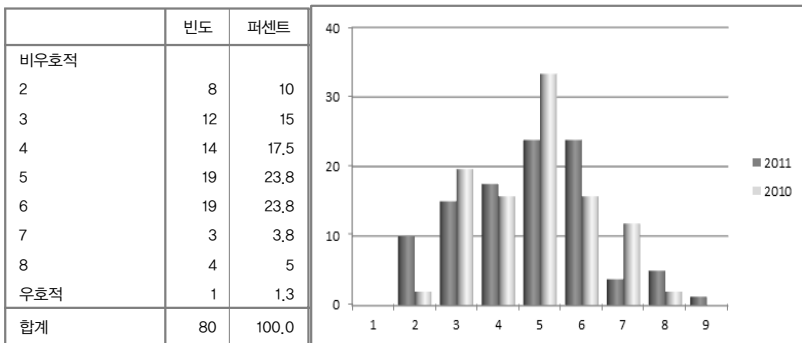
특기할 점은 패널의 주변 4국에 대한 평가 중 미국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중간점 5점을 초과하는 평균 5.54(표준편차 1.869)의 긍정적인 답변분포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응답분포는 4점 이하가 33.8%, 5점 10%, 6점 이상이 56.2%에 달한다. 응답은 4점(14명)과 7점(20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2010년 평균은 5.96이다.

문30.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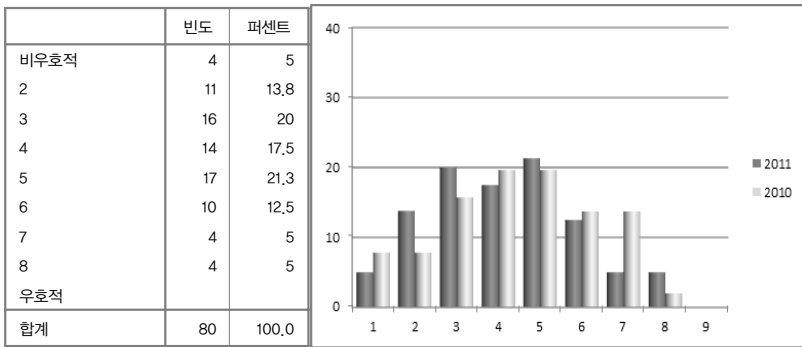
2009년과 2010년의 본 『통일시계 구축』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이해관계가 흡수형 통일과 관련이 있었던 반면, 중국은 합의형 통일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중국의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는 2009년과 2010년의 분포와 거의 유사하다. 패널 73.8%가 4점 이하에 응답하였으며, 5점은 20%, 6점 이상은 6.3%이다. 압도적 다수가 중국이 통일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1년 평균은 3.40(표준편차 1.556)으로 2010년 평균 3.38과 일치한다.

문32.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4.74(표준편차 1.636)이며, 최빈값 5점과 6점에 19명이 집중되어 있다. 4점 이하의 응답은 42.5%, 5점 23.8%, 6점 33.7%이다. 2010년 평균은 4.84로 큰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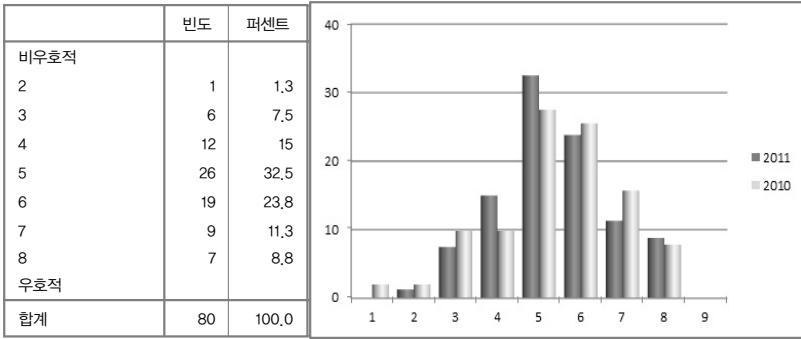
문33.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패널은 러시아보다 일본의 통일에 대한 역할에 대해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4점 이하의 응답은 56.3%에 달하며, 5점과 6점 이상은 각각 21.3%와 22.5%이다. 평균은 4.19, 표준편차는 1.780이다. 일본의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평균은 4.41이다.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역할에 대한 패널의 답변분포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넓고 낮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이해관계에 대한 평가가 러시아 보다 부정적이라는 2년간의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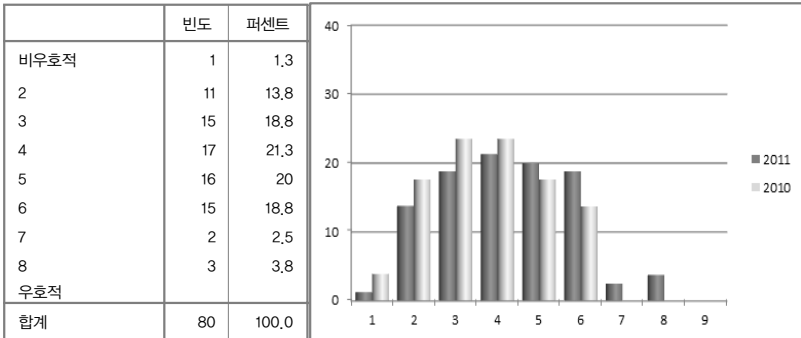
I
II
III
IV
V

문3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텔파이 패널은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다소 우호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빈값인 5점(26명)을 중심으로 부정적 응답이 23.8%, 긍정적 응답이 43.9%이다. 평균은 5.39, 표준편차는 1.383이다. 2010년 평균은 5.3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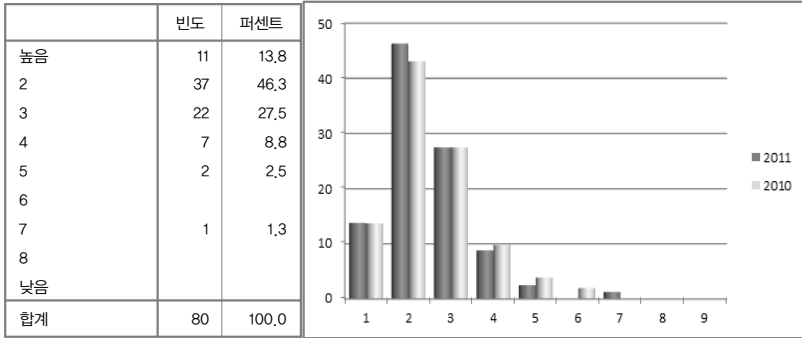
문35. 현재 미중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본 문항은 2010년 텔파이 조사에서 처음 추가되었다. 2010년 통일시계 사후분석 과정에서 합의형과 흡수형 통일 모두에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패널은 미중관계가 통일에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4점 이하의 부정적 의견이 55%, 5점 20%, 6점 이상이 25%이다. 평균은 4.3, 표준편차는 1.602이다. 2010년 평균은 3.75이다. 2011년 조사에서 약 0.55가량 증가하였다.

문36.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은 2009년 이래 연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은 4점 이하에 96.3%가 집중되어 있다. 평균은 2.45, 표준편차는 1.054이다. 2010년 평균은 2.53이다.

3. 2011년 델파이 패널 조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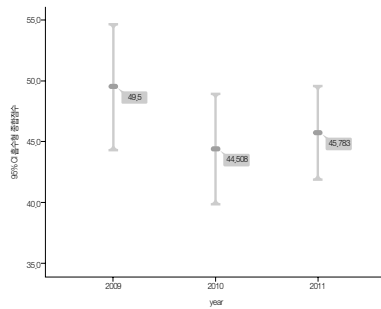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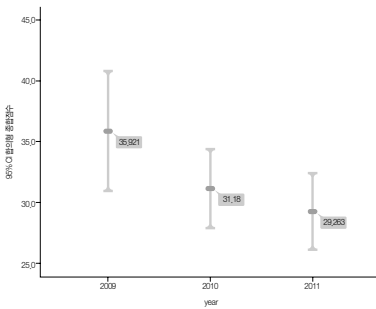
2010년의 통일예측시계는 2009년에 비해 현저하게 뒤로 후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011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통일시계가 2010년의 수준에서 머물렀다. 즉, 12개 통일시계 중 대부분의 분야에서 10분 미만의 시간변화를 보였다. 2011년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전년 대비 14분 후진하였으며, 그나마 다른 시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흡수형 통일시계는 2010년 5시 20분에서 오히려 10분 전진한 5시 30분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흡수형 하위분야의 시계 중 군사부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미세하나마 시간의 전진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2011년 한반도의 현실 정세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즉, 합의형 통일과 관련된 제반 조건이 악화되고, 반면에 흡수형 통일의 조건이 강화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적 검증을 통해 그러한 변화가 대부분 오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2011년의 통일시계는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12개 통일시계 중 가장 변화가 적었던 분야는 경제분야였다. 경제분야는 합의형과 흡수형 모두 3년간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동 분야는 해당 통일유형의 하위분야 중 통일에 가장 가까운 분야로 평가되었다. 정치분야와 군사분야는 2011년에도 가장 통일에서 먼 시간대로 확인되었다. 특히 흡수형 통일시계의 군사부문을 2011년 들어 45분 후퇴한 3시 46분을 기록하면서 통일시계 중 가장 급격한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합의형 통일보다 흡수형이 더 통일에 가깝다는 지난 2년간의 평가는 2011년에도 변하지 않았다. 패널은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보다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계가 2시간 더 통일에 가깝다고 평가하였으며,

각 하위분야의 통일시계도 유사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같은 유형의 통일시계이더라도 분야별로 시간의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경제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4시 48분임에 반해, 군사분야 합의형 통일시계는 2시 11분으로 2시간 37분의 격차를 가지고 있다. 각 5개 하위분야의 시계는 경제-사회-국제관계-정치-군사의 순으로 통일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1년은 제1~2차 통일시계의 델파이 패널보다 30명 많은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패널의 응답범위는 2010년에 비해 더 넓어지게 되었다.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2010년의 범위는 58점(5~63점)이었으며,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계는 60점(10~70점)이었다. 2011년 조사에서는 각각 79점(1~80점)과 87점(3~90점)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사렛수의 상승으로 극단 값의 감쇄효과가 발생하므로 범위의 증가는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사렛수가 증가함으로 인해 분포의 신뢰도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렛수 증가에 대한 효과는 아래 오차도표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2011년의 조사는 2009년과 2010년의 조사에 비해 오차구간이 같거나 더 좁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제1~2차의 통일시계를 보면 흡수형에 대한 패널의 견해차가 합의형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2011년의 조사결과도 동일한 현상이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높은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0년 사후분석 과정에서 통일시계 설문을 보다 명료하게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의 통일시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설문구조의 조정이 편차 축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예측시계를 결정하는 통일요인에 대한 조사는 2009년과 2010년 시행된 개방형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2010년 동 요인은 북한 정치분야, 북한 경제분야, 북한 사회분야, 군사분야, 남한의 역량 및 남북관계, 국제관계의 6개 분야에서 총 36개의 문항으로 요약되었다.

2011년 조사에 대해 본 연구는 포괄적인 인과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도입하여 분야별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일요인은 엄격한 통계적 모형구축의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사례수 부족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과정에서 통일요인은 합의형과 흡수형 통일시계에 일정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관계의 방향성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성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가 유지 또는 붕괴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요인을 다시 체제유지요인, 과도기적 요인, 체제변화 요인으로 재분류하고 이를 <그림 III-9>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북한 정치분야에 있어 시계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은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이며, 북한체제의 독재성, 후계체제 구축의 성공, 개혁리더십의 등장가능성은 체제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북한 경제위기는 체제변화에 가장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다. 그리고 36개 통일시계중 유일하게

체제 변화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시장경제와 사유화확산은 현재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개혁개방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사회분야는 전반적으로 변화의 과도기에 있으나 강력한 주민통제 기제로 밑으로부터의 변화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화와 개방화에 대한 인식수준은 변화과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체제지지도는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주민통제 수준으로 인해 주민의 체제저항과 이탈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분야는 강력한 체제유지의 기반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의 군사력 수준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매우 높으며, 체제 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도 강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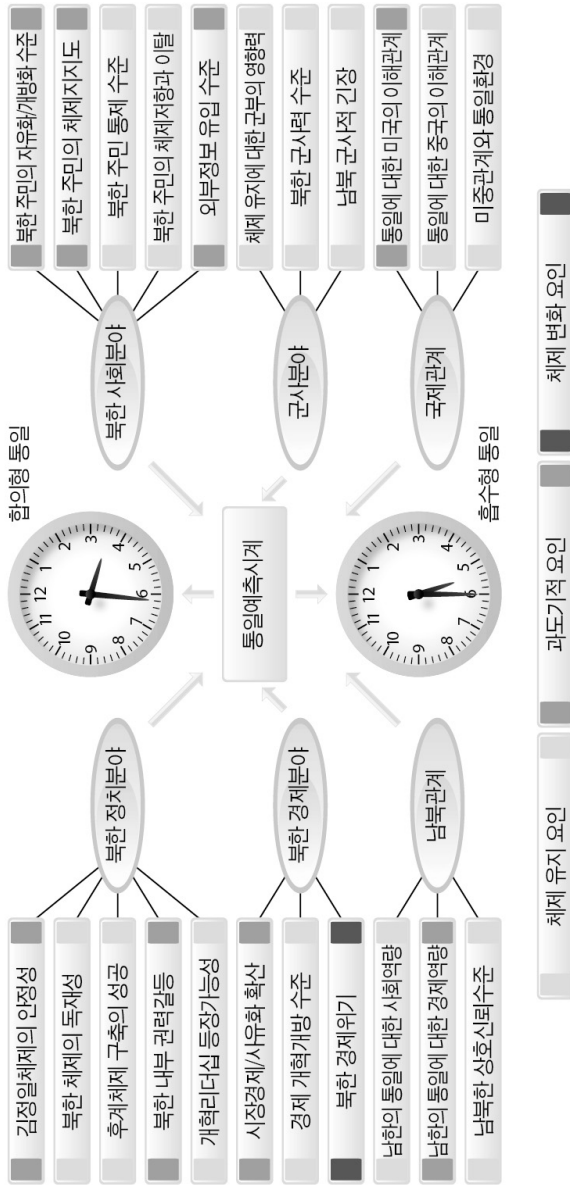
전반적인 남한의 역량과 남북관계에 대해 총 8개의 통일요인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요인간 상호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중 일부를 보면, 남북한의 상호신뢰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남한의 역량 중 사회역량은 아직 낮으나 경제역량은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국제관계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미국이 통일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2010년과 2011년에 시행된 비교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긍정적인 평가이다. 중국의 경우 통일에 대해 비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 신설된 미중관계의 통일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2011년에도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36개 통일요인에 대한 2011년 조사를 요약하면, 경제위기는 매우 강한 체제변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북한 붕괴나 개혁개방으로 귀결되는 체제변화의 결정적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그림 Ⅲ-9> 북한 체제유지 요인과 통일시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 시장경제와 사유화 확산, 북한 주민의 자유화와 개방화에 대한 인식수준, 북한 주민의 체제지지도, 외부정보의 유입,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 남한의 통일에 대한 경제역량 등의 과도기적 요인이 변화과정에 있으며, 이들 요인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진폭 역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I

II

III

IV

V

IV. 2011년 국민여론조사

국민여론조사는 통일과 관련된 일반국민의 평가를 파악하고 이를 텔파이 패널과 비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Research & Research)사에 위탁하였으며, 2011년 10월 13~17일간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로 신뢰수준 $\pm 3.1\%$ 이다. 표본은 지역, 성, 연령을 기준으로 비례할당표집하였으며, 조사방식은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조사(CATI)이다. 특히 2011년 여론조사는 최근 표집오차 축소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채택하였다.

설문지는 2010년 채택된 설문문항을 최소 변경하였다. 2010년 설문문항 작성 시 고려된 사항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비용과 시간문제를 감안하였다. 텔파이 조사 전 문항은 매우 길며 상당한 집중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화설문 방식으로는 어려우며, 대규모 조사원을 동원·교육하여 면밀한 면접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단독연구가 아니며, 통일예측시계의 전문가 패널 조사의 비교집단으로 수행되므로 문항수를 대폭 축소하였다.

설문문항은 2009년 텔파이 조사 사후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통일요인으로 고려된 14개 문항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였다. 선정된 문항은 통상적인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전문성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되도록 짧은 전화통화시간에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문항을 전면 수정하였다. 또한 모든 설문항은 5점 척도로 전환하였으며, 척도의 방향도 전화설문임을 고려하여 역순으로 배치하였다. 여기에 추가로 2개의 문항이 도입되었다. 첫째 문항은 중의적 의미를 가졌던 ‘체제저항과 이탈’을 분리하여 2개 문항으로 증가된 것이며, 두 번째 문항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통일세 문항을 신설하였다.



통일시간을 묻는 질문은 합의형 통일과 흡수형 통일 두 가지 유형만을 조사하였다. 이 때 100점 척도는 10점 척도로 바꾸었다. 이 역시 설문대상의 비전문성과 전화조사임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통상 여론조사에서 척도가 커지면 극단치 답변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여론조사를 통해 통일시계를 측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연속성을 감안하여 2010년과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1. 통일에측시계: 국민여론조사

통일에측시계 12개 분야 중 대국민 여론조사는 전반적인 합의형 및 흡수형 시계만을 조사하였다. 조사방식은 각각 합의형과 흡수형 통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10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합의형 통일과 흡수형 통일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를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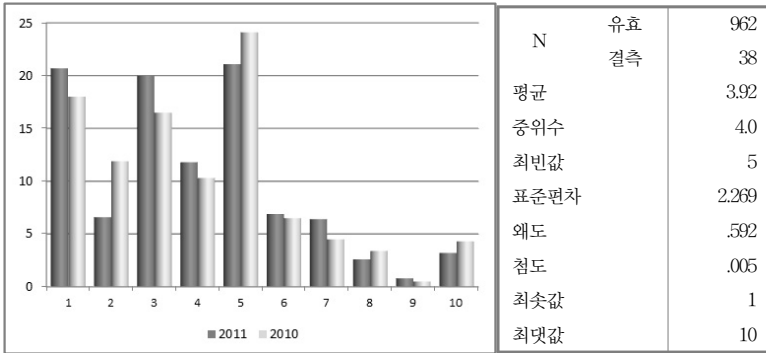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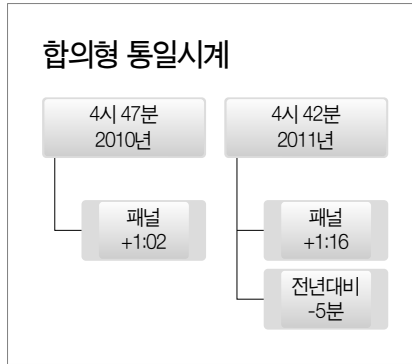
17. 합의형 통일이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변화한 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한이 서로 합의하여 통일을 이루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형 통일이 절대 불가능하고 생각하실 경우를 1, 합의형 통일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실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는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점

18. 흡수형 통일이란 북한이 더 이상 현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되어 남한이 흡수하게 되는 통일을 말합니다. 흡수형 통일에 대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경우를 1, 흡수형 통일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실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는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점

가. 합의형 통일시계



10점 척도로 측정된 합의형 통일시계는 4시 42분으로 평가되었다. 이 시간은 2010년 여론조사의 4시 47분보다 5분 늦으며, 델파이 패널 보다는 1시간 16분 빠르다. 평균은 3.92이며, 가장 많은 답변은 5점이 었다. 응답자 80.1%(이하 유효 퍼센트)가 5점 이하의 점수로 응답하였 다. 여론조사의 특성상 1점과 10점 응답자가 다소 많은 편이다. 1점 응 답자는 199명(20.7%)이며, 10점은 31명(3.2%)이다. 이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cross-tabs)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1점 응 답자에 대한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10점 응답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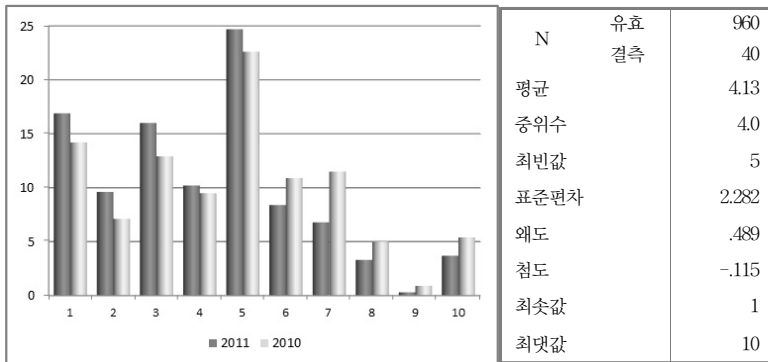
I
II
III
IV
V

경우 몇 가지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합의형 통일시계의 경우 50대와 60대 이상 집단에서 극단치 10점에 상대적으로 많은 답변을 하였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와 무직/기타가 많았다. 또한 학력이 낮아질수록 10점을 부여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소득별로는 150만원 이하 집단과 251~400만원 집단의 빈도가 많았다. 극단치가 많은 또 다른 이유는 설문문항이 전화조사용으로는 매우 길고 어렵다는 점과 일부 응답자가 현재 상황이 아닌 기뻐함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민들의 합의형 통일시계에 대한 평가는 유효하다. 사렛수가 많아 각 항목별 오차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사기법의 변화를 통해 보다 정밀한 측정을 할 필요는 남아 있다.

나. 흡수형 통일시계





흡수형 통일시계는 4시 57분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39분이 뒤로 후진한 것이며, 텔파이 패널의 5시 30분보다는 33분 늦은 시간이다. 2010년 여론조사의 경우 흡수형 통일시계는 텔파이 패널보다 16분 빨랐다.

평균은 4.13이며, 표준편차는 2.282이다. 합의형 통일시계의 평균 3.92와는 0.21의 차이에 불과하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5분이다. 가장 많은 답변은 5점으로 237명(24.7%)이 응답하였다. 5점 이하의 응답은 77.4%이다.

흡수형 통일시계 역시 1점과 10점의 극단치 응답이 많았다. 1점에 162명이, 10점에는 36명이 답하였다. 각각 16.9%와 3.7%에 해당한다. 10점에 대한 응답은 학력과 소득이 낮거나 화이트 칼라와 가정주부에 게 많았으나, 현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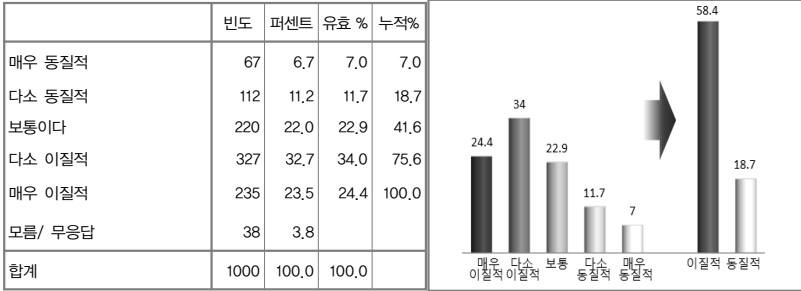
IV

V

2. 통일요인 설문조사: 국민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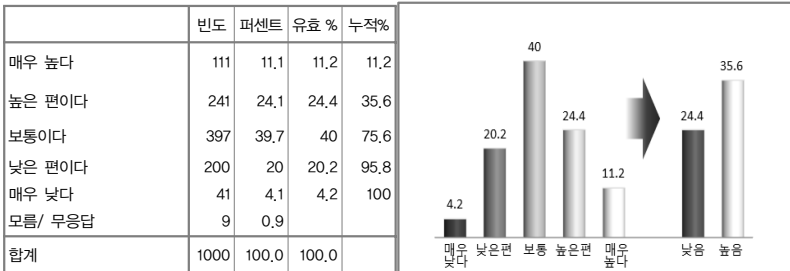
문1. 선생님께서는 남북한 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동질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주민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에 대해 4점 이상의 ‘이질적’이라는 응답이 58.4%(유효 퍼센트), ‘보통’ 22.9%, ‘동질적’ 18.7%로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이다. ‘이질적’이라는 응답은 인천/경기 거주자(63.8%), 대재이상의 학력자(59.8%), 화이트 칼라(64.5%), 월 평균 가구소득이 401만원 이상인 사람들(64.5%)에게 높게 나타났다.

본 문항은 델파이 조사의 문16과 동일하다. 델파이 패널은 동일 문항에 대해 86.3%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사회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각이 현저하게 덜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문2.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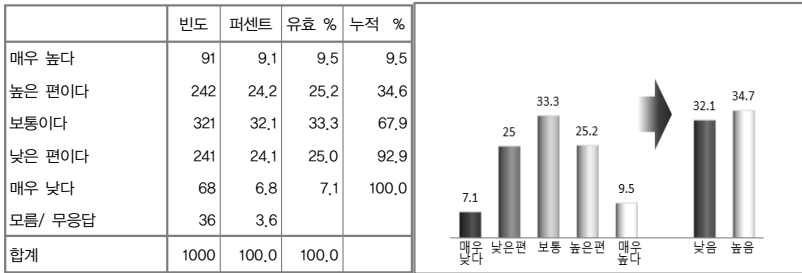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은 ‘높다’ 35.6%(매우 11.2%+높은 편 24.4%), ‘낮은 편’ 24.2%(매우 4.2%+낮은 편 20.2%)로 ‘높다’는 응답이 높았다. ‘높다’는 응답은 광주/전라 거주자(44.8%), 60대 이상(49.9%),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48.7%)에서 높았고, 19세-29세(25.1%), 30대(27.9%), 대재이상의 학력자(30.5%), 학생(24.5%)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 문항은 델파이 조사의 문7을 변형한 것이다. 델파이 패널의 경우 ‘낮다’가 38.8%, ‘높다’가 40%로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즉, 국민여론은 패널보다 통일에 대한 염원이 더 높다고 평가하였다. 2010년 동일문항에 대한 조사와 비교할 때 ‘높다’는 응답이 3.2%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분포는 거의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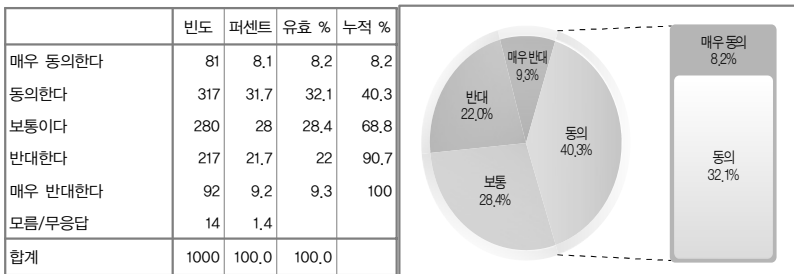
문3. 통일이 될 경우 남한은 통일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한 국민의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 국민들의 통일비용 부담의지에 대해 물어 본 결과 ‘높다’ 34.7%(매우 9.5%+높은 편 25.2%), ‘낮다’ 32.1%(매우 7.1%+낮은 편 25%)로 통일비용 부담의지가 ‘높다’는 응답이 ‘낮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높다’는 응답은 남자(37.8%), 60대 이상(39.9%), 고졸 학력자(38.6%)에서 높았고, 여자(29.0%), 19-29세(24.4%)에서 낮게 나타났다. 2010년도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높다’는 응답은 6.0% 증가하였고, ‘낮다’는 응답은 8.2%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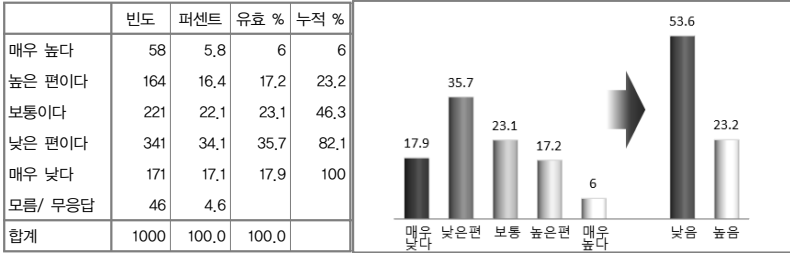
텔파이 조사의 문14와 동일한 문항으로, 패널은 이에 대해 ‘높다’ 21.3%, ‘낮다’ 67.5%였다. 패널이 판단하는 일반국민의 통일비용 부담 의지에 대한 평가는 여론조사 결과와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문4. 통일 비용 준비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통일세를 걷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문항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일세 논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1년 여론조사에 도입되었다. 통일 비용 준비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통일세를 걷는 것에 대해 ‘동의’ 40.3% (매우 8.2%+동의하는 편 32.1%), ‘비동의’ 31.3%(매우 9.3%+반대하는 편 22%)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남자 (44.6%), 60대 이상(51.0%)에서 높았고, 19-29세 및 30대의 경우(각각 37.5%, 37.1%) 반대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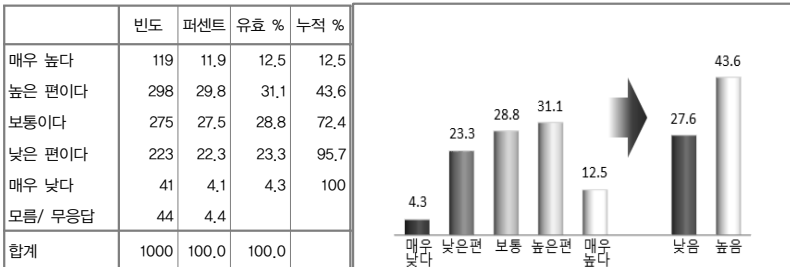
문5. 북한이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23.2%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53.6%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낮다’는 응답은 30대(57.7%), 대재 이상의 학력(54.8%), 자영업(60.7%), 251-400만원 가구 소득자(56.8%)에서 높았다. 2010년도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높다’는 응답은 2.8% 증가하였고, ‘낮다’는 응답은 3.2% 감소하였다.

텔파이 조사에서 동 문항은 문13으로 패널은 5.1%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89.9%가 ‘낮다’고 하였다. 패널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극도로 부정적인 것에 반해, 국민은 상대적으로 다수가 개혁개방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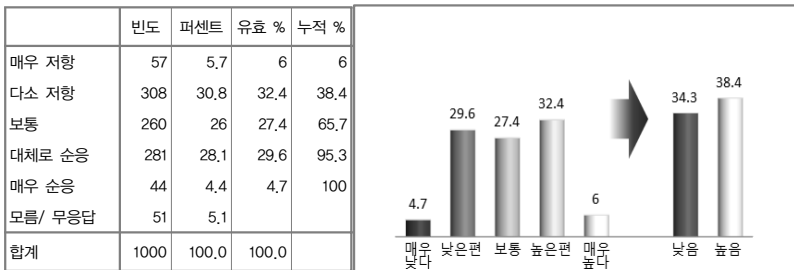
문6. 현재 북한은 김정일의 아들 김정원이 뒤를 잇는 후계체제 승계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후계체제 구축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높다’ 43.6%(매우 12.5%+높은 편 31.1%), ‘낮다’ 27.6%(매우 4.3%+낮은 편 22.3%)로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19-29세(48.7%), 대재이상의 학력자(44.6%), 월 평균 가구소득 401만원 이상(46.6%)에서 높았고, 50대 및 60대 이상(각각 34.8%, 32.1%), 월 평균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33.1%)에서 낮게 나타났다.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은 델파이 조사의 문1과 동일한 문항이다. 패널은 70.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일반 국민보다 후계체제 성공을 높게 평가하였다.

문7. 북한 주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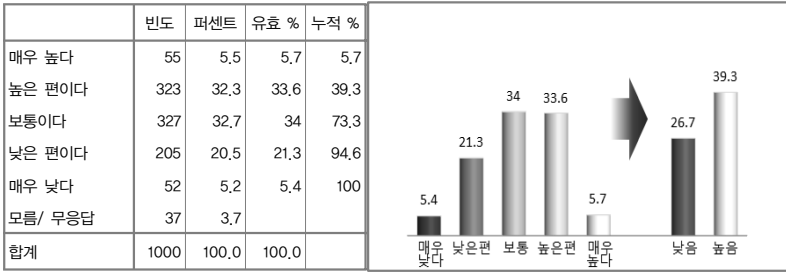


북한 주민의 체제에 대한 저항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저항하는 편’ 38.4%(매우 6%+어느 정도 32.4%), ‘순응하는 편’ 34.3%(매우 4.7%+대체로 32.4%)로 ‘저항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항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출신지가 부산/울산/경남인 사람들(43.5%)에서 높았고, ‘순응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자영업자(40.7%), 월 평균 가구소득 151-250만원 이하(44.6%)에서 높았다.

북한 주민들의 체제저항은 델파이 조사의 문22를 분리한 것이다. 패

널의 67.5%가 체제저항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여론조사의 경우 저항과 순응이 쌍봉형 분포에 가깝게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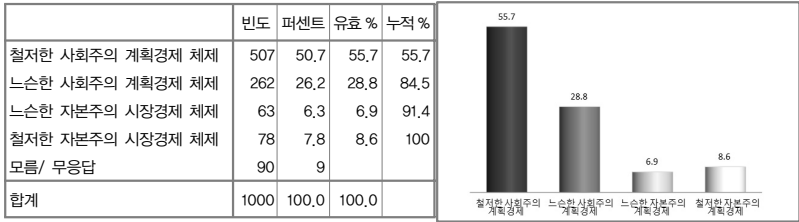
문8. 북한 주민의 체제이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주민의 체제 이탈 수준에 대해 ‘높다’ 39.3%(매우 5.7%+높은 편 33.6%), ‘낮다’ 26.7%(매우 5.4%+낮은 편 21.3%)로 체제 저항이 ‘높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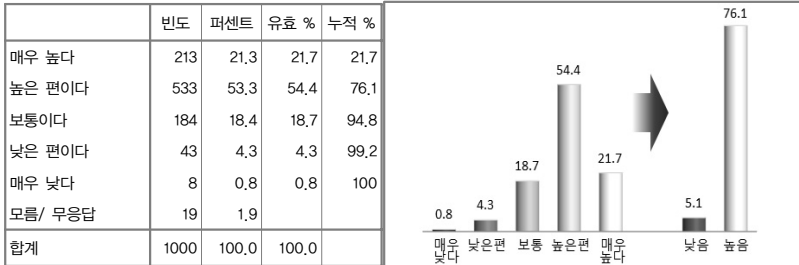
동 문항은 델파이 조사의 문22를 분리한 것으로, 국민여론은 패널보다 체제이탈 수준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또한 이탈을 체제저항보다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본 문항에 대한 여론조사가 타당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중적 의미를 가진 델파이 조사의 문22에 대한 문항분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9. 현 북한 경제체제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북한 경제체제 성격에 대해 ‘철저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55.7%로 가장 높았고, ‘느슨한 사회주의 계획경제’(28.8%),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8.6%), ‘느슨한 자본주의 시장경제’(6.9%)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응답자 특성이 없으며, 2011년과도 거의 동일한 답변 분포이다. 본 문항은 텔파이 조사의 문12에 해당한다.

문10.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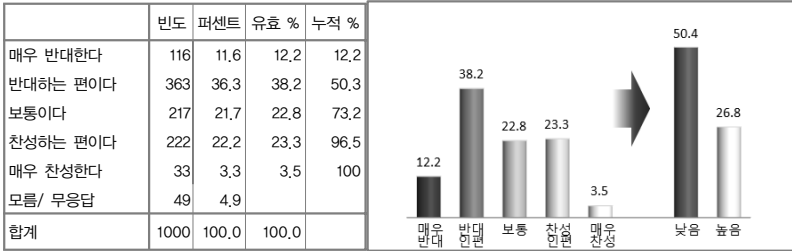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관계 수준은 ‘높다’ 76.1%(매우 21.7%+높은 편 54.4%), ‘낮은 편’ 5.1%(매우 0.8%+낮은 편 4.3%)로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다’는 응답이 4.3% 감소하였으며, 특히 ‘매우 높다’는 응답은 10.1% 감소한 반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6.5% 증가하여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기는 하지만 그 강도는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I
- II
- III
- IV
- V

텔파이 조사에서 동 문항은 문25로 패널의 82.6%가 군사적 긴장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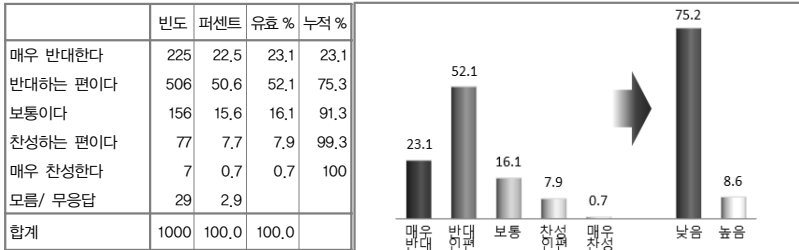
문11. 만일 남북통일이 임박했다고 할 경우 미국은 통일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남북통일에 대해 ‘찬성’ ‘반대’ 할 것인지에 대해 ‘반대’ 50.4% (매우 12.2%+반대하는 편 38.2%), ‘찬성’ 26.8%(매우 3.5%+찬성하는 편 23.3%)로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미국이 남북통일에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은 19-29세(64.6%), 30대(58.2%)에서 낮은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찬성할 것이라는 응답이 44.4%다른 응답자 특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동 문항은 텔파이 조사 문31번을 변형한 것이다. 텔파이 패널은 미국의 역할에 대해 56.2%가 우호적이라고 답변하였다. 패널과 여론조사의 결과가 정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문12. 만일 남북통일이 임박했다고 할 경우 중국은 한국의 통일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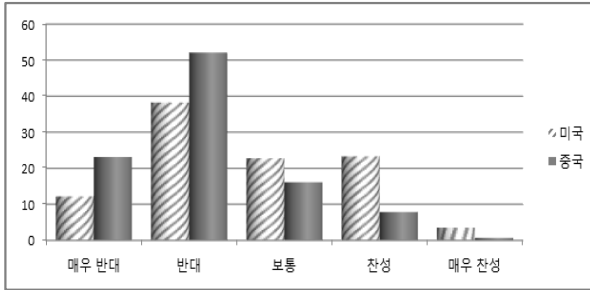
남북통일에 대해 ‘찬성’ ‘반대’ 할 것인지에 대해 ‘반대’ 75.2%(매우 23.1%+반대하는 편 52.1%), ‘찬성’ 8.6%(매우 0.7%+찬성하는 편 7.9%)로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10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매우 반대 할 것’이라는 응답이 5.9% 줄어든 반면 ‘반대하는 편’ 일 것이라는 응답은 5.9% 증가하여 중국이 남북통일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의 강도는 다소 낮아졌다.

중국의 통일에 대한 역할은 델파이 조사의 문30과 동일한 문항이다. 패널은 73.8%가 ‘비우호적일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이는 여론조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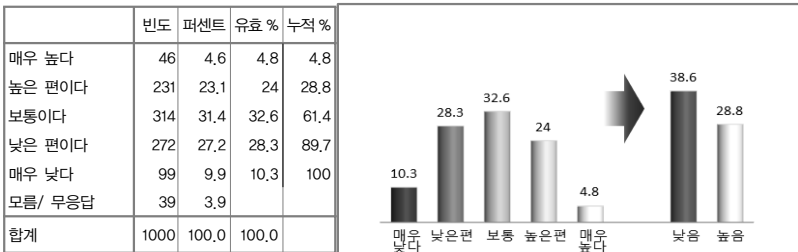
한편, 미국의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와 델파이 패널이 불일치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중국이 통일에 더 반대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두 국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그림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즉, ‘찬성하는 편’의 경우 미국은 23.3%인데 반해 중국은 7.9%로 거의 세 배 가량 미국의 통일 역할에 대한 찬성이 많다. 반면, ‘반대하는 편’의 경우 중국은 52.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작은 38.2%에 불과하다. 5점 척도상 미국과 중국의 평균은 각각 2.68과 2.11로 두 문항 모두 중간점인 3점

I
II
III
IV
V

보다 작은 2점대에 머물고 있어 국민이 보는 양국의 통일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평균이 0.57 낮아 중국에 대해 더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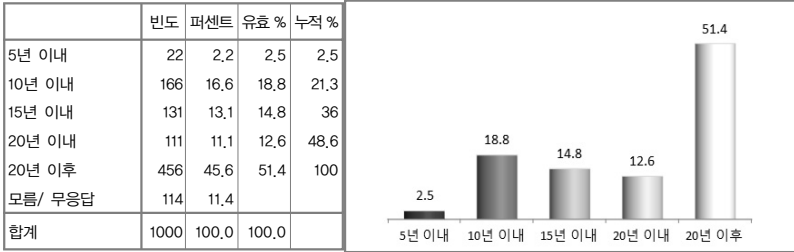


문13. 북한이 더 유지되지 못하고 남한이 북한을 흡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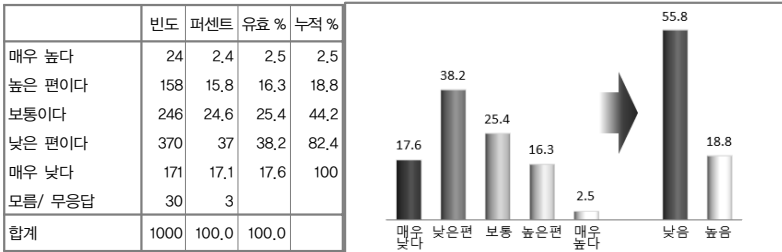
이 문항은 아래 문13-1과 함께 흡수형 통일시계의 비교문항으로 만든 것이다. 남한이 북한 흡수할 가능성에 대해 '높다' 28.8%(매우 4.8%+높은 편 24%), '낮다' 38.6%(매우 10.3%+낮은 편 28.3%)로 '낮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흡수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19-29세(44.9%), 학생(45.6%)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높다'는 응답은 4.7% 감소하였고, '낮다'는 응답은 4.1% 증가하였다.

문13-1. 그럼, 이러한 흡수형 통일이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흡수통일 시기에 대해 ‘20년 이후’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았고, ‘5년 이내’라는 응답이 2.2%로 가장 낮았다. 2010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20년 이후’라는 응답이 6.6% 증가하였고, ‘10년 이내’라는 응답은 4.2%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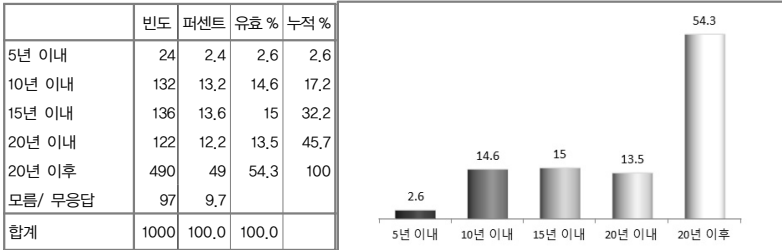
문14.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체제 변화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합의형 통일시계의 비교문항으로 만든 것이다. 합의형 통일의 중요한 전제조건인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을 질문했으며, 아래 문14-1에는 그 시기를 문의하였다.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에 대해 ‘높다’ 18.3%(매우 2.5%+높은 편 15.8%), ‘낮다’ 54.1%(매우 17.1%+낮은 편 37.0%)로 ‘낮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10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높다’는 응답 비율은 1.4% 감소하였고, ‘낮다’는 응답은 1.6% 증가하였으며, ‘보통’ 응답이 2.8%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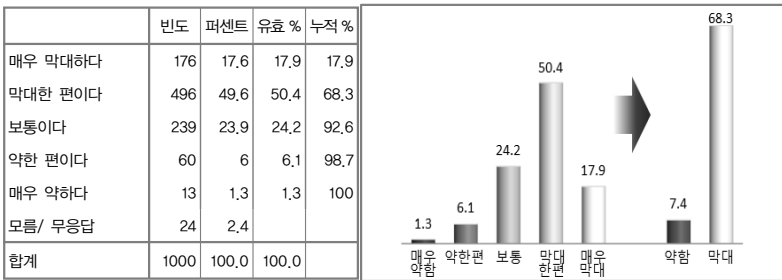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문14-1. 북한이 체제변화를 하면 남북한이 합의하에 통일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인
 니다. 그럼, 이러한 합의형 통일이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합의형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도 ‘20년 이후’가 54.3%로 가장 많았다. ‘10년, 15년, 20년 이내’에 대한 응답은 큰 차별이 없다. 2010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20년 이후’라는 응답은 6.9% 증가하고, ‘10년 이내’는 5.5%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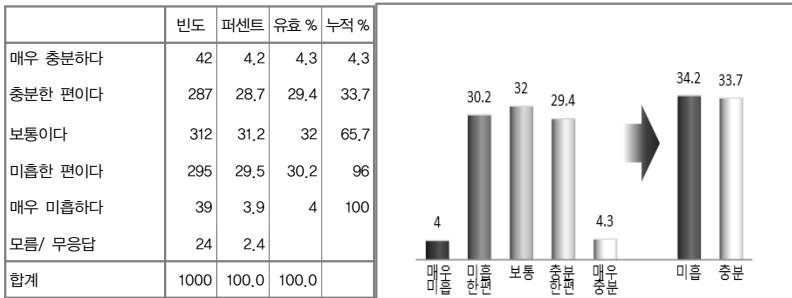
문15. 북한의 군사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군사력 수준과 관련해 ‘강함’ 68.3%(매우 17.9%+막대한 편 50.4%), ‘약함’ 7.4%(매우 1.3%+약한 편 6.1%)로 ‘강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강하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여성(71.9%), 60대 이상(76.0%)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0년도 조사와 거의 차이가 없다.

북한의 군사력 수준은 델파이 조사의 문28에 해당하는 질문이다. 패넬은 66.3%가 북한의 군사력 수준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문16. 그럼, 현재 남한의 군사력 수준이 북한에 대응하기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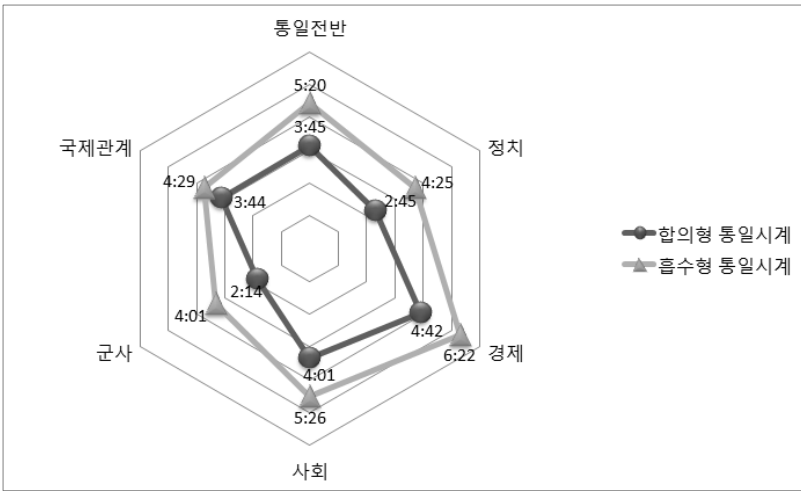
남한의 군사력 수준과 관련해 ‘충분’ 33.7%(매우 4.3%+충분한 편 29.4%), ‘미흡’ 34.2%(매우 4%+미흡한 편 30.2%)로 ‘충분하다’는 의견과 ‘미흡하다’는 의견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분하다’는 의견은 광주/전라 거주자(47.8%), 60대 이상(41.5%)에서 높았고 ‘미흡하다’는 응답은 19-29세(41.1%), 월 평균 가구소득 151-250만원(41.8%)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조사와 비교할 때 ‘충분하다’는 응답은 11.8% 감소한 반면 ‘미흡하다’는 응답은 9.3% 증가하였다.

동 문항은 델파이 조사의 문27에 해당한다. 델파이 패넬은 전반적으로 남한의 대북태세에 대해 76.3%가 충분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여론 조사와 상당히 대조적인 평가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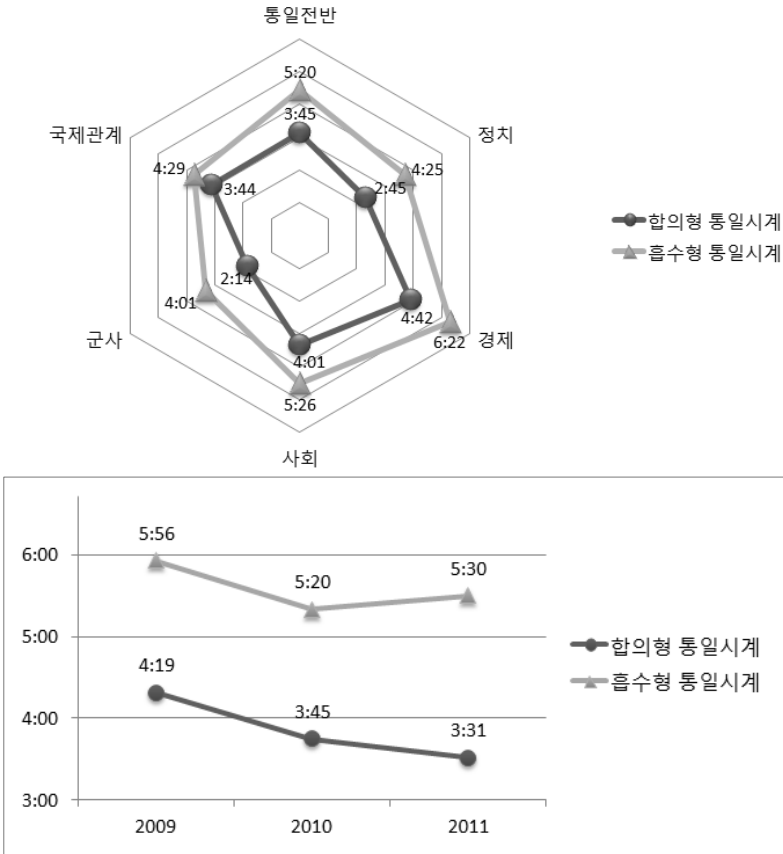
V. 결론

2011년 통일예측시계 구축 사업의 주요 특징은 우선 기존 51명의 델파이 패널을 80명으로 확대한 데 있다. 패널 수 증가는 작은 사렛수로 인한 극단치의 과잉 반응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2010년 개선된 델파이 기법과 통일요인 설문조사를 과도한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통일예측시계가 장기적인 한반도 통일 환경을 측정하고 통일결정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인 통일지수의 정착을 위해 의도된 것이다. 각 시계변수의 도출과정을 고정된 조건에서 장기적으로 반복 측정할 경우 해당 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림 V-1> 2011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패널



<그림 V-2> 통일예측시계의 변화: 2009-2011



또한 2011년에는 2010년의 연속선상에서 국민들의 통일인식과 통일시각 예측을 전문가 집단과 비교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다. 여론조사는 전문가 패널의 델파이 조사와는 달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화여론조사라는 한계로 인해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계와 합의형 통일시계 2개와 16개의 문항만을 포함하였다. 여론조사의 통일시계 척도는 10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통일요인은 5점 척도로 축소되었다.

○ 합의형 통일

종합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 관계	여론 조사
3:31	2:40	4:48	4:07	2:11	3:35	4:42
전년 -0:14	전년 -0:05	전년 +0:06	전년 +0:06	전년 -0:03	전년 -0:09	전년 -0:05

합의형 통일에 대해 델파이 패널은 2010년 조사보다 14분 늦춰진 3시 31분으로 평가하였다. 나머지 하위 5개 분야의 합의형 통일시계는 3분에서 9분 증감이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전년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여론조사는 4시 42분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2011년 전문가 패널의 3시 31분보다 1시간 11분 통일에 근접한 시간이다. 2010년 여론조사에서도 합의형 통일시계는 델파이 패널보다 1시간 2분 빠른 것으로 측정된 바 있다. 즉, 델파이 패널의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에 대한 평가가 일반 국민보다 현저하게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흡수형 통일

종합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 관계	여론 조사
5:30	4:38	6:35	5:35	3:46	4:53	4:57
전년 +0:10	전년 +0:13	전년 +0:13	전년 +0:09	전년 -0:15	전년 +0:24	전년 -0:39

6개의 합의형 통일시계 중 4개의 통일시계가 미세하나마 후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흡수형 통일시계는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흡



수형 통일시계 중 군사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통일시계가 모두 9분에서 24분의 범위에서 통일에 더 가까워진 것이다.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시계는 전년대비 10분 통일에 가까워진 5시 30분으로 계산되었다. 특히 국제관계 분야의 경우 24분이 더 빨라져 12개 통일시계 중 가장 큰 연간변화량을 기록하였다.

여론조사의 경우 4시 57분으로 2010년 여론조사의 5시 36분보다 39분 후진하였다. 이 때문에 델파이 패널의 5시 30분과는 33분의 격차를 갖게 되었다. 또한 국민여론의 합의형 통일시간인 4시 42분과 불과 15분 차이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파이 패널의 각 통일시계가 2010년의 시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지난 1년간 12개 분야의 통일 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또한 2010년과 2011년의 시간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오차 범위 이내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합의형 통일시계의 4개 분야가 후진하고, 흡수형 통일시계의 5개 분야가 전진했다는 사실은 그 변화의 수준이 크지 않더라도 미세하나마 합의형 통일시계의 후진과 흡수형 통일시계의 전진이라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전문가 패널과 일반 국민 모두 흡수형 통일의 시간이 합의형 통일의 시간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의 경우 2시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일반 국민의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패널이 흡수형 통일의 시간을 합의형 통일의 시간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특히 북한체제의 변동요인에 대한 관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계는 북한체제의 변동요인을 비롯하여 본 연구에

서 파악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처럼 통일의 가능성을 보다 엄밀하게 예측하고 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

II

III

IV

V

참고문헌

박영호·김지희. 『통일예측시계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2009.

박영호·김형기. 『2010년 통일예측시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0.

Dipak Gupta, “An Early Warning About Forecasts: Oracle to Academics,” S. Schmeidl & H. Adelman (eds.) *Synergy in Early Warning Conference Proceedings*. Toronto: 1997.

부록

1. 2011년 전문가 통일예측시계 델파이 조사 요약

연	통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형	흡수형	합의형2	흡수형2	합의형3	흡수형3	합의형4	흡수형4	합의형5	흡수형5	합의형6	흡수형6
1	34	53	25	40	65	80	35	50	15	40	30	55
2	25	40	25	25	30	40	35	40	15	20	35	30
3	25	32	18	23	35	42	23	27	15	20	24	31
4	80	90	80	90	80	90	80	90	80	90	80	90
5	20	27	10	20	40	50	30	40	5	10	20	15
6	35	35	10	25	40	35	25	25	15	15	20	25
7	30	30	25	30	35	40	40	20	20	20	38	30
8	25	55	25	55	30	70	25	70	20	40	40	50
9	55	80	40	70	60	90	70	70	30	80	50	90
10	10	60	1	20	5	20	3	10	0	5	1	5
11	80	40	75	45	85	45	85	40	75	35	85	30
12	40	60	20	60	60	80	60	60	30	50	60	60
13	40	30	40	30	60	50	50	20	20	20	30	30
14	20	50	20	50	40	60	30	40	20	40	40	60
15	23	35	20	30	29	45	25	35	15	20	19	25
16	55	60	40	50	60	70	65	70	40	50	55	55
17	20	45	15	40	30	50	30	40	15	30	25	30
18	17	27	17	30	20	30	20	25	15	25	15	25
19	20	45	20	40	45	70	30	50	10	30	30	55
20	5	3	1	1	10	5	10	5	1	1	8	6
21	10	70	10	70	30	80	20	70	10	60	20	70
22	15	30	15	25	25	45	20	35	5	10	15	20
23	1	10	0	0	5	30	0	20	0	0	0	0
24	25	55	20	50	40	70	30	60	20	40	25	50
25	20	25	10	20	30	40	20	30	10	10	20	20
26	50	63	30	50	70	80	80	85	30	40	40	60
27	10	20	15	15	20	30	15	20	5	10	10	10
28	20	30	15	35	25	35	25	35	15	20	15	20
29	20	65	10	80	50	70	50	50	10	60	15	50

연	통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 형	흡수 형	합의 형2	흡수 형2	합의 형3	흡수 형3	합의 형4	흡수 형4	합의 형5	흡수 형5	합의 형6	흡수 형6
30	45	68	40	72	60	75	55	70	38	60	50	60
31	25	25	20	20	20	25	30	30	10	20	20	25
32	20	25	10	20	30	40	20	30	10	10	20	10
33	25	60	25	50	50	60	35	60	25	30	30	40
34	25	40	10	20	40	60	20	30	0	10	30	40
35	30	50	20	60	40	70	35	40	10	30	30	50
36	25	41	20	40	30	45	26	43	20	37	27	41
37	20	60	10	65	30	60	20	65	5	55	25	55
38	30	51	20	55	30	60	20	60	20	45	30	45
39	25	50	15	35	35	55	30	45	10	25	30	30
40	35	35	30	30	40	40	30	30	20	20	30	30
41	40	50	30	40	50	60	45	60	25	40	50	50
42	30	40	20	20	60	60	60	60	10	50	20	30
43	25	60	25	60	30	70	30	70	15	50	25	50
44	32	41	25	35	30	40	40	55	20	20	45	53
45	45	55	35	50	55	60	50	60	35	40	40	50
46	10	30	5	20	20	50	15	30	2	10	10	30
47	25	75	20	55	27	90	50	90	20	55	35	60
48	25	55	27	55	30	60	23	45	10	50	30	60
49	46	48	40	45	55	55	45	50	35	40	50	50
50	30	40	20	40	40	50	40	40	20	30	40	40
51	30	55	20	30	50	60	30	50	20	30	20	60
52	50	50	40	40	60	60	50	50	50	50	50	50
53	35	75	30	60	50	80	35	80	26	60	30	75
54	50	60	5	20	20	20	20	10	0	0	5	10
55	10	35	5	20	35	35	5	35	5	10	5	10
56	30	55	20	45	40	75	40	70	20	30	30	55
57	10	40	5	30	15	60	15	50	2	30	5	25
58	60	70	50	50	70	80	60	70	40	70	70	80

연	통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	
	합의 형	흡수 형	합의 형2	흡수 형2	합의 형3	흡수 형3	합의 형4	흡수 형4	합의 형5	흡수 형5	합의 형6	흡수 형6
59	40	45	30	30	55	60	40	50	20	20	30	30
60	15	15	15	15	20	20	10	10	10	10	20	20
61	25	70	25	60	30	80	35	80	10	50	35	50
62	25	45	20	40	60	70	30	40	10	40	20	40
63	25	35	20	30	30	45	40	45	15	30	20	45
64	27	29	25	25	35	35	35	40	20	20	20	25
65	15	25	5	5	55	65	50	60	5	5	15	15
66	20	20	15	15	25	20	20	20	15	10	15	15
67	35	70	20	20	70	90	50	75	20	20	50	75
68	32	49	25	45	40	60	35	50	20	40	40	50
69	24	55	20	65	40	80	30	70	20	55	30	30
70	25	80	20	80	30	90	25	70	10	60	40	90
71	40	50	45	60	40	50	45	40	30	40	40	60
72	40	25	25	15	60	40	50	30	20	10	35	25
73	30	65	20	45	50	75	45	70	30	45	35	55
74	25	35	25	35	35	40	25	35	15	30	30	40
75	30	65	20	55	45	75	30	70	10	40	20	60
76	40	60	40	60	60	70	45	60	30	30	50	50
77	25	35	20	30	30	40	30	40	15	30	30	40
78	20	30	0	0	10	10	5	10	0	0	5	10
79	20	30	10	40	30	50	25	20	5	10	20	40
80	45	26	40	23	49	28	39	25	38	22	45	26
합계	2341	3663	1779	3094	3195	4390	2744	3720	1452	2515	2392	3252
평균	29.26	45.78	22.24	38.68	39.94	54.88	34.30	46.50	18.15	31.44	29.90	40.65
표준편차	14.46	17.64	14.12	19.42	16.94	20.31	17.26	20.50	14.34	19.34	16.47	20.65
중간값	25.00	45.00	20.00	40.00	40.00	60.00	30.00	45.00	15.00	30.00	30.00	40.00
최댓값	80.00	90.00	80.00	90.00	85.00	90.00	85.00	90.00	80.00	90.00	85.00	90.00
최솟값	1.00	3.00	0.00	0.00	5.00	5.00	0.00	5.00	0.00	0.00	0.00	0.00
분 환산	211	330	160	278	288	395	247	335	131	226	215	293
시계 환산	3:31	5:30	2:40	4:38	4:48	6:35	4:07	5:35	2:11	3:46	3:35	4:53

2. 2011년 텔파이조사 설문지

2011년 통일예측시계 텔파이조사

기간: 2011년 6월 7-17일

대상: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명

조사자: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기(통일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위원)

연락처: 김형기 연구위원 02)901-2601, frankykim@kinu.or.kr

문보배 연구위원 02)901-2556, bobae@kinu.or.kr

안 내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통일예측시계” 프로젝트팀에서 시행하는 이번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답변과 인적사항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빠진 문항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은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일예측시계

적절한 점수를 괄호 안에 넣어 주십시오.

2. 설문조사

9점 척도표 상자 안에 “o” 또는 “v”표를 넣어 주십시오.

3. 개방형 질문

분량에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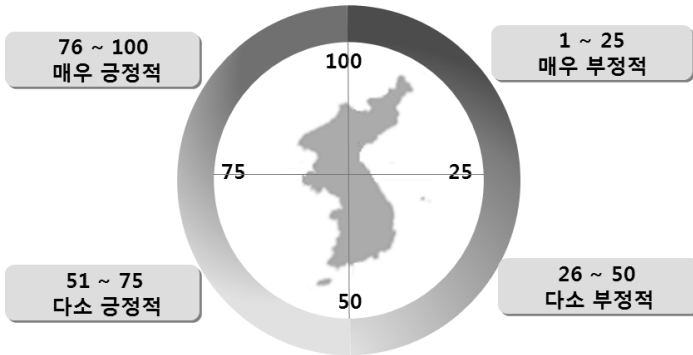
※ 작성 후 저장하신 뒤 위 메일주소로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 답변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엄격히 보호됩니다.

1. 통일예측시계

가. 합의형 통일시계

아래 그림을 보시면 1부터 100까지 표시된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평화적 남북관계 개선과 점진적 통일이 이뤄지는 시기, 즉, 합의형 통일이 이뤄지는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합의형 통일이 이뤄지는 시점을 100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즉, 몇 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합의형 통일이 매우 어렵고 아주 먼 미래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경우 1점에서 50점을, 합의형 통일이 가능하고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이라면 51점에서 100점을 주시면 됩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합의형 통일은 가능하며 가까운 미래에 달성된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시) 정치적 측면 (합의형): (50) 점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1) 합의형 통일점수: () 점

그렇다면, 각 분야의 합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2) 정치적 측면 (합의형): () 점

(3) 경제적 측면 (합의형):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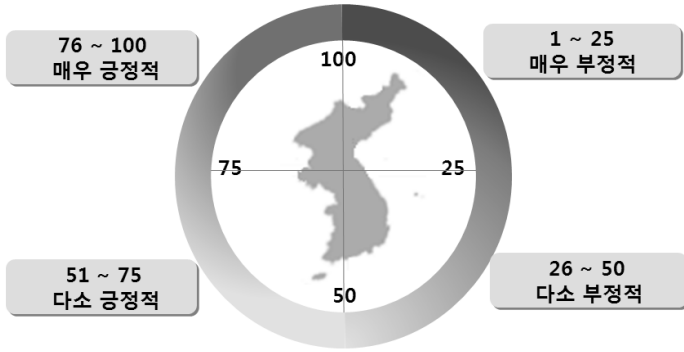
(4) 사회적 측면 (합의형): () 점

(5) 군사적 측면 (합의형): () 점

(6) 국제관계 측면 (합의형): () 점

나. 흡수형 통일시계

아래의 시계는 흡수형 통일시계입니다. 흡수형 통일이란 북한이 남한체제에 흡수되면서 통일이 이뤄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흡수형 통일이 이뤄지는 시점을 100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즉, 몇 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흡수형 통일이 매우 어렵고 아주 먼 미래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경우 1점에서 50점을, 합의형 통일이 가능하고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이라면 51점에서 100점을 주시면 됩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흡수형 통일의 가능성이 높으며 가까운 미래에 달성된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시) 정치적 측면 (흡수형): (50) 점

전반적인 흡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1) 흡수형 통일점수: () 점

그렇다면, 각 분야별 흡수형 통일점수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2) 정치적 측면 (흡수형): () 점

(3) 경제적 측면 (흡수형): () 점

(4) 사회적 측면 (흡수형): () 점

(5) 군사적 측면 (흡수형): () 점

(6) 국제관계 측면 (흡수형): () 점

2. 통일예측시계 설문항

아래는 통일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1점에서 9점 중 선생님의 평가를 9점 척도표 상자안에 “O” 나 “√” 표로 표시해 주십시오.

문1. 북한의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 현재의 북한체제를 전체주의독재체제(1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주의독재체제 자유민주주의체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 현재의 김정일 체제가 매우 불안정적이다(1점)에서부터 매우 안정적이다(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실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안정적 매우 안정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4. 북한 내부의 권력갈등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전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5. 현재 북한지도부의 평화통일의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6. 북한에 개혁지도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아주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7.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대단히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8. 통일을 위한 남한의 사회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9. 통일에 대비한 남한의 경제적 역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0. 현재의 남북한 경제협력의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미미하다

아주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1. 북한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아주 극심한 위기상황이다

전혀 위기상황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2. 현재의 북한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회주의계획경제

자본주의시장경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3.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개방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4. 남한국민의 통일비용부담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아주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5. 통일에 대한 남한국민의 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아주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6.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이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함

매우 잘 이해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7. 현재 남북한 당국 간의 상호신뢰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8. 북한의 주민통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약하다

매우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9. 북한주민들의 자유화개병화에 대한 의식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전혀 없다

매우 변화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0.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적 요소와 사유화가 얼마나 확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확산되지 않았다

매우 확산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1.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2. 북한 주민들의 체제저항과 이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3. 북한에 외부정보가 어느 정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4.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5. 현재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6. 북한 체제유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7. 남한의 대북태세(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8. 북한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29. 북한 핵문제와 관련,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1점)에서부터 포기할 것이다(9점)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0.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매우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1.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매우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2.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매우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3.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매우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매우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5.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불리하다

매우 유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36. 북한의 국제적 고립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고립되었다

전혀 고립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개방형 질문

아래는 통일예측시계와 관련된 개방형 질문입니다. 향후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오니 누락된 항목 없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 향후 1-2년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만한 북한 내부의 정세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향후 1-2년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향후 1-2년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모든 문항을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부한 군사·정치적 요인 (127)	정치적 리더십 (98)	후계구도 정치화(46)	안정적인 후계체제 구축, 후계체제의 조기 인차, 후계체제 공고화, 후계 권력구조 개편 불안정 가능성, 후계체제 안정성, 감정은 후계구도 인차, 후계과정을 둘러싼 내부 혼란의 기증, 후계자 승계의 진전
		권력갈등(13)	권력투쟁의 가능성, 권력엘리트 분열 여부, 권력경합으로 인한 승정, 내부 권력투쟁(승정), 권력임투 갈등 심화 부한 내부의 권력 투쟁 권력 이양과정에 수반되는 세력파, 세력교체에 의한 갈등, 내부 권력 투쟁 양상(장상택 의 깃메이커 역할), 지배 엘리트 간의 균열과 폭력적 경쟁, 권력엘리트의 통합 정도, 노동당과 군부의 갈등, 내부권력관계 변화, 내부권력관계 변화
	핵 군사 관련(7)	추가 핵실험 등 모험주의적 도발행도 여부, 3차 핵실험, 핵무장과 핵 도발 지속, 핵 문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핵에 대한 강력한 보유 의지, 핵문제, 대남 군사 포함주의	
부한 경제요인(37)	경제난·경제회복여부(28)	대외관계(5)	외부로 향한 강경책, 남북관계 추이, 대외적 자원과 투자, 대외관계 개선 대남 강경 노선 강화 예산
			민성적 경제난, 경제위기 지속, 경제난 지속, 주민생활의 개선 정도, 주민생활의 조기 개선 여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변화, 북한 경제의 인화, 경제상황, 심각한 경제난 경제 활성화 여부, 식량난의 전개방향, 경제난 경제난 완화 여부, 경제회복 경제지인 활성화,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위기 상황문제 식량난, 식량문제의 개선여부, 식량사정을 비롯한 경제상황, 경제상황(식량문제, 경제부문의 실질 적 성과, 극심한 경제난 경제모관실패, 경제사회적 난관, 경제난, 경제상황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 (시장요소 확산)(9)	북·중 경쟁사업의 진척도, 시장화 확산, 북한의 시장화, 시장 활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식변화, 북·중경협의 성과, 북·중경협업의 신화, 북·중관계 강화, 중국과의 경쟁, 자본주의 경제체제 확산	
부한 사회요인(16)	사회 의식 (10)	북한주민의 불만(7)	주민들의 높아진 권리 의식으로 내부적 불안정, 주민들의 의식변화, 북한 사회의 일탈, 각종 범죄 확산,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행위변화 양태, 권력타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감정은 체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 확산
		사회통합(3)	주민의 수용도, 북한 주민의 감정은 장래에 대한 충성 또는 이탈 및 저항 정도, 주민들의 체제 충성심 약화 가능성
	외부정보 유입(6)	외부 정보의 유입, 외부정보 확산, 외부 정보유입, 이명박 정부의 외부정보 주입 노력, IT와 관련한 소통매체 유입, 휴대폰 보급 확대 및 전자기기 통한 외부 정보 유입	

나. 국제정세변화

국제정세요인 (148)	미국 (33)	미중관계(26)	새로운 미중협조관계 협조체제 유지, 미중관계의 변화, 미중 협력과 갈등의 정도, 미-중간 협력관계 증진 여부(2자회담, 동북아 주변국 문제 증대이슈, 군사적 갈등 문제 등), 미중관계, 미중관계의 변화, 미중 지도층은 변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 미중간의 갈등 심화, 미중관계의 변화, 미중관계 변화, 미중관계(미국은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 중국과 미국의 관계의 변화 가능성, 미중관계, 미중관계, 미중간 협력과 갈등관계, 미중관계, 미중관계, 미중관계의 전개양상, 미중관계, 미중관계 질적 변화 가능성, 미중관계의 향상, 중-미관계, 미중 2체제 부상과 이들의 동북아 역내 주도권 경쟁,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 경쟁
		미국 (33)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특히 중국에 따른 전략 재점검, 2012년 대선, 오바마 정부 연임 여부, 2012년 미국 대선 결과(오바마의 재선 여부), 미국의 대선, 미국의 신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 오바마 행정부의 UEP 문제 해결, 미국의 국가정책, 미국의 경제사정,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 미국의 지도부 및 정책 변화, 미국의 대선, 2012년 미국 대선, 미국 대선, 2012 미국대선
	중국 (36)	대북정책 변화 여부, 미국의 대북정책 6자회담, 진진 관련 북미관계 발전, 북미대화의 시작 여부, 북미관계의 개선, 대북정책, 대북 정책 변화, 대북정책 기조, 북미관계, 대북정책, 미국의 대북 대응, 정책, 미국의 대북정책, 미국의 정책, 북미 고위급회담 재개 여부, 대미 관계 개선 및 국교 정상화 의지	
		대내외 정책-상황 (18)	경제와 민족문제 우선 해결 시급, 중국의 민주화 정도, 중국 경제성장 둔화, 정치적 불안정 등, 중국의 외교전략의 방향 변화 여부, 2012년 중국의 차세대 지도부 등장, 중국의 민주화, 중국의 리더십 교체, 시진핑 체제로의 중국의 권력이동, 중국의 태도, 중국의 국가정책, 중국 지도부 및 정책 변화, 중국의 국내외 상황,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및 반발, 중국의 지도체제 유지, 중국 신 지도부의 인식 변화 가능성, 중국의 새 지도부 등장,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중국 지도부 교체
		대내외 정책-상황 (19)	북한문제에 적극적 개입, 중국의 대북정책, 북중정협의 심화와 북중 정치, 군사적 협력의 강화 지속 여부, 중국의 대북정책, 대남도발에 민감한 반응 보일 것, 북중경제협력, 중국의 대북정책, 정치경제적 협력관계 확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장(중국식 개혁과 개방, 요구 강화), 북중정협 실현, 중국의 정치투개방신도구역에
		북중관계(16)	

<p>국제장세요인 (148)</p>	<p>중국 (36)</p>	<p>부중관계(16) 한중관계(1)</p>	<p>서북한 혼춘 나선 지역에 해당하는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중국의 대북지원, 중국의 대북정책, 대북정책, 중국의 대북 압력, 북중 간의 경제교류협력의 심화 정도</p> <p>대한국 정책</p> <p>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6자회담, 무모한 군사적 행동(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기능성 북한 핵에 대한 압박, 증대(이란 핵문제)의 참여(핵), 북핵 6자회담의 재개, 북한의 3차 핵실험, 핵문제와 북한의 도발행위, 비핵화회담 개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개, 강화, 6자회담의 재개, 북한의 3차 핵실험 및 대남 국지도발 가능성, 사드운, 국제관계, 관련국과의 타협에서 북한의 핵 활용, 핵 확산, 2012년 3월 핵(보장) 사회의 북핵,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확대, 6자회담,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 북한 핵문제 전개 과정,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 HFCU 등에 대한 북한의 물밀적인 태도변화, 6자회담 재개, 북한의 핵개발</p>
	<p>국제 장세 (29)</p>	<p>국제환경(28)</p>	<p>미일동맹 강화, 러시아의 경제적 이권을 증시하는, 역할, 중대연해주형군의 32주 개발계획 모색, 남북한 관통하는 천연가스파이프, 철도연결문제 등, 2012년 한국-미국-중국의 권력관계 변화, 2012년 한반도 및 주변 4강의 권력지도 재편방향, 중국과 러시아의 내부 통합 정도, 남북정상회담, 9.11 테러와 같은 대규모 테러 발생, 한미 중러 등 주요국들의 장권 교제로 인한 권력의 공백상태, 2012년 주요국들의 장권 동시교체 에너지난, 아랍이스라엘 갈등으로 인한 석유공급 중단, 내전, 주변국의 권력교체 결과, 한-중 지도부 교체 일러, 정세, 라중 권력 교체, 이프라라/중동의 민주화 물결 확산,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 일본의 장권 교체 여부, 주변국의 권력 교체, 주변 국가들의 장권교체 결과, 증동 재스민 혁명 후유증, 유로지역 경제인화/국제사 회 경제 곤란, 북한에 대한 외부 지원 어려움(중) 주요 국가들의 리더십 변화, 러시아 대신 주변국의 장권교체 주변국의 권력교체 및 잠관중의 인식</p>
		<p>유엔 및 국제기구의 역할(1)</p>	<p>UN의 경제제재</p>

다. 주요요인

국제경제요인 (14)	국제관계 환경(14)	<p>미·중 지도부 교체, 미중관계의 변화, 2012년 미국 대선 결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 주요 국가들의 정권교체, 미국과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미국과 중국의 힘의도출 중국의 북한 경제 원조 및 협력, 주요국의 정권교체, 글로벌 경제상황, 중국의 대북정책, 주변국의 국면타개 위한 압박, 주변국의 흥신 한·미관계 변화</p>
남북관계요인 (15)	남북소통(11) 친인합 사건 관련(4)	<p>남북한 지도부의 인식 전환,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북한의 일방적 조치(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남북, 정협)의 유지 여부(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국면 해결 난방, 남북대학의 재개 여부,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 금강산 관광, 인도적 지원 등 재개 여부,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p> <p>북한정권의 친인합 사과 등 대남 태도 변화, 친인합 파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공개적 사과, 친인합과 연평도-정상회담을 둘러싼 잡음, 친인합, 연평도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 여부</p>
남한요인 (8)	대북정책(30)	<p>진보·보수 정권출범 여부, 인도적 지원에서의 물발 상황(억제) 발생 여부,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대북정책 조정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관계 개선 시도 의지,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대북인식, 대북정책의 유연성 정도, 대북 정책, 대북정책 변화 여부, 대북정책의 변화,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정책 방향 설정, 북한의 경제외 경제지원 확대, 대북-통일정책 변화, 대북정책의 변화, 대북정책의 변화, 새 대통령의 대북정책 변화, 북한의 중장기적 전략적 정책, 신정부의 대북정책, 대북 식량원조 문제, 북한 정책의 지속성, 신정부의 대북정책, 대북 태세 및 정책,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정책의 변화, 대북정책의 변화, 대북정책의 지속 및 변화,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 공조, 대북정책 변화</p>
	정치상황(50)	<p>2012 년한 총선과 대선, 대선, 남한의 대선국면, 남한의 정권변화, 한국의 정권교체 여부, 대선 총선 등 국내정치적 지형 변화, 한국 대선 결과, 새로운 한국정부 출범, 차기 대통령, 내년 총선, 대선, 2013년 남한의 정권교체, 내년 총선, 대선의 결과, 총선, 대선 결과, 한국정부의 정권교체,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 경제상황, 남한의 정권교체, 국내선거, 남한의 차기 대통령, 한국의 대선, 2012년 남한의 대선일정, 한국의 대선 결과, 내년 4월, 한국의 총선 및 12월의 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선거 부활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재현, 2012년 정권교체</p>

<p>남한요인 (88)</p>	<p>정치상황(59)</p>	<p>한국정치 시장에서의 남북갈등요소, 한국의 정치변화과정, 남한의 홍산 대선 결과, 2012년 홍산과 대선, 내선, 내선 및 대선, 한국 대선결과, 국내 정치 상황 변화, 홍산 및 대선 결과, 국내의 경제 상황 변화, 홍산과 대선, 2012년 대선, 남한의 홍산 및 대선 결과, 남한인들의 고조, 남한의 경제 변화, 2012년 홍산과 대선 결과, 내선, 홍산 결과와 대통령 선거 결과, 남한, 홍산과 대선 결과, 신(新)정부의 탄생, 홍산과 대선 장관유지, 2012년 홍산 및 대선결과, 한국경제상황, 남한의 홍산 대통령 선거, 자기 홍산과 대선을 통한 정치 안정화, 홍산과 대선에 따른 권력지형변화, 남한, 홍산 및 대선의 결과, 의회 및 대통령의 상황,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국민여론, 정권 교체 여부, 내선, 홍산과 대선, 남한의 홍산 및 대선, 대선</p>
<p>북한요인 (95)</p>	<p>학·군사요인(32)</p>	<p>6자회담(2012년 3월 26-27일 핵안보정상회의), 북핵문제해결 정도, 북핵문제 해결 단계 진입 여부, 추가적 군사도발 여부, 북한의 핵관련 동향(3차 핵실험, 비핵화 진전), 3차 핵실험, 핵탄도미사일 공개 등 핵능력 과시, 북한의 도발 여부(핵실험), 대남도발 여부, 6자회담 진전 여부, 북한의 핵보유능력 과시, 북핵문제 추이, 북한의 핵 포기,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서울개최, 북한의 무력시위 및 군사도발, 핵협상과 관련된 상황, 북한 군부의 강경책(대남군사적 도발, 핵실험, 미사일 발사, 경협 중단, 인질전환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 군사적 핵 실험과 핵무기 소행화 여부(6자회담의 존속문제), 북한 3차 핵실험 가능성, 북한의 군사적 도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여부, 북한의 군사적 도발, 핵능력 강화 여부, 북한의 비핵화 결단, 대남도발, 미사일의 발사, 북한 핵문제, 핵문제, 3차 핵실험, 군사도발</p>
<p>경제(10)</p>		<p>심각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제난, 경제난, 북한의 개방 혹은 개혁 정책 추진, 북한체제의 경제적 상황(자연재해), 경제력 위기감, 경제부문의 상가 여부, 식량문제, 경제난, 북한의 경제</p>
<p>정치적 리더십 (42)</p>	<p>김정일의 건강-유고(16)</p>	<p>김정일의 건강, 김정일의 조기사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유지 여부, 김정일의 건강 악화 또는 사망, 김정일의 건강, 김정일의 건강, 김정일의 건강, 김정일의 건강인화, 김정일 건강면수, 김정일의 건강인화, 김정일의 퇴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 김정일의 건강, 김정일의 건강문제, 김정일 건강문제, 김정일의 건강상태</p>

<p>북한요인 (9)</p>	<p>정치적 리더십 (42)</p>	<p>후계구도 정착화 (20)</p>	<p>내부결속과 체제침비 간부교체 내부야합 강화 집중 북한권력의 성격 변화 북한의 권력세습 지도부 교체와 권력승계 북한당국의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시도 후계체제 안정도 북한의 권력승계 김정일의 권력승계 김정으로부터의 권력승계 북한의 후계체제 김정은 후계체제의 인척과정 김정일의 리더십 구축 정도 북한 당과 군의 권력전환기 세력추도권 갈등 양상 김정은 김정은 후계지를 둘러싼 권력투쟁 안정적 권력 승계 후계체제 조기 안정화 후계체제 수립과정 당과 군부의 관계 재설정</p>
		<p>인정성(6)</p>	<p>북한권력투쟁 북한의 강성대국 진입 강성대국 진입의 가시적 성과에 대한 압박 민생안정 북한정권 및 권력구도의 안정성 여부, 북한정권의 대내적 통제력 및 정당성</p>
		<p>대외정책(2)</p>	<p>북한의 대남 진략 여부, 대남강경정책 대남 유화입장 북미관계 진전 대남전략 북한과 중국 관계의 변화 발전 여부, 북 중결합의 성과 여부, 대남정책 북한 군부 및 엘리트 집단의 상황 변화 북측의 대남 정치문제 대남정책 대남관계</p>

연구총서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리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학술회의총서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협동연구총서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0,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기타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 (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 (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기구축	박영호, 김형기	7,5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5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와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Studies Series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Scenario Workshop Choi Jin Wook, Kim Kook Shin, Park Hyeong Jung, Cheon Hyun Joon, Cho Jeong Ah Cha Moon Seok, Hyun Sung 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 Teag, Kim Kyu Ryoon, Jang Hyung Soo, Cho Han Bum, Choi Tae 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 Ah, Suh Jae Jean, Lim Soon Hee, Kim Bo Geun, Park Young 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 Joon, Jeung Young Tae, Choi Soo Young, Lee Ki 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기타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 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2011년
통일에촉시계

KINU 통일연구원

